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4월 22일(음력 3월 27일) 수요일(주간)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라

‘상생위한 공동체’ 불교정신과 일치…환경 문화 등 가능성 많아

한국은 지금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자본주의는 투기, 소득분배 불평등 등 자본의 편중된 축적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질 않는다. 여기에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경제 블록화로 경제위기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존이 아닌 공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불교계가 ‘사회적 기업’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제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조계종중앙신도회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허경만)이 4월 15~16일 ‘위기의 시대, 불교에서 싹트는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강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안상현 · 이현수 연구원은 각각 ‘시민사회 영역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 ‘국내외 사회적 기업의 사례와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 사회적기업 창업팀 오시환 대표는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과 창업 방향’을, 건국대 김재현 교수는 ‘천년 고찰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해 강연했다.

강사들은 “독점, 대결경쟁구도, 빈부격차, 양극화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존, 화합, 협력, 나눔, 다양성의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교수는 “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농촌에 위치한 사찰 중심의 사회적기업은 블루오션”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수 연구원은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기업 혁신, 다양성과 구성원의 연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소기업의 형태가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영국의 ‘Green-Works’와 ‘Fifteen restaurant’ 우리나라의 제1호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을 비롯해 ‘아름다운 가게’ 등 다양한 사례와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소개했다.

안상현 연구원은 “내부적 동력을 이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 다양성,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고용시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시환 대표는 “실업인이 120만을 돌파한 상황에서 고급 · 청년인력 · 최하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불교계 사회적 기업은 △스님과 재가불자의 역할 분담과 △신도의 조직화 △불교와 생활의 일치 구현으로 재가불자의 역할창출과 일자리생성을 통한 자생력과 사회공헌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강연 후,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중앙신도회는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재가 불자 운동으로 사회적 기업의 모델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나눔 실천 불교적 ‘코드’

사회적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다. 때문에 불교계에서 ‘사회적 기업’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은 ‘행복을 나누며 생명을 존중하고 항상 나와 남을 동시에 위하는 베품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되는 형태로 식품유통, 공정무역, 문화사업, 환경사업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불교는 나눔의 종교이자 지혜의 종교로 오늘날 경제난의 해답은 불교에 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소통을 전제로 한 공존과 상생의 인드라망을 설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그 첫발은 희생과 욕심을 버리는 일부터다.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한다.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 불교의 무소유가 사회적 기업으로 표출되길 기대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Tip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영리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추구할 가치를 갖고 지역사회의 친환경적 자연생태, 문화, 예술, 교육, 여가를 보장하며 공익의 행복과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희망과 나눔의 빛’ 온누리에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4월 14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부대중 2000 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점등식에서 지관 스님은 축원을 통해 “석가모님 부처님 가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이 하나돼 나눔과 화합으로 사회가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설치된 장엄물은 미륵사지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부처님오신날인 다음달 2일까지 밝힐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법구경

마음을 잘 다스려
선과 악을 모두 초월했다면
깨달은 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9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봉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선지식을 찾아서
▶14 무여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12 혜정 정사


봉원사 신임주지
▶8 일운 스님

대정부 합동대책기구 구성키로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촉구 위한 긴급회의

조계종 중진스님들이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정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촉구 및 문화유산보전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종무 기관장과 중앙종회 의장단, 교구본사 및 전통사찰 주지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과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대가없이 국민들로부터는 시비 · 구설만 받아왔다”며 “2중 3중으로 된 정부의 과다규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중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스님들은 △사찰소유지에 대한 국립공원 명칭 사용 중단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지역 지정 △산림형 국립공원 관리의 산림청 이관 △전통사찰법 폐지 등을 논의했다.

정휴 스님(중앙종회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은 “정부의 법령규제에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종단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종단이 나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국립공원제도개선 법안검토실무소위원장)은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종단을 국가가 이기적 주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종단과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지난 30년간은 관광휴양개념으로, 최근 10년간은 자연생태계 보전 취지로 관리돼 왔다”며 “이제는 용도를 문화유산보전지역으로 바꿔 문화유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무부장 원학 스님도 “생태계 보전을 위주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법령들은 문제가 많다”고 동의했다.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타종교 재산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 · 관리하는 것은 전무하나 오직 불교만 재산관리에 대한 자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제도 등 사찰관련 규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스님들이 구성키로 결의한 합동대책기구를 확대 · 상시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은 “자연공원법에 규제받는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도심사찰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가법령 전반에 대한 종단차원의 검토와 대응을 주장했다.

합동대책기구의 구성은 총무원 집행부가 위임받아 전문가 · 학자 등으로 씽크탱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사회지도층 및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 · 배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과 ‘정조효행유적지 보존 및 효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조동섭 기자

일천팔십명 이름 헤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불교박람회(대구 벡스코)에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전통상감청자투각
□ 제품명: 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500원×1,080명-162만원 상당)를 무상 혜택으로 드립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분납(대금비 별도)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수작업 수량 한계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죽비와 목탁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인천국제공항 봉축행사 '난관'

불교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몇 일 앞두고 불교계 전체가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교계 지도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봉축법어를 발표했으며, 각 종단에서는 봉축 행사 및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봉축행사를 위해 경천사십층석탑(국보 제86호)을 8m규모로 형상화한 장엄등과 불교문헌, 진언 등을 형상화한 100여 개의 중형등을 포함 총 170여 작품의 등을 준비해왔다. 이는 2월 12일 제1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이하 종단협)에서 결정된 "진각종에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통등 전시를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연인원 27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최대국제공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한국의 출입문'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불교문화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막대한 홍보효과는 물론 '봉축 분위기'를 한층 밝고 환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인천공항 전통등 전시에 큰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을 대여해 큰 규모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예정돼있던 문화행사 · 공연 등으로 시간과 규모에 큰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전시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이상욱 차장(운영총괄팀)은 "밀레니엄홀은 매년 연말에 1년간의 공연 및 전시계획을 세워놓는다"며 "불교계에서 갑자기 넓은 공간과 긴 시간을 요하는 전시의 협조를 요청해와 (공항측도) 아쉽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종단협이 행사 주최를 결정한 것이 2월, 진각종이 공항측에 전시대관 문의를 한 것이 3월임을 생각했을 때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행사를 준비할 때 종종 불거져 나왔던 주먹구구 밀어붙이기식 진행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에서 개최까지 행사를 여법하게 준비 · 진행하기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또 한번 절실하게 느껴진다.

군포교 성패 군승 독신 여부에?

'비구승 예외조항' 원로회의 인준 앞두고 대립 양상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투표인원 65명 중 62명 찬성)된 '군승의 독신 비구승 예외조항(종헌 제9조 2항) 삭제'의 원로회의 인준을 앞두고 일부 군승들이 몇몇 원로스님과 연계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주로 영관급 기혼 군승으로 알려진 이들은 육 · 해 · 공 군승 일동 명의로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을 대상으로 '원로대덕 큰스님들의 판단에 군포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돌렸다.

군승들은 "종회의 개헌 결정이 군종특별교구와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됐다"며 "원로회의에서마저 인준되면 군승의 수급은 물론 장기복무를 통한 군포교 전문가 양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승들은 "논의 절차를 배제한 이번 결정은 군포교 조직을 뿌리채 흔들 중대한 사안"이라며 "종회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도 원로회의 스님들에게 "독신만 주장하면 조계종 군포교는 희망이 없다"며 종헌 제9조 2항을 삭제하면 군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비역군승회장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과 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은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승 등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다.

계성 스님은 "예비역군승은 종헌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1981년 조계종 정화중흥회의에서 독신 예외조항이 입법된 이후 군승제도는 지금까지 30여년 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종헌이 개정되면 20년 후 군승제도는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오히려 독신군승이 기혼군승과 부딪히기 싫어 제대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재 장기복무 신청자의 경쟁률이 4:1에 이른다. 절대 장기복무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군종교구 상임위원을 4년, 신흥불교대책위원장을 2년 맡으며 군종교구에 줄곧 설명해왔다"며 "기혼군승 40여 명이 90여 비구군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스님은 "군승을 결혼시켜야 수급이 안정된다는 일부 군승들의 주장은 포교를 위해 비구 종단인 조계종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힐난했다.

한편, 종헌 개정안을 인준할 조계종 제33차 원로회의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암 스님 추모 행사 '다채'

월정사 4월 22일~5월 7일 다례재 등



한암 대종사 진영.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한암 스님(1876~1951)의 탄신 제134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마련됐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탄신다례재를 4월 22일 오전 10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한다.

28~30일은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 정립을 위한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이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열린다.

한암 스님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할 제3차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는 '한암사상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이 '한암 선사의 간화선'을,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한암 스님의 승가오칙과 조계종의 신행'을,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한암의 종조관과 도의국사'를,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탄허의 결사운동에 대한 새로운 조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033)339-6800 조동섭 기자



호국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봉행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4월 11일 경내 대적광전 앞에서 제49회 호국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8000여명이 참석해 경판을 들고 해인도를 돌며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정대행진을 펼쳤다. 이날 함양 장수사지 후불탱화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행사가 함께 열려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의미를 더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 관혼상제 전문 서비스 제공"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발기인대회 봉행



14일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발기인대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위원장 배관성) 발기인대회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발기인 대회는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에 이어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의 '불교 상조 및 상 · 제례 산업 현황과 전망'과 불교생활의례문화원설립 유재철 준비부위원장의 '불교생활의례문화원(준)사업계획' 발표,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배관성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7년부터 진행된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준비과정이 쉽지 않아 중도 포기도 생각했다"며 "불교 의례 · 의식이 왜곡되고 타종교에서 부문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불자들에게 불교식 관혼상제 전문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강동구 교수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 상제례 시장의 현황은 크게 미약하다"며 불교 상조 및 장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죽음관련 이슈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 참여와 대안 제시 △노인복지시설, 임종의례 정립과 확산, 상조회 체계화 △불교 장사시설 확충 △불교식 제례 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제시했다. 이상언 기자

마곡사 법용 스님 '공권정지 5년'

말사 주지 품신시 금품을 수수해 검찰 고발까지 이르렀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4월 16일 제65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마곡사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내렸다.

심판부는 마곡사 재무국장 대광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을, 법용 스님에게 금품을 제공한 말사 주지 지용 · 서호 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마곡사 관련 직무비위로 징계회부 됐던 비구니 대일 스님은 공권정지 1년, 대관 스님은 법계강급 1급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호법부는 법용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사 후불탱화 점안법회 봉행 조계사(주지 세민)는 4월 16일 대웅전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점안식에는 무관 스님(前 해인사 해인율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점안된 후불탱화는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석가모니불, 아미타불 · 약사불)중 아미타불, 약사불 후불탱화다. 1년 여에 걸쳐 통도사 사명암 동원 스님이 불모로 참여한 후불탱화는 가로 4.5m 세로 7.5m 크기다. 조동섭 기자

불교입문 강사양성과정 개설

조계종 교육원 5월 19~21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5월 19~2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입문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조계종 비구 ·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참선의 힘,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신도의 마음, 깊이 읽기 △편안하고 친근한, 펀 펀(fun fun)법회 △명품스피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이 강의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찰 주지스님이 불교입문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올해년도 본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참가신청은 5월 15일까지, 선착순 40명. (02)2011-1807

조동섭 기자

봉행

선각종 국태민안기원 및 생전 예수시왕칠재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고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하여 중생교화에 주력하신 각 사암 주지스님의 법체청안하심과 대소불사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축년 윤년을 맞아 중생들의 다겁생에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보살님과 염부제시왕님께 선법을 닦아 내생에 성불코져 발원하는 생전예수시왕칠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각 사암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수희동참하시여 현존에는 무량한 복락을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생전예수재 봉행위원장 원각 진원 합장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음력 4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올림포스호텔 특설법단 (☎ 032-762-5181)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인천 계양사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후 원 : 선각종 전국 교구 종무원 ◆ 증 명 : 종정 영담 정업 대종사

◆ 문의전화 : 인천 계양사 (인천시 동구 화평동 365-3호)
전화 032)765-3207 / 010-6359-7872 / 016-715-1085
선각종 총무원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번지)
전화 061)433-2233, 3233 / 팩스 061)433-2425 / 011-795-1420 진목스님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환경 살리기, 불교계·시민사회 나서

지구의날 맞아 각종 행사도 잇따라

4월 22일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의 날'을 앞두고 불교, 환경단체들이 국민인식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 등 정부, 지자체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와 4대강 개발 계획, 지리산댐 추진 등에 대한 대국민 환경의식 고취와 저변 확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상생환경법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 19일 조계사 환경법회를 시작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환경법회'를 매월 개최한다. 조계사에서 실시된 첫 환경법회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법사로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법문했다. 다음 법회는 5월 24일 청계사, 6월 14일 광명 금강사, 7월 22일 남양주 봉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법회를 기해 4월 생명살림 프로젝트인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물 받아 쓰기 △화장지 대신 손수건 쓰기 △장바구니 쓰기 등을 제안하는 홍보물 배포와 더불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는 '생명의 강' 사진전도 열었다.

#오체투지 동참 프로그램 개최 = 불교환경연대는 4월 25일 '칠장사 사찰순례와 함께하는 오체투지 기도순례'를 개최한다. 안성 칠장사를 참배하고 오후에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등 오체투지 순례단에 합류해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11일에는 조계종 원우회(위원장 김한일)도 동참해 마곡사를 참배하고, 오체투지로 생명과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5월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동참비 2만원. (02)720-1654

#지구의날 걷기 퍼레이드=한국환경회의, 에코붓다 등 환경단체들은 4월 19일 지구의날을 맞아 남산 백범광장일대에서 걷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구를 위한 걷기'와 '숲을 위한 재생종이', '땅을 위한 먹을거리', '물을 위한 천연세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참가 시민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재생종이 물품전시전과 유기농 음식, 천연세제 등을 체험했다.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운동=불교환경연대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4월 12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활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중지 △자연공원에 대한 개발 정책 포기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책위는 향후 지리산, 설악산 등 주요 자연공원에서 서명활동을 이어고, 5월 24일을 '케이블카 반대 대국민행동의 날'로 지정,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희망 잃지 마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한다솜 희망 음악회'를 개최했다. 나들이에 어려움이 있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음악회에서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악회를 찾은 환자들을 격려했다. 박재완 기자

동국대, '세계 대장경' 기증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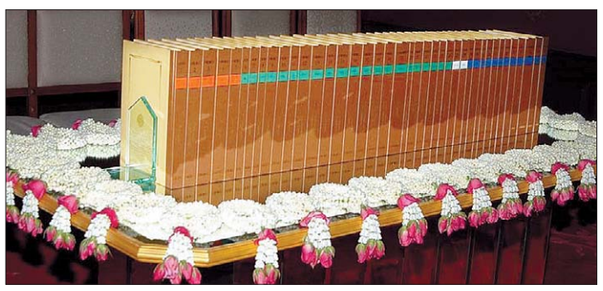
23일, 태국 방문단 동국대서 기증식 봉행

태국 왕실의 후원 하에 빨리어로 제작된 대장경(Tipitaka)을 로마자로 옮긴 '세계 대장경(World Tipitaka)' 40책이 국내 최초로 동국대학교에 기증된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4월 23일 태국 'World Tipitaka' 위원회 위원장인 버나그 교수(태국 아놉쥬랑론대) 등 20명이 동국대를 방문해 '세계 대장경'을 기증한다"고 4월 16일 발표했다.

빨리어로 된 대장경(Pali Tipitaka)은 일본에서는 남전대장경으로 번역했다. 대승경전의 아함부에 해당하는 경전으로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에서 독송하는 경전이다.

이번에 동국대에 기증되는 '세계 대장경'은 1957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합의를 기반해 1999년부터 6년간 작업을 거쳐 로마자체로 제작된 표준적이고 전통지향적인 빨리어 본 대장경이다.



태국 왕실 후원으로 편찬된 '세계 대장경'.

책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대장경기술정보은행(Tipitaka Technology Data Bank)에 보관돼 있는 14개 이본에 대한 상호 참조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또 대장경(Tipitaka)과 관련한 연구자료, 인용, 발음에 관한 자료도 포함됐다.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받는 대장경은 남방불교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라며 "불교학 연구의 세계화에 더욱 큰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기증식에 이어 태국방문단과 '세계 대장경'의 국내 저작권 위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대장경' 창립판은 2005년 3월 6일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첫 증정됐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3월 6일을 '세계대장경의 날'로 선언하기도 했다. 기타 창립판 및 특별판은 스리랑카, 태국, 일본, 스웨덴, 네델란드 등에 기증됐다.

조동섭 기자

정각스님 소장 동해·독도 고지도展 고양어울림미술관서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옛 지도가 일반에 공개됐다. 독도사랑회(회장 길종성, 고양시의원)가 4월 13~20일 고양 어울림미술관에서 개최한 '동해 및 독도 고지도전'에 스님의 지도가 전시된 것.

이번 전시에는 1732년에 제작된 프랑스 왕실 지도제작자 당빌의 '중국전도'를 비롯해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한국과 일본,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67점이 전시됐다. 특히 당빌의 '중국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보다 130여 년이나 앞서 제작된 지도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홍안사 훼불사건 관련 이 모씨 긴급체포

4월 13일 홍안사 재난입해 시설물 파손해

'김해 홍안사 훼불사건'(본지 726·727호 보도)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오던 이 모(49)씨가 4월 13일 또다시 홍안사(주지 보현)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다가 김해홍안사불교법난대책위원회(회장 조유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정규 총경)는 "이 모씨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주석하고 있는 스님의 퇴거를 주장하며 홍안사에 재난입해 유리창과 창문, 출입문 등을 부수고 염장물을 뿌리는 등 사찰 시설을 파손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해서부경찰서측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교법난의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엄중처벌할 것" 등을 요구 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대구 봉축탑 점등식 열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는 4월 11일 국채보상공원에서 봉축탑(14m 높이의 아기부처님 상) 점등식을 봉행했다. 봉축위원장인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권영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점등식에 앞서 국채보상공원에서는 난타와 마술, 인기가수 무대 등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법요식 이후에는 탑돌이 의식이 펼쳐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강수 덕진서장 종교편향위 항의에 "오해받아 유감"

경찰 워크샵 중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 낭독으로 종교편향 물의를 일으킨 이강수 덕진경찰서장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16일 이강수 덕진서장 명의의 항의공문 회신을 공개했다.

이강수 덕진서장은 당초 논란 당시 "윌리엄 버클리의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을 인용했을 뿐이다. 이는 맥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와 같은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이 서장은 공문회신에서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에서 종교적 문구를 원문 그대로 사용, 종교편향 오해를 받게 돼 유감"이라며 "특정종교에 편중되거나 차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사려 깊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평위는 덕진서 종교편향 건을 비롯해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문구를 공식명함에 삽입해 사용한 서울시청 복지국 공무원 등 2건을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위반으로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 건에 대해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서사랑’ 인천에 1호 개관

조계종, 인천불교회관에 700만원 상당 도서기증

조계종이 지역불교계와 불교출판계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사찰도서관 설립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는 4월 15일 종단 사찰도서관 브랜드 ‘불서사랑’ 제1호점을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에 열고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을 개최했다.

불서기증식에는 ‘2008년 올해의 불서 10’으로 선정된 불서를 포함해 700만원 상당의 도서와 ‘불서사랑’ 현판이 전달됐다.

수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침체된 불교출판계 활성화를 위해 총무원 문화부는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구상해왔다. 오늘이 바로 그 구상의 결실이자 출발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포교의 황무지로 알려진 인천에 제1호 사찰도서관이 생겨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일지 스님은 “불교회관 신도님은 물론 경찰청 불자회와 직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 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사찰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15일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왼쪽)이 인천불교회관 일지 스님에게 불서를 기증하고 있다.

문화부가 펼치고 있는 ‘불서사랑’은 불교도서에 대한 불자들의 지적 관심증대 및 불서읽기를 통한 문화증진과 불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문화부는 △올해의 불서 10 읽기 △사찰에 1인 1불서 보시하기 △불서 읽기 공간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불서사랑’ 보급에 나섰다.

문화부 관계자는 “매년 봉축기간에 불서도서전을 개최해 그 수익금으로 ‘불서사랑’으로 선정된 사찰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해왔다. 앞으로 사찰도서관을 꾸준히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불서는 2008년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실시한 제1회 불교도서전의 수익금 1000만원으로 마련됐다. 300만원은 조계사에 불서로 기증될 예정이다. (032)434-9910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청암승가대 ‘다문화 가족 초청 전통사찰음식행사’

다문화가정 250여명 초대 · 전통음식회발족기념

김천 청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 전통음식회는 4월 12일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족 250여 명을 초대해 ‘다문화 가족 초청 전통사찰음식행사’를 개최했다. 전통음식회 발족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사찰음식시식, 다문화가정 남녀 대표의 감사글 낭독, 노래자랑, 화목한 다문화 가정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청암사승가대학전통음식회 관계자는 “매주 토요일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는 아이 다수가 다문화가족 어린이임을 알고 다문화가정이 건전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하던 중 사찰음식에서 해답을 찾았다”며 “정기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초대하고 사찰음식과 함께 불교에 대해서도 친근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김천시 송영배 부시장, 이철우 국회의원 (한나라당)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12일 김천 청암사에서 열린 전통사찰음식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과 불자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보리수 선원 ‘아비담마’ 특별 강좌

불교철학과 불교심리학의 총체 아비담마를 세계 최고 권위자에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준비됐다.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위빠사나수행처 보리수선원은 4월 24일 ~ 5월 9일 월~토요일 저녁 7시 30분 과천 보리수선원에서 미얀마 우 난다말라비 왐사 스님을 초청해 우 난다말라비 왐사가 지은 <아비담마>로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우 난다말라비왐사 스님은 미얀마 불교대학 학장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아비담마,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며 최고의 학승이자 수행승으로 인정받고 있다. (02)517-2841

이상언 기자

실직가정과 함께하는 마래산 석천사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가장돕기에 나섰다.

석천사는 4월 20일 ~ 5월 4일을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4월 23일 불교예술제, 4월 25일 여수시민이 함께하는 ‘실직가정돕기 삼보일배’ 기금 마련행사를 갖는다. 5월 1~2일은 석천사 가릉빈가 합창단이 ‘실직가정돕기 바자회’,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도 및 공양, 연등 접수를 실시한다. 5월 1일에는 캄보디아 왕립 압사라 무용단 초청공연 등으로 모인 기금을 5월 2일 실직가정 100가정을 선정, 1가정에 100만원 전달한다.

진옥 스님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실직가정들과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여수 시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나눠야한다” 며 “나눔이 자비의 시작이고 부처님의 자비행으로 나누는 기쁨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성인이 오심은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할 날이기에 나눔 실천의 자비의 행사에 두루 동참해 동체대비를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선보일 불교예술제는 불교가곡, 찬불가, 전통법음, 나비춤, 승무, 바라춤 등의 공연으로 준비됐다. 또 캄보디아 왕립 압사라 무용단 초청 공연은 신과 왕에게만 바치던 크메르 전통무용으로 유네스코에 8번째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다.

이상언 기자

‘보리수 아래’ 제2회 노래봉행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가 4월 28일 저녁 7시 제2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를 봉행한다.

조계종 봉축위원회, 청량사, 좋은벗풍경소리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장애불자인 서지영, 정상석, 정준모, 김진석, 최윤정 씨의 시낭송과 직접 작사한 노래, 원심회(회장 김장경) 난타팀 공연 등을 준비했다. 보리수아래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장애불자들이 참여한 음반제작, 시집발간, 무대 공연으로 장애불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며 장애인법회를 여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10)2367 - 2611

이상언 기자

법조인 불자들 사찰순례법회로 심신다져…

서초반야회 170여 명 금산사서 템플스테이

법조인불자모임 서초반야회(회장 박홍우)가 4월 11~12일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템플스테이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11일 판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 170여 명의 참가자들은 변산 내소사, 고창 선운사 사찰을 순례하고 원행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스님은 이날 무상(無常)에 대한 법문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덧없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집착을 떠난 경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에 있어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당부했다.

법문에 이어 저녁 9시부터 참가자들은 개인 가행정진,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24명이 1080배를 하며 신심을 다졌다.

12일 새벽예불, 108정진, 발우공양, 보현행자의 서원 독송, 일감 스님과 대화의 시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의 영상법문, 마음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서초반야회는 5월부터 월1회 주말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11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서초반야회 회원들.

신행게시판

●원순스님, 도심 선방서 신심명 강의= 선가의 대표적인 명저로 꼽히는 <신심명>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선강의가 4월 22일부터 격주로 수요일 오후 1~4시 종로구 수송동 열린선원(두산위브 836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원순 스님. (010)9154-7790

●문수경전연구회 ‘임제록’ 강좌= 문수경전연구회는 임제선사의 가풍을 되살리고자 5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문수선원에서 <임제록> 강좌를 실시한다. 모든 종단의 스님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1)515-7870

●담마찌따또야 대전에서 모임= 담마찌따또야는 4월 26일 대전 담마수카또야 수행처에서 사사나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를 집중 지도한다. 좌선, 경행, 차담, 인터뷰, 법문 순으로 진행된다. (011)9135-8277

●불교중앙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실시= 불교중앙박물관이 5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3시 불교문화강좌를 실시한다. 불상의 기원,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국제양식, 고려불상양식의 계승, 불상양식의 창출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15만원으로 선착순 100명 접수 받는다. (02)2011-1968

심향사 네번째 연등음악회


피아노 / 송세진



출연
강산에 / 록 뮤직의 오아시스
송원진 / 바이올린 · 베토벤바이러스연주
송세진 / 피아노

한영애 / 퍼포먼스
신유식 / 섹소폰
얼 쑤 / 타악
황성철 / 바리톤
이현지 / 보컬

사회 · 박남준 / 지리산시인

시 · 2009년 4월 25일(토) 오후7시
공 · 심향사 야외무대(전남 나주)
전화 061)334-2880, 5420 / www.simhyangsa.or.kr


바이올린 / 송원진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심향사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5번지

기획 / 김은영 연출 / 이익태 진행 / 정은선

전문자격증 교육생 모집!
보건식품처방사
자격증은 자격검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자격 심사를 통하여 발급합니다

경기불황! 은퇴! 두려워 하지 마세요~
미래 건강처방 전문가의 길을 통해 당신의 희망과 꿈이 보입니다.

보건식품처방사란? 식약청이 인정한 식품원재료를 기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는 전문가

교 육 대 상 자
1) 현재 건강원(중탕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강보조(기능)식품 전문판매자 2) 약선식이 및 전통차와 관련 점포를 운영 또는 사업을 하는 자
3) 건강웰빙 식품사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건강보조(기능)식품 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준비 중인 자
5) 해외이민 희망자. 식품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희망자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특 전
전자연치유론, 약초기초, 동양의학기초, 식이섭생, 약차처방론, 체질론, 약초관리론, 식품위생보건학, 약용식품영양학, 식재료관리, 임상질병학, 식의처방학, 체질론, 식의학, 식의실습, 중탕론 I , 약초식품방, 약초법제론, 중국황실약선식의방, 중국약초식품방, 식의내과학, 음양식의학, 식의화학론, 식품발효학, 중탕론 II , 특별강의	총 96시간 (12주 / 3개월) 토요일반 주 중 반 (주간/야간)	• 보건식품처방사자격 및 수료 • 중국특별 약초비방 전수 • 보건식품처방사회원 혜택 • 해외 및 국내 관련사업. 창업컨설팅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 문의 : 02)393-5111 / FAX 02)312-5404 www.kile.or.kr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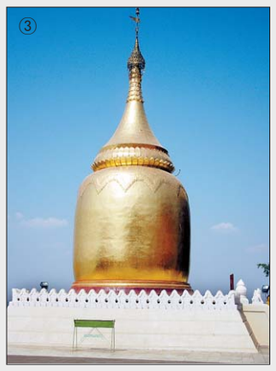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②

미얀마 최초의 왕국, 천년 넘는 불교유적지







① 쉐산도사원 중심의 대평원 사원 탑.
② 우팔리테인의 천불벽화.
③ 부파야 황금종 사리탑.

기원후 1세기에 부족 통합하면서 따똥서 온 승려에 의해 불교 전해져
13세기에 건립된 벽돌 사원은 석굴암 연상시켜…쇠창살 속 벽화 '찬연'

만달레이는 두 번째 도시답게 매우 넓다. 주변의 몽유와 매묘 밍군 사가잉을 다 보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하나 다음을 기약했다. 참고로 미얀마는 남한의 7배에 육박하는 67만 평방킬로미터의 방대한 국가로 인구 5100만이고 70%의 미얀마족 외에 160개의 소수민족과 107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다. 단일민족인 한국인으로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숲과 강의 친환경적인 만달레이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양곤 같은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영국식민지 시절의 협궤열차를 15시간에 걸쳐 타본 터라 가이드북의 요주의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에 몸을 실었다. 바간까지 293km의 거리를 가자면 기차로 1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모험심으로 버스를 탔으나 불과 6시간만에 큰 고생 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미얀마 최초의 왕국이며 천년이 넘는 불교유적지가 산재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간은 가장 보고 싶었던 불교도시로 약간 흥분되고 긴장된 순간이었다.

바간의 역사와 문화

빈틈없이 꽉찬 승객의 절반은 미얀마인이고 반은 나와 같은 웨스턴 배낭여행객 등으로 터미널에 도착하기 무섭게 짐을 내려 삼삼오오 큰 배낭을 메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기는 천년 유적지답게 주로 교통수단이 마차다. 마부들이 서로 경쟁하듯 호객한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의 마차에 올라 여러 군데의 호텔을 전전하다가 하루 5달러짜리의 조용한 정원이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주인은 몇해 전 한국관광을 갔다 와 지명을 줄줄 외우는 60대중반의 노신사, 우기라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지만 숲이 우거져있는 '고색창연한 역사도시에 왜 군사정권 국가?'라는 긴장이 풀리고 행복감이 느껴졌다. 때묻지 않는 순박한 인심, 아름다운 자연환경,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기원전 3000년에 이미 강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바간은 기원 후 1세기에 타무다리왕이 19개 부족을 통합하면서 바간왕조가 시작되고 부족국가로 이어오다가 1044년에 즉위한 아나우라타(Anawrahta, 1044~1077)왕이 서남부 지역을 평정하고 통일왕조를 세웠다. 이 시기에 바간의 남쪽 지방 따똥(Thaton)에서 온 승려 신아라한(Shin arahan)에 의해 불교가 전해졌으나 이웃 왕국 따똥에 불교경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아나우라타왕이 거절당하자 따똥을 정복해 마누하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때 데려온 많은 기술자에 의해 불교문화의 찬란한 바간왕조가 꽃피게 됐다.

경우는 다르나 일본의 자랑거리인 교토와 나라 규슈 지역의 고대 불교문화가 가야와 백제문명으로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수많은 도공들의 도자기는 일본이 선진기술국가로 터를 닦는 계기가 됐으며 산업과 문화에서 한국을 앞서가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조선인의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은 수백년 후 반도체 등 전자기술의 세계최고국가 일본의 원동력임을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가끔 우리와 일본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대평원에 핀 불교예술의 만다라

오후 늦게 3인용 자전거에 동승하다가 문득 한글 간판 '난향'이 눈에 띄었다. 주인은 대구사람으로 흑단 염주를 생산해서 한국에 보낸다고 했다. 한국인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이곳에서 그는 매우 고생하는 것 같으나 또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양곤에서 수년 있다가 천혜의 풍광을 가지고 있는 이곳으로 옮긴지 1년이란다.

미얀마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돼 상점이나 호텔은 반드시 발동기를 쓰는데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밤에는 젊은 마부를 소개받아 이틀간의 일정을 상의했다. 광활한 지역이지만 길이 좁아 자동차는 맞지 않고 자전거나 마차가 제격이다. 바간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지정된 올드바간, 관광객들을 위한 낭우지역, 원주민이 주로 살고 있는 뉴바간지역이다. 다음날 마차를 타고 처음 찾은 곳은 구비오치 수레이투 우팔리테인 사원이다. 모두 13세기에 건립된 벽돌 사찰로 전방후원(前方後圓)의 전형적인 석굴법당이다. 어쩌면 경주 석굴암과 똑같은지 거듭 감탄사가 나온다.

특히 우팔리테인(Upali Thein)의 벽화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다. 식민지 시절 영국 등 서구인들이 도굴을 해서 벽화를 떼어간 탓에 한쪽 벽은 텅 비어 있다. 유네스코가 몇 년 전부터 도굴 방지로 쇠창살을 해놓았다.

키밍가 파고다에 오르니 대평원이 한눈에 보이고 파고다사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술적인 사원은 아난다(Ananda paya)사원이다. 1091년 짠시따왕이 건립한 절로서 인도 벵갈지역 사원 양식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입구가 나있고 법당의 동서회랑이 182m 남북회랑이 180m가 되는 거대한 사원이다. 부처님의 전생담인 637개의 벽화, 자타카를 그려놓았다. 남쪽 정면의 목조가섭불은 9.5m의 입상이고 북쪽에 구류손불이, 동쪽에는 구나함모니불이 모셔져 있다. 이 가운데 북쪽의 부처님만 1000년전 원형이고 나머지 동서남쪽의 입상은 최근에 재조성되었다 하나 차이를 모를 만큼 정교하다.

아난다 사원은 인도 그리스 풍의 사원건축으로 마치 거대한 가톨릭 성당에 들어온 느낌이다. 卍자 형태로 十자 회랑이 있는 11세기 절이고 마하보디사원 역시 인도 그리스 건축모델로 12세기 짜야 데인카 왕이 건립한 우아한 자태의 절이다.

12시가 넘어 점심을 벌판에 천막을 친 식당에서 먹었다. 주로 미얀마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퓨전화된 음식이 아니라 전통 미얀마 정식이다. 야채, 젓갈, 쌈, 나물, 찌개가 있어 입에 너무 잘 맞았다. 미얀마인은 우리처럼 북방계 몽골리언이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할까.

부파야(BUPAYA)는 이야우디 강변에 자리잡은 황금종 모양의 사리탑으로 3세기 작품이다. 30년 전 다시 복원된 아름답고 환상적인 탑과 풍광이 수려하다.

고도우팔린야는 12세기에 건립됐고 파투어담야는 10세기 절이다. 저녁 5시, 오전에 갔던 대평원 사원의 선사인 탑 옥상에 여행자들이 모여들었다. 작품을 찍기 위해 장엄한 낙조를 응시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순례와 칠기공장 탐방

다음날 아침 야채죽을 한 그릇 먹고 나선 곳은 어제와 반대 방향이다. 13세기 이사고나사원을 참배하고 난다민야(Nandamyna)사원을 돌아봤다. 옆에는 11세기 암석굴 수행처가 있다.

풍우한서(風雨寒暑)를 피할 수 있는 반 지하 석굴은 수백 명이 족히 거처할 수 있는데 인도의 아잔타 석굴의 축소판 같다. 페야똥주, 탄부라, 테요비 사원은 13세기에 건립되었다. 옆에는 타워 전망대가 있는데 빈틈없이 들어찬 사원과 탑 사이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군사정권이 시멘트 전망대를 세웠으나 흉물로 보인다. 마누하사원은 바간왕조에 패해 노예로 끌려온 따똥국의 마누하 왕이 1059년에 지었다. 앞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초대형 보시함이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법당 뒤에는 초대형 와불이 모셔져 있다. 마누하왕이 갇힌 난파야 힌두양식의 사원은 무척 어둡고 브라흐만신이 기둥에 조각되어 있다. 담마야지카, 황금탑이 아름다운 꼭 둘러봐야 할 사원이다.

담마양지 사원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정삼각형의 거대한 규모가 압도적이다. 12세기 나라뚜왕이 아버지 알라웅시뚜왕과 형제, 부인까지 살해하고 죄업을 참회하기 위해 세운 절이다. 조선조의 태종과 인도의 아육왕을 연상시킨다.

쉐산도는 일출과 일몰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쉐지곤 사원과 함께 1057년 아노우라타왕의 따똥 정복기념으로 세운 절인데 1075년 대지진때 탑의 상층부가 훼손되었다.

구벽지, 1113년에 짠시따 왕의 아들 라자쿠마르가 세운 절로서 큰 좌불상과 내부에 벽화가 가득하다. 독특한 양식의 슬래마니를 참배하고 곧장 농촌빌라지의 베짜는 집을 방문했다. 예전 우리네 농촌을 방불케하는 넓은 마당과 초가집 외양간, 직물칸, 농기구 창고들이 정겹고 넉넉한 인심을 느끼게 한다.

오후 늦게 방문한 옻칠 공장의 주인은 최고장인으로 말론부란도와 닮은 도도한 사람이다. 다른 가게보다 열 배나 비싸 값을 흥정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 뒤 수차례 다른 옻칠가게를 가 보았다. 바간의 최고 명물은 은제품과 옻칠공예, 진주 장식품이 유명하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중국적산법화원 방생법회 초대
한중불교교류행사 & 중국불교성지순례 (주)SK투어 ☎1600-4226

제1일
14:00 • 인천항/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집결후 출국수속
(협찬사 경유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45인승 셔틀버스 무료제공)
• 움직이는 특급호텔, 2만6천톤급, 특급카페리 탑승 후 휴식
18:00 • 저녁식사후 주지스님 주최로 선상법회 행사
• 장보고일대기 영화감상 • 중국산동성 불교유적 영화감상

제2일
09:00 • 중국도착후 입국수속 • 적산법화원으로
11:00 • 적산법화원 방생법회행사 참여
(중국적산법화원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방생법회)
13:30 • 점심식사후 관음보살 분수쇼 감상
15:30 • 연태시 외인박물관 견학
16:30 • 연태산공원 관람후 석식 • 숙소휴유시간

제3일
08:00 • 조식후 연태시 봉래로 이동
10:00 • 팔선각, 삼선산등 봉래유명관광지 관광
13:00 • 점심식사후 용구시로 이동
14:00 • 남산대불 중국불교박물관 참배 및 관광
(중국남산대불사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한 • 불교교류행사)
18:00 • 연태석탄(전통맛사지 및 북방향양사 선택투어)

제4일
08:00 • 조식후 연태시내관광(쇼핑 : 토산물점)
12:00 • 중식후 북여동해(세계위인동상전시)관광
해수관음보살 참배
16:00 • 연태/영성/석도항 국제여객터미널 도착후 출국수속
저녁식사후 주지스님주최 선상법회 행사

제5일
10:00 • 조식후 인천/평택 도착후 하선준비
입국수속후 귀가 감사합니다.
(협찬사 경유시 목적지까지 45인승 셔틀버스 무료제공)

4박 5일 ₩ 399,000

출발일
4월 30일 ~ 6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동훼리호 인천항출발), 목요일 (대룡훼리호,평택항출발)
·포 함 사 항 : 왕복카훼리호(다인실), 전일정식사포함, 호텔 2박(2인실), 중국현지관광 및 방생법회, 한중불교교류행사,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비, 현지가이드팁,기타 개인비용

적산법화원은 한국(신라)사람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중국 산동성 최대의 사찰로서 한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1994년 한·중우위를 더욱 돈독히 한다는 취지하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장보고기념탑도 건립하셨습니다. 한국의 불교지도자님들과 불교신자님들을 초대하여 중국 위해시 불교협회와 함께 한중불교 교류를 위해 방생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국적산법화원 주지

국내 방생법회 행사
45인승 최신형 관광버스 무료지원
[2009년 4월 23일 ~ 7월 31일까지]
• 전국 어디든지 방생법회행사 무료버스 지원가능
• 점심(공양). 방생법회 행사비등 1인당 10,000원만 지참
• 버스지원협찬기업 30분간 경유

어버이날 특선
중국크루즈여행 5일
(5월 7일 출발)
399,000원

제주도 3사순례행사
약천사/관음사/천왕사
(매주 화, 목, 일 출발)
259,000원

(주)SK투어 ☎1600-4226

해 외 WORLD

2500년 전 불교대학 복원

간다라미술문화련 파키스탄 탁실라에 재현

불교문화의 원류인 간다라 지역에 2500년 전 불교대학이 복원된다.

간다라미술문화연합회(GACA)는 "최근 파키스탄의 탁실라(Taxila)지역에 21세기 형식에 맞는 2500년이 된 불교대학을 재현중"이라며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前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파키스탄 정부와 함께 유적지에 학교를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다라미술문화연합회가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기원전 700년 전 세계 최초로 생긴 대학을 재현하는 것으로 약 3년여가 소요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사립지원 단체, 한국, 일본, 중국 등 불교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다.

간다라미술문화연합회 쥴피카 라힘 회장은 "이번 기획은 전 세계 불교신자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예를 올릴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파키스탄의 간다라 미술 홍보와 보존을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 운덕 스님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 인종적 대립 상황에 대해 '평화와 조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가톨릭, 개신교 등 각 종교들이 파키스탄에서 상업적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간다라 문화는 매우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모든 문화와 종교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문화를 갖고 있고 이들의 뿌리는 간다라양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국제불교영화제 IBFF 개최

영국 런던서 5월 7~17일

불교적 영감과 관점에서 해석된 불교 영화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불교영화제(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IBFF)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국제불교영화제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문화센터 바비칸(Barbican)에서 5월 7~17일 개최되며 미국 동부다큐멘터리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불교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담은 영화들이 상영될 계획이다. 상영 예정 영화는 18개국에서 출품한 총 46개 영화로 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준비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컬트영화의 대표작인 도니다코(Donnie Darko, 조니뎁 · 이완맥그리거 주연)가 영화제 오픈 상영작으로 선보인다.

영화제는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하홍의가족기금 · 何鴻毅家族基金)의 지원으로 열려왔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4월 29일부터는 인근 화랑에서 로버트의 아시아불교 조형물을 전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2009 국제불교영화제는 런던에서 5월 7~17일 열린다.

국제불교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불교적 관점을 갖고 새롭게 재해석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불교신자가 만든 영화를 비롯해 불교를 테마로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영화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교테마와 아이디어를 통합해 불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보여 왔다. 이나은 기자

"티베트 문화 보존"

달라이 라마 호소

"티베트 불교 문화를 보존, 보호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4월 12일 인도 북부에 새로 여는 티베트 수도원인 차임가찰링(Chime Gatsal Ling) 닝마 수도원(Nyingma) 개관식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새로 설립된 수도원은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지역의 노르불링카(Norbuligka)의 티베트 문화 연구소 근처에 위치해있다.

이날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기 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 세계의 다른 지역 사회와 비교할 때 티베트지역사회를 가장 성공한 피난처로 만들었다"며 "티베트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 언어, 정체성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차임가찰링(Chime Gatsal Ling)의 설립자와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수도원 건립에 기여한 후원국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한 가족 이해하면 이곳이 고향"

지관 스님 행복한이주민센터 방문


지관 스님은 4월 15일 행복한이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주민 이웃들을 격려했다.

"세계는 한 집안이고 공동체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며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한국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15일 경기도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상임대표 정호)를 방문해 '이주민 이웃'들을 격려했다.

1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희망과 나눔의 등' 점등 후 축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도 보살펴 달라"고 말해 이주민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스님의 이번 방문은 조계종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자비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의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정호스님(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행복한이주민센터 상임대표 · 대각사 주지),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이기하 오산시장, 행복한이주민센터 자원봉사자 등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방문 기념사에서 "먼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편하게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라며 "행복한이주민센터가 더욱 발전해 이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센터 내 컴퓨터교실과 놀이방 등 시설 등을 둘러본 뒤 20여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글 특강을 진행했다.

일일교사로 나선 스님은 칠판에 태극기를 그리며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태극무늬의 음양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세계가 한 가족이니, 서로 이해하면서 살길 바란다. 고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 들면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고향이 된다"며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격려했다.

특강 후 스님은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들에게 인형과 요리책 및 유아용 놀이 한글카드를 선물했다. 이때 한 스리랑카 출신 스완나(40)씨가 지관 스님에게 절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된 스완나(40)씨는 "스리랑카는 70~80%가 불교신자다. 나도 불자이기 때문에 스님을 뵌 게 영광이어서 절을 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이와 24개월 된 작은 아이와 매주 센터를 방문하는데 한글도 배우고 아이들도 이곳을 좋아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2003년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해 귀화한 윤해숙(27)씨는 "이주민센터에서 한글교실과 요리교실, 탁아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큰스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니 반갑기만 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출신 삼콤나이(24)씨도 "한국 스님에게서 한글을 배우니 더 새롭다"며 "한국에서도 절에 열심히 다니며 빨리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대각사 행복한이주민센터는 오산시 거주 18개 나라 500명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개관해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2세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외국어교육과 컴퓨터교실 등 교육프로그램과 의료, 탁아방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찰별 다문화 지원센터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거북이마라톤 참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전해두)은 4월 17~18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6회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사단법인 사랑의 손길 '새소망'이 주최한 행사는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재가중증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와 2인 1조가 돼 11팀이 참여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장애인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정서적 지지 및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했다"며 "참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운동능력을 '마라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어느 정도 이루어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043)421-2828 이나은 기자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위해

4월 25일 영주장애인복지관 캠페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제2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해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캠페인 'open your mind'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한마당을 진행한다.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소수서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시각장애축구, 휠체어체험, 구족화그리기 등 체험마당과 전시마당으로 구성됐다.

전시마당은 2008년 베이징장애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영주시장애인구에 대한 안내를 전시해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054)633-6415


가족들과 휠체어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나은 기자

바로잡습니다 727호 '저소득 · 실직가정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 기사에서 주관 단체를 아름다운동행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정정합니다.

달마학교 개관

봉은사(주지 명진)는 뚝섬에 지역아동센터를 개관해 양질의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4월 18일 봉은사 달마학교(센터장 윤성자) 개관식에는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 포교국장 맥산 스님, 이호조 성동구청장, 봉은사 신도회장, 윤성자 센터장, 선우어린이집 원장,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장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달마학교는 성동구 최초의 청소년대상 지역아동센터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학교는 기초학습과 문화활동, 체험학습, 급식 등을 지원한다. 이나은 기자

빙의(귀신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중생...
그 고통을 함께합니다



빙의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 교육비용 : 200만원 ◇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귀신씌인 나무의 실체」 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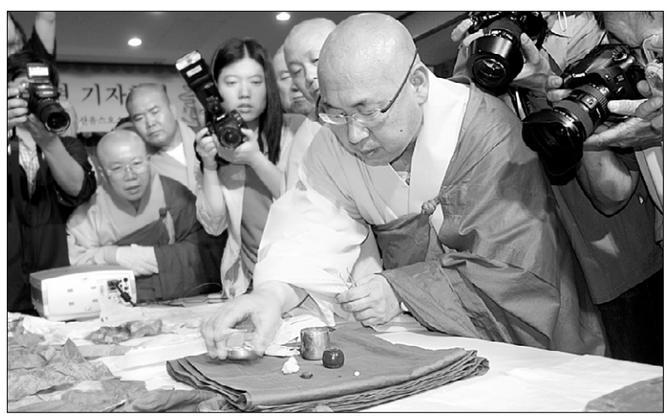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공중사리탑 국가문화재 지정해야"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 포럼서 정영호 관장 주장







4월 10일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장엄을 발표한 정영호 관장(왼쪽 위)과 낙산사 공중사리탑(왼쪽 아래). 오른쪽은 주지 정념 스님이 2006년 4월 사리장엄구를 공개한 모습.

2005년 4월 5일 식목일, 강원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원통보전 등 20여 채의 건물이 전소됐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에서도 낙산사를 지켰던 세조대왕이 조성한 동종(보물 제479호)은 처참히 녹아내렸다.

그로부터 4년, 낙산사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새로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가 심어졌다. 복원 과정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되면서 공중사리탑이 새롭게 조명된 것을 비롯해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됐다. 화마를 이겨낸 천년고찰 낙산사는 김홍도 그림을 근거로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며 새 천년을 바라보고 있다.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낙산사 소장문화재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미술사학계의 원로 정영호 단국대박물관장을 비롯해 김상현 · 김창균 교수(동국대), 박상국 문화재위원, 조효숙 교수(경원대), 윤열수 가회박물관장 등이 발표했다.

정영호 단국대박물관장은 기조강연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장엄'에서 "낙산사 공중사리탑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관장은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일찍이 스승 황수영 박사(동국대)도 1953년 공중사리탑을 찾았을 때, 탑이 쓰러진 모습을 도굴배들의 만행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낙산사 한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공중사리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공교롭게도 산불 때문이었다.

정영호 관장은 "공중사리탑 사리장엄은 화마 때문에 발견됐다"며 산불의 영향으로 각부 석재의 손상을 복원하고 탑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체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200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보수 중이던 공중사리탑 탑신석 상면 중앙의 원형 사리공(직경 23cm, 깊이 17cm)에서 부처님사리로 추정되는 사리장엄이 발견됐다.

사리장엄은 노란색 비단 보자기에 싸인 원형의 청동함 내에 4겹의 노란색, 푸른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싸여 있었다. 그 안에는 연분홍색 비단 3매로 빈틈없이 에워싼 가운데 모셔진 원형 은제함이 놓여 있었다. 은제함 안에는 2겹의 푸르고 누런 색의 길상문과 만(卍)자 등 갖가지 무늬를 장식한 비단에 싸인 금제함을 4꼭지의 다라니가 보호하고 있었다. 금제함 안에는 색동비단 1겹에 싸인 자주색 사리호가 있어,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흰색 명주솜 보료 위에 봉안했다.

공중사리탑에서는 원형 청동합과 은제합, 금제합을 비롯해 각각의 합을 쌓았던 비단 보자기 8점, 다라니 19장과 불탑봉안문 4장 등 20여 점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정 관장은 "공중사리탑의 사리는 신라시대부터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가 진신사리만의 고유한 빛깔을 갖고 있고, 진신사리가 아니라면 둥근 형태의 큰 사리공에 모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다.

진신사리는 1959년 팔공산 송림사5층석탑, 1966년 황룡사 9층목탑과 불국사 석가탑, 1970년대 월정사 8각9층석탑과 무량사5층석탑, 도리사 세존사리탑 등에서 발견됐다.

정영호 관장은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는 이제껏 보아온 진신사리와 같은 빛깔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관장은 "둥근 형태의 큰 사리공은 사리장엄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스님 중에 큰 사리공을 갖춘 것은 양양 진전사의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 부도가 유일하다. 이 또한 네모형태"라고 설명했다.

'공중사리탑'이란 이름은 홍련암 인근 '해수관음공중사리탑명'이라 적힌 2.15m 높이의 탑비에서 유래됐다. 공중사리탑의 청동합에서 봉안문에는 '강희삼십일년용집임신유월초십일'이라며 탑의 조성시기를 숙종18년(1692)으로 기록했다. 탑비의 조성연대는 숙종20년(1694), 사리를 모신 때는 숙종9년(1683) 등 봉안기의 내용과 일치된다.

탑비에는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모실 때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더니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다. 유리처럼 광채를 냈던 구슬을 수습해 탑을 쌓고 봉안했다"고 적었다.

정영호 관장은 "의상대와 망망 동해를 굽어보는 대지에 건립된 사리탑을 '공중사리탑'이라 부른 이유는 석비에 따른다"며 "숙종18년(1692) 조성된 것이 확실한 사리탑은 탑신석이 원구형인 것을 볼 때 신라 이후 고려, 조선초기 등 특수형부도 형태를 갖는다"고 말했다.

선산 도리사 세존사리탑처럼 신라시대의 부처님 사리를 후대에 이르러 다시 사리탑을 건조하고 모시는 예는 있어도, 공중사리탑처럼 온전한 사리장엄을 갖추고 건립의 절대연대까지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정 관장은 "사리탑 건립의 절대연대가 분명하고 탑신 각부의 건조양식과 조각수업이 뛰어나 당시의 석조건축물을 대표할만하다"며 "사리탑과 사리장엄을 비롯해 함께 발견된 보자기, 보료 등 비단 견직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보존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효숙 교수는 주제발표 '낙산사 공중사리탑 복장직물의 조형성 연구'에서 "청동합부터 사리호까지 싼 보자기 일체가 발견된 경우가 드문데 공중사리탑은 사리장엄구를 싼 보자기 8장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며 "특히 사리호를 싼 격자무늬 보자기는 여러 층으로 짠 중조직으로서는 처음 발견돼 직물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직물유물들을 재현, 낙산사의 문화콘텐츠 자료로 활용해 문화상품을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상현 교수는 '낙산사의 문화사적 위치'를, 박상국 문화재위원은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신앙과 봉안문서'를, 김창균 교수는 '낙산사 공중사리탑 내 발견 사리장엄구에 대한 고찰'을, 윤열수 가회박물관장은 '그림속에 나타난 낙산사'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생멸적 사유체계 지닌 기호철학"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불타관 재조명' 세미나

"부처님은 법마저도 환(幻, 허깨비)으로 강조한 최초의 성인이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미산)은 4월 15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불타관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1회 불교학연구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며 신앙의 대상"이라며 "부처님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불타의 참모습을 재조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형효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진)는 기조발제 '붓다론'에서 "부처님은 법과 존재마저도 환(幻)으로 보았으며, 불교는 생멸적 사유 체계를 지닌 기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붓다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인류의 5대 성자로 불린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학문을 통해 인류의 빛을 밝히고자 했고, 예수는 불변한 영원의 진리를 신앙의 길로 제시하고자 했다. 붓다와 노자는 학문과 신앙은 물론, 진리를 터득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김 명예교수는 "학문과 신앙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제한적 방편"이라며 "진리를 강조하는 개념조차 없던 붓다의 사상은 진리에 대한 분별조차 떠난 것"이라 설명했다.



4월 15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김형효 명예교수는 붓다론을 강연했다.

진리와 반진리의 명제에서 진리의 편을 선택하는 자세에 치중했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진리의 빛과 반진리의 어둠의 대립을 낳았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인류의 빛은 특별히 모색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빛이 바로 인류의 빛"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강조했던 여느 성자와 달리 붓다는 이미 짜여진 세상 자체가 완전하다며 중생의 무명(無明)만을 문제 삼았다.

김 명예교수는 "붓다는 절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가치론에 치중했던 다른 성자들과 달리 붓다는 '있는 그대로'를 전한 사실론자"라고 설명했다.

붓다가 설한 사성제, 팔정도 등 모든 교설은 중생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붓다의 사상은 반개념적이고, 반명사론적이고, 반실체론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붓다는 우주의 본모습에 가까워지려면 소유와 자의식을 버리는 '공(空)함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구름이 자연과의 교환작용에서 생겨나듯이 삼라만상이 환(幻)으로 인연연기 화합의 결과일 뿐이다. 자기 의미를 실제로 지닌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가치론적인 서양철학과 달리 붓다는 존재자 중심의 사고를 탈피한 사실론적인 가르침을 설했다"며 "개념철학인 서양철학과 달리 불교는 기호철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덕 스님(중앙승가대)이 '초기불교에서의 불타관'을, 본각 스님(중앙승가대)이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을, 허일범 교수(진각대)가 '밀교에서의 불타관'을, 이주형 교수(서울대)가 '불교미술사에서의 불타관'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고려불교의 위상' 세미나

불교학연구회 5월 9일 개최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5월 9일 10시부터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 101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에서 고려불교의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최병헌 前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김방룡 교수(충남대)가 '지눌 선사상 형성에 미친 중국불교의 영향'을, 이병욱 교수(고려대)가 '담연과 의천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김천학 교수(금강대)가 '균여의 <화엄교분기>의 종성론에 대한 이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평은 최연식 교수(목표대)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김정희 교수(서울대) 최동순 교수(동국대) 조윤호 교수(전남대) 석길암 교수(금강대)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박윤진 교수(고려대)가 참여한다.

본각 스님은 "지눌, 의천 등 고려시대 대표적 사상가를 중국 · 일본의 사상가와 비교해 고려불교의 특징을 구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010) 5501-5589

조동섭 기자

보광사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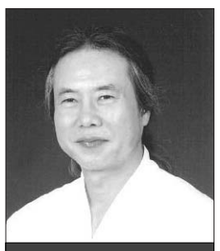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백용성 스님의 수행처였던 보광사와 도솔암의 역사적 의미와 유적지 복원 방향 모색을 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4월 25일 오후 1시, 파주 보광사에서 '백용성 스님과 보광사 도솔암의 사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보광 스님(동국대)이 '백용성 스님의 초기수행과 보광사 도솔암의 인연'을,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보광사 도솔암의 사적과 역할'을,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백용성의 유적지 복원과 도솔암의 미래' 등을 발표한다. (02)581-3137

조동섭 기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박사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송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 (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하였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괘씸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간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제 3의학 아카데미"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昨今의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상 저촉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교육기간 : 5월 4일 ~ 5월 9일 [5박 6일]
전수교육 안내 032)937-7356 / 010) 5721-2266 전국대표 1588-7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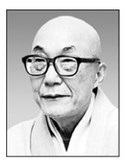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센타설립문의)

•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 ~ 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 ~ 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 **외과적영역** 목,허리디스크,안면마비,두통,현운,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어깨결림,오십견,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중풍후유증.뇌성마비,채머리증,족저통.수전증,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각종수련원, 단식원운영자 각종 의료기홍보관 운영자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나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 환영합니다.

일주문



나무갤러리 오픈 기념 선서화전

인간문화재 석정 스님은 4월 8~21일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 오픈 기념 전시회에서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대전 파라미타 문화축제 개최

대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진철 스님은 4월 25일 서대전광장에서 파라미타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법회

강원불교연합회장 도후 스님은 4월 15일 춘천 정법사(주지 밀본)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자원봉사단 후원금 전달

경주 불국사 자원봉사단장 종상 스님은 4월 8일 동국대병원불교회(지도법사 무구)에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파계사 대구 동구청 쌀에 보시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은 4월 15일 대구동구청을 방문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0포를 기탁했다.



뉴욕불교사원聯 '봉축 선화전'

뉴욕사원협회장 원영 스님은 5월 10~16일 뉴욕 플러싱오픈센터에서 '봉축 선화전'을 열고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세계일화' 등 100여 점을 전시한다.



군포 정각사 봉축문화 나눔 행사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4월 19일 어린이 연극대전을 열고, 26일 지역결식아동에게 급식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열린선원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은 4월 19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박홍 前 서강대 총장 강연회

천태종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은 4월 18일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금강대학생 1000여 명과 함께 박홍 신부(서강대 前 총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제23대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취임

명호근 회장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계종과 분규 해결에 진력할 터"

봉원사 신임 주지 일운 스님



"반드시 임기 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계종과의 사찰분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4월 12일 진산식을 봉행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태고종 서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사진)은 이와 같은 각오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일운 스님은 "사찰분규 문제로 조계종 측과 실무위원 회의를 진행할 때 실무위원으로 3년 이상 참가했었다"며 "회의에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지만 양측에서 보고 과정을 겪으며 거리감이 생기는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또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산재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UCLA대학과 영산재 시연에 대해 논의 중이며, 호주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11월 중 '제7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는 불교의식이기도 하지만 예술적 측면으로는 하나의 문화"라며 "전 세계가 한국불교문화예술의 대표작인 영산재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원사의 사회봉사 및 교화활동 등도 확대된다. 진산식에서 화환대신 받은 성금을 모아 10kg 쌀 100포대를 구매, 4월 14일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에 기부한 것도 이를 위한 한 방편이다. 그동안 매월 진행하던 소년원 및 군부대 위문도 꾸준히 진행하며, 불교계 양로원 한군데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봉원사가 지난 40여 년간 지원했던 서울시립양로원이 가톨릭 위탁체제로 바뀌면서 최근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운 스님은 "조계종과의 분규가 해결되면 봉원사 대중스님은 물론 외국인 · 지방불자들이 유숙하고,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며 "어린이 포교를 위한 유치원 설립, 영산재 상설 공연을 위한 스님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영산재 시연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론과 실천 조화에 노력"

한국불교연구원 한동대 이사장 · 정호영 원장





"창립 35주년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연구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고 연대해 깨우침의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4월 5일 한국불교연구원(이하 연구원) 창립35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동대 교수(부산의대 · 74 · 사진 왼쪽)와 정호영 교수(충북대 · 58 · 사진 오른쪽)가 각각 제3대 이사장과 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한동대 이사장은 1992년부터 10년 간 연구원이사를, 2000년부터 2년 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산구도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호영 신임 원장은 1976년 서강대 영문학과, 1981년과 1992년 각각 동국대 불교학과 석 · 박사 과정을 마치고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1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신임 한동대 이사장과 정호영 원장은 "척박했던 시기 연구원을 창립해 20년 간 헌신한 故 이기영 박사의 혜안과 열정을 되살려 연구원과 구도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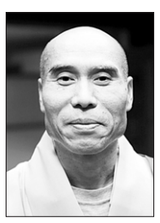
한 이사장은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연구원에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도교수였던 故 이기영 박사의 활동을 되새겨 보면 시대를 앞선 것들이 많았다"며 "그 뜻과 정신을 현대에 맞는 신행과 불교학 연구로 발전시켜 나아갔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공양미 300석 올려요"

대오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6000만원 기탁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 사진)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지정기탁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금은 고양시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2008년 정초부터 흥국사 신도들이 모은 것으로 당초 고양시에 직접 전하려 했으나 자비나눔 사업참여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정기탁됐다.

전달된 기금 6000만원은 공양미 300석(일반사찰 공양미 80kg)의 의미다.

대오 스님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불공이지만,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불공"이라며 "향후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더욱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4월 8일까지 불자들의 성원으로 약정 포함 2억68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광 스님 대구 남구청에 쌀 기탁



대구 앞산 안일사 주지 선광 스님(사진)은 4월 13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20kg 쌀 115포를 대구 남구청에 기탁했다. 선광 스님은 임병헌 남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한파에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조계종 자비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불자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지난 2월 불우이웃돕기와 전통사찰 보존에 앞장선 공로로 대구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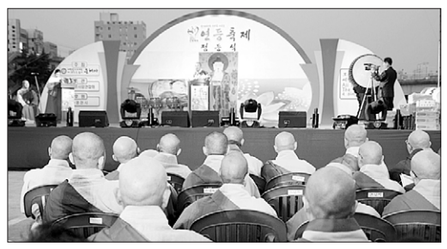
영덕불교사암련 기우법회 봉행



영덕불교사암련(회장 법성)은 4월 15일 영덕읍에서 군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우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법어와 김병목 영덕군수의 기원문 낭독, 통수식 및 기우의식이 이어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은해사 봉축점등식 봉행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4월 10일 영천 금호강 둔치마당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영천사암련 회장 천은 스님,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해 불자 10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백제불교회관 등 대전 봉축점등법회 봉행



백제불교회관(이사장 장곡)과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진옥), 대전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 500여 명은 4월 14일 대전 계룡로 사거리, 20일 대전시청광장에서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법주사 봉축 경로잔치 열어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4월 15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희 국회의원(자유선진당), 한윤옥 여사(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부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지역어르신 4300명을 초청해 봉축맞이 경로잔치를 열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북파라미타 신입회원 입단 선서식 개최



전라북도 파라미타 교사협의회(회장 박상석)는 4월 11일 김제 동국대 부속 금산중학교 법당 '선재원'에서 신입파라미타 회원 입단 선서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150여명은 인격완성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낙태.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재

아가야! 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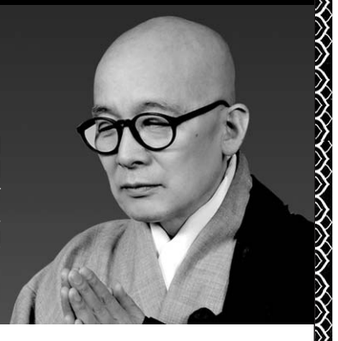
세상몰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회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종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빚을 덜어 드리고저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벽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종교적 위령재 봉행

▶대 상 : 낙태 · 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형 식 : 49재 천도의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건봉사포교원 벽운사 ☎02)979-0108, 02)971-1544 www.bwjisan.com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5월 6일(수요일), 5월 8일(금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꽃길 끝에서 만난 쌍계사

생각은 생각따라 인연은 인연따라...

나무가지엔 파란 잎, 길위에 떨어진 꽃 잎,
도량엔 부처님오신날 기다리는
오색연등...

하얀 벚꽃 길을 떠올리며 찾아간 쌍계사.
아쉽게도 꽃은 지고 없다.
나뭇가지엔 파란 잎이 돋고, 길 위에 떨어진 하얀 꽃잎만 봄바람에 흩날린다.
하얀 꽃 길 끝에 쌍계사가 보인다.
아직은 힘없는 개울물이 겨우겨우 개울을 내려가고,
듬성듬성 흐르는 개울물 속엔 작은 물고기들이 와있다.

봄볕에 나툰 마애불 어깨 위엔 기도하던 동전 한 닢이 간절하게 반짝이고,
도량엔 부처님오신날 기다리는 오색 연등이 가득하다.
부처님 오신 까닭처럼 연등마다 이유가 있고,
눈 감은 석불의 미소 뒤에는 간절한 기도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작은 종소리가 저녁예불을 알린다.
종루에서 사물(四物)을 울린 스님들이 법당으로 오른다.
생각이 생각을 따라 오르고, 인연이 인연을 따라 오른다.
법당에 모인 대중은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할 것을 또 다시 약속하고,
부처님은 그 약속을 또 받는다.

저녁을 기다리는 석등이 저무는 해를 바라본다.
꽃을 보고 싶었던 중생은 꽃이 진 자리가 아쉽고,
불법(佛法)을 만나고 싶은 중생은 지금 이 자리가 아쉽기만 하다.
법당에서 지심귀명례가 또 한 번 들려온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1년(722년) 대비(大悲), 삼법(三法) 두 화상께서 선종(禪宗)의 六祖이신 혜능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귀국, "지리산 설리갈화처(雪裏葛花處 : 눈쌓인 계곡 칡꽃이 피어있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호랑이가 인도한 곳에 절을 지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 그 뒤 문성왕 2년(840년) 혜소 진감(眞鑑)선사께서 퇴락한 삼법 스님의 절터에 옥천사(玉泉寺)라는 대가람을 중창하시어 선의 가르침과 범패(梵唄)를 널리 보급하니 후에 나라에서 "쌍계사"라는 사명을 내렸다. 그간에 벽암, 백암, 법훈, 만허, 용담, 고산스님의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 · 고혈압 · 혈액순환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 브랜드 수상

본 산상차(山桑茶)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잠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맞은 뽕잎을 체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증구포의 전통제다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제로 쓰이는 실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맞은 뽕잎은 신선엽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맞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뽕잎차 만드는 과정


금강선원 뽕잎 뽕잎 채취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고혈압에 도움 2.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 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 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가 최고! – 부산 중구 안미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대구 북구 석현도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시게 할 정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경북 안동 김정일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경기도 용인 박영철

제품 설명

· 초심(初心)은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은 첫서리를 맞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더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초우스님의 뽕잎차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

초심(구증구포뽕잎차) ~~50,000원~~ → 35,000원
발심(첫서리맞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2통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검색 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강선원 경남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950-3
TEL 055)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

부산파라미타 출범



부산파라미타가 4월 12일 본격 출범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여)는 4월 12일 오전 10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 및 신입생환영회를 갖고, 중 · 고등학생 약 60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2008년 활동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신규파라미타지도자 위촉장 수여, 백명숙 협회장 인사말, 총재 정여스님 인사말,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설명회, 화합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기에 부처님을 믿는 우리 파라미타 학생들이 마음을 내어 돕는다면, 온 세상이 맑고 청정해질 것"이라고 설법했다. 박지원 기자

부처님오신 부산·울산 축제 한마당

부산 5월 1일 전야제 · 울산 2일 법요식에 이어 순례여행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부산, 울산 각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과 다채로운 축제로 부처님의 법음을 온 누리에 전하려는 준비가 한창이다.

범어사(주지 정여)는 5월 1일 오후 6시 부처님오신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2일 오후 2시 법요식, 오후 4시부터 문화한마당, 이어 오후 6시 점등식을 갖는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4월 25일부터 경내 곳곳에서 장엄등경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부처님오신날까지 7일 정진기도에 들어간다. 하루 전인 5월 1일에는 신평마을 일대에서 제등행렬을 펼치고, 등불을 밝힌 야간 보행로를 개방한다. 5월 2일 오전 10시 보궁헌다례 및 법요식을 봉행한다.

삼광사(주지 화산)는 4월 24일 오후 6시 30분 봉축 점등대법회를 시작으로, 26일 오전 10시 삼광 학생 예능대회, 5월 1일 오후 6시 30분 봉축 전야대법회, 부처님오신날인 5월 2일 오전 11시 봉축 기념법요식을 봉행한다.



불교 최고의 축제 부처님오신날 준비에 모든 사찰이 분주하다. 사진은 지난해 삼광사 모습.

공덕원(주지 효선)은 4월 25일 헌등공양 축원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5월 2일 오전 11시 봉축대법회와 봉축법어, 관욕의식 등을 봉행한다.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4월 27일 오후 6시부터 용호동, 용당동, 대연동 일원에서 지역포교의 일환으로 연꽃등 나눠주기 행사를 펼친다. 이어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점등식 및 신도가족 어울림한마당,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점심 뷔페를 마련한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5월 2일 오전 10시 봉축법요식을 갖는다.

영주암(회주 정관)은 4월 25일 오후 7시 점등식, 5월 2일 오전 11시 법요식을 봉행하고, 오후 7~9시 제등행렬을 진행한다. 영주암을 출발해 망미동 부산은행, 병무청을 경유해 다시 영주암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는 5월 2일 오전 10시 초파일 법요식을 봉행하고 이어 오후 2시부터 초파일 공양제, 점등식, 통도사로 떠나는 마음여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홍법사(주지 심산)은 4월 25일 오후 7시 주지 심산 스님의 마음상좌 수계식, 5월 2일 오전 11시부터 법요식, 관욕, 성년의식 등이 봉행된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대웅보전에서 축제한마당이 벌어진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해운대 정해학당

"문답으로 불교 깊은 뜻 이해해요"

오늘은 정해학당의 <원각경> 첫 강의가 있는 날. 수업 5분 전, 범상치 않은 외모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어느 한 사람 자세에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정돈하고 있다. 드디어 앞으로 3개월간 <원각경>의 길로 이끌어줄 오경 스님(사진)이 단상에 올랐다.



오경 스님은 "공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재미를 붙이기까지가 힘들뿐 공부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말씀"이라며 "처음엔 생소한 단어들 탓에 어렵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곧 이해할 수 있으니 끈기와 인내를 갖고 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각경>은 제목만 들어서는 쉬운지 어려운지 좀처럼 감이 오지 않는 생소한 주제다. '참선'은 이미 대중화돼 많은 불자들이 쉽게 따라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바탕에도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해 자성불을 찾길 원한다면 반드시 경전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렇듯 수준 높고 어려운 불교 경전을 바른길로 정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대중강의나 설법이 아닌 지도법사와의 문답과 대화를 통해 강의해 보다 깊이 있고 바른 길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알듯 모를 듯 넘어가던 개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현대적인 언어로 난장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타종교, 인문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매주 토요일 함께 차를 마시며 교류를 하는 장도 마련된다. 정해학당은 단순한 강의실도 사찰도 아닌, 종교와 인문, 사회 담론이 살아있는 공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전공부는 기본, 참선수행, 다회를 선택해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당초 10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0여 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직업군도 주부부터 회사원, 교수, 기업CEO, 한의사 등 다양하다.

현재 대학원 교수로 일하는 제미경(50)씨는 "불교공부를 할 곳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됐는데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또 부산의 한 중학교 교장 김종숙(53)씨는 "초등학교 한문만 알면 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수강하게 됐다"며 "<화엄경><금강경> 등 경전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몰라 답답했는데, 기초 틀을 닦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수강하는 정현구 · 김정숙 부부는 "절이 아니라서 공부하는데 더 부담이 없다"며 "그간 혼자서만 하던 경전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정해학당에서 공부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30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불교관련 서적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오경 스님이 그간 모아온 책들을 3칸의 서재에 비치해두고 개방했다. 운이 좋다면 스님이 느낀 점들을 꼼꼼히 메모해 놓은 오래된 기록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정해학당의 정해는 정혜(定慧)가 아닌 정해(正海). 경전 공부로 지혜의 바다를 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예불이나 기도보다는 경전에 충실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해학당이다. (051)744-5322 박지원 기자

"행복하고 싶다면 불교 공부하세요"

목종 스님 해운대에 대광명사 개원… 각종 강의 운영



"불법은 자기 공부에만 그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신행과 교육, 봉사와 복지,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스템을 갖춘 도량이 돼야 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반야원의 주지 목종 스님이 해운대 중동 로데오아울렛 3층에 대광명사라는 새 이름으로 도량을 개원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목종 스님(사진)은 "봄이 온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이 오듯,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매순간 고마운 인연을 만났기에 개원할 수 있었다"며 "모든 신도님들과 대광명사라는 새로운 도량을 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약 4년 전 대광명사의 전신인 반야원의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 부처님도 안 계신 법당을 찾는 신도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신도만 2000여 명. 괄목할 만한 성장을 뒷받침한 포교의 방편은 불교대학과 회보, 봉사활동 등에 있다. 이에 더욱 넓어진 새 도량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효율성은 물론 신도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주 법당으로 수행과 기도를 하는 대광명전, 강의와 법회를 열 수 있는 교육관인 극락보전, 참선수행을 위한 참선방,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도실 등을 마련했다. 또 일요가족법회를 신설하고, 한층 새로워진 신행활동에 들어갔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달맞이언덕 가족걷기명상법회, 넷째 주 일요일은 동백섬을 일주하는 3보1배 법회가 열린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주생명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바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거든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불교를 공부하러 오셔야죠." (051)742-7610 박지원 기자

미륵사 미륵대불 이전 점안

제2회 산사음악회도 열려

영도 미륵사(주지 혜정)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미륵광장에서 미륵대불 이전점안법회 및 제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미륵사는 봉래산 중턱에 있던 미륵대불을 절마당으로 이전점안하면서, 사찰명을 미륵암에서 미륵사로 개칭했다.

이번 법회는 미륵대불이전 기념 및 신도회장 취임법회로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공로패 전달 및 임명장 수여,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불자가수 장진 사회로 제2회 산사음악회로 축제 한마당을 벌였다.

박지원 기자



4월 10일 남해서 열린 경로잔치.

삼미철강 김일윤 대표 남해서 경로잔치

효 사상을 기리는 울산시 울주군 청량리 (주)삼미철강 김일윤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인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서 4월 10일 경로잔치를 열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지장보살본원경>을 읽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김 대표는 작고한 부모님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 잔치를 마련했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가 다 내 부모님이라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잔치다. 또한 남해 미륵암 청운 스님의 법문에 따라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천년고찰 도갑사 대웅보전 중창 낙성

4월 11일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도 열려

신라시대 도선 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월출산 도갑사 대웅보전이 4년여 불사 끝에 장엄한 위용을 드러냈다.

월출산 도갑사(주지 월우)는 4월 11일 경내에서 '도갑사 대웅보전 중창낙성 및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에 이어 스님의 특별법문,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및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외빈의 기념식수, 대웅보전 현판제막식, 기념법요식 순으로 거행됐다.

종범 스님은 법문에서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고불(古佛, 법신불)인 다보여래와 현불(現佛, 보신불)인 석가모니불이 함께했던 것처럼, 도갑사도 신라시대 대웅보전을 복원해 고불도량이 현재 신축도량으로 나툰 것"이라 말했다.

육법공양 후 봉행된 기념법요식에서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도청과 영암군의 지원으로 대웅보전 불사를 진행했다. 도갑사는 전남도민과 영암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기도정진 하는 천년도량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도갑사 대웅보전 낙성식은 주지 월우 스님이 때로는 성인, 때로는 속인이 돼 불사에 매진한지 6년 여 만에 이룬 것"이라며 "도갑사가 중생의 시대에 항상 부처님이 머무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前 종회의장 자승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 월정사·관음사·금산사·선운사·대흥사·화엄사 등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일태 영암군수, 이석형 함평군수, 김충식 해남군수,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김남수 대목수와 정규복 불모가 참여해 복원한 대웅보전은 와부 중층 내부 통층, 온칸몰림 방식의 244.2㎡(74평) 규모로 조선초기 다포식 팔짝지붕에 막새기와를 얹어 현대와 조화를 이룬 전통양식이다.


1977년 화마로 소실됐던 도갑사 대웅보전이 550여 년 전인 1456년 중층구조 그대로 복원됐다.

대웅보전에 모셔진 삼존불은 10m 규모, 홍송(紅松)으로 조성된 후불탱화는 높이가 6m에 달한다.

조동섭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활절이라 불단 훼손?

여수 향일암 개신교인 난입 '훼불'

부활절을 맞아 개신교인이 사찰 성보를 훼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4대 기도성지 중 하나인 여수 향일암(주지 원문)에 훼불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10일 오후 4시 경. 개신교 신자인 정씨는 향일암 대웅전에서 몰래 갖고 들어간 알루미늄 파이프로 인등 부처님과 인등 유리문, 삼존불 좌대 장식, 황금단청, 불전함 유리, 불단 유리 등을 파손했다.


정씨의 신앙심 증명에 깨져 나뒹구는 향일암 불단.

정씨는 범행 현장에서 향일암 종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여수경찰서 돌산파출소에 인계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계시를 받들어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자 벌였다"고 진술했다.

향일암 측은 "6일과 8일에도 향일암 경내에서 징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전과가 있다. 인등관련시설 복구에 4000만원, 황금단청 및 부처님 좌대 장식 1000만원 등 피해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향일암 본사인 화엄사(주지 종삼)는 13일 "이번 훼불행위는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관용과 인내의 한계조차 넘어섰다"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여수경찰서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종교평화와 사회안녕을 위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국의 적극적 대처와 예방책을 촉구했다.

한편, 향일암은 659년 원효 대사가 창건한 절로 연간 60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찾는 한국불교 4대 관음기도도량 중 하나다.

노덕현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래의 예인 동백연서 재능 활짝

선운사서 예술경연

동백꽃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의 선운사에서 4월 17일 제33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동백제례를 비롯해 유치부, 초·중·고 학생들이 문화예술의 장 등을 펼쳤다.

법만 스님은 환영사에서 "예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선운사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땅이다"며 "미당 서정주 시인을 비롯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탄생한 선운사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연은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무용 등 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등 민속부문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또한 체험프로그램부문에서는 향토문화알기, 도예, 전통매듭, 호패, 가훈쓰기 등 다채로운 경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올해 제33회를 맞은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진대회는 선운사 동백꽃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1977년에 고창지역향토문화인들이 모여 예비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장대사 만발공양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4월 12일 부처님전에 만발공양을 올리는 '지장대불 100가지 음식공양 대법회'와 무상 조상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정현 스님은 법문에서 "한량없는 정성을 모아 불보살님께 음식을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며 "100가지 공양물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장대사는 2004년부터 매년 2회(음력 3월 18일과 9월 24일)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을 공양 올리고, 유주무주 고혼영가와 선망부모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가 천도기도를 봉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봉축위 봉축법회

임실 호국장영사서


호국장영사에 모인 전북군민·장병들이 점등장엄을 발원하고 있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5월 15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270여 불자장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장병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신심을 다지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부대내 불교활성화에 공로가 큰 김상근 준위와 김영호 중사에게 부대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방향석 창장은 주정기, 강석춘 포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심원

'자비희사' 원훈… 불법서 안정 찾아

완주 송광사 종남산 벚꽃이 뿌려대는 꽃비에 눈이 멀 것 같은 봄날 오후 송광정심원(원장 우용호)을 찾았다.

정심원은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송광사 주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요양시설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좌로부터 이경주 사무국장, 정병호 상임이사, 우용호 원장.

정심원은 예전 송광녹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신교 장로 등 타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곳이다. 하지만 시설수용자들에 대해 노동력 착취, 구타 등 인권문제, 후원금 횡령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자 2005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송광이 인수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그간의 불신을 모두 씻고 모범적인 복지시설로 거듭났다.

1만5283㎡의 대지위에 건평 3893㎡로 구성된 정심원은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 자연친화적인 복지시설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복지의 손길을 전하는 정심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원훈으로 삼고 있다.

현재 230명이 수용돼 있는 정심원은 이사장인 도영 스님, 우용호 원장, 정병호 상임이사, 이경주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진이 직원들의 정기교육 외에 주기적인 친절교육과 타시설 파견교류 등 의식개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왔다. 정상적인 치료방법 외에 매주 법회를 통해 '마음 다스리는 글'을 읽고 한글·노래교실과 송광사에서 명상과 산책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송광사 신도회, 청년회와 위봉사 신도회, 현대자동차 불자회 등 후원자와 봉사자들도 정심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 유일의 불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

정심원의 가장 큰 목표는 수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진출해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하는 것.

실제 20여 명이 인근 기업체에 취업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우용호 원장은 "앞으로 정심원내에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과 자립생활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의 노령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센터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강요와 요구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살피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심원은 부처님 품안의 편안한 안식처가 아닐수 없다. (063)243-1212 인터넷 카페 송광정심원(cafe.naver.com/skjsw1212)

조동제 전북지사장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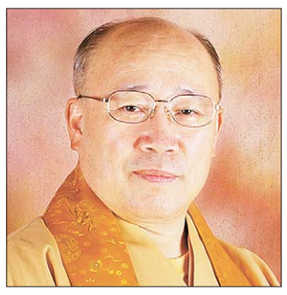
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 선출

진각종 4월 16일 정기종의회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무진행"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에 혜정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는 4월 16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재적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62회 정기종의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종의회에서는 통리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돼 1차 투표에서 21표를 얻은 혜정 정사가 신임 통리원장에 선출됐다. 선출 전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前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16표를 득표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 내에서 "종도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하며, 수행자로서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아 왔다.

종의회 후 혜정 정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통리원장 소임을 수행하겠다"며 "진각종은 참회로부터 시작된 종단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무행정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사는


혜정 정사.

또 "진각성존 당시 교법과 수행상, 교화를 따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 입문 후 유가 · 탑주 · 밀각심인당 등에서 교화했으며 제6 · 7대 종의회 의원 및 총인 사서실장,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주임정교, 진각대학장, (재)진각종유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화홍어린이 도서관장, 세계불교도우의회 진각본부 회장 겸 오계파지(buddhist pancasila samadana)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통리원장 선출 어떻게 하나

진각종 통리원장 소임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행계(行階) 4급 이상의 스승 모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종의회는 전임 통리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후보자격을 갖춘 모든 스승을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하며, 과반수(19표) 이상 득표자가 통리원장에 선출된다.

이는 교황 사망 후 전세계 추기경들의 도착을 기다린 후 교황 선거를 시작하는 바티칸 비밀회의와 흡사하다. 교황 역시 투표 참석 추기경(최대 120명)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방식에서 발생 가능한 '금권선거' 등의 폐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선거운동이 이뤄질 폐단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눔 희망 자비 상생" 한 목소리

각 종단 봉축법어 "부처님 말씀 따라 위기 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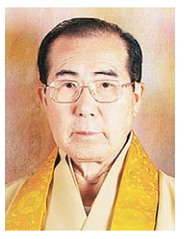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5월 2일)을 맞아 각 종단 종정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봉축법어 및 봉축사를 발표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4월 13일 봉축법어를 통해 "한량없는 자비의 대광명이 충만한 부처님 오신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불자들은 스스로를 청정케 하고 연등을 밝혀 고통받는 중생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일깨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4월 14일 봉축법어를 통해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존엄한 것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자각하고, 본래 빛나는 무량광 · 무량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어떠한 차별과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 살펴볼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남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마땅히 평안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는 4월 13일 봉축법어에서 "모든 불자들이 '나누는 기쁨과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자비행 실천과 희사의 참 정신을 전하는 초발심을 내고, 상생과 화합으로 상호공양(相互供養)하는 인류 공존과 공영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자신의 검소함으로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계행(戒行)과 정진으로 인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총지종(통리원장 원송) 등의 각 종단 지도자들도 봉축법어를 발표해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다문화가족 위한 사찰로 변신

무원 스님 '명락사 5대 비전' 발표

천태종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 천태종 총무부장 · 사진)가 다문화 사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4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문화 중심 사찰로의 도약'을 포함한 '명락사 5대 비전'을 발표했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사찰 추진을 위해 매월 25일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5월 25일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명락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도 '다문화가족 초청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월 1일 오후 4시~6시 30분에는 명락사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설운도, 나미애, 북한예술단, 바라회 등이 출연하는 '명락사 4.8 예술제'가 개최된다. 2일에는 다문화가정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대법회(소원풍선띄우기) △바라회 공연 △꽃꽂이 전시회 △가족사랑 흙 · 도예체험 △부처님오신날 그림그리기 대회 △부모님과 함께 염주 · 컵등 만들기를 진행한다. 명락사 경내 · 외에서 '개성 영통사 복원과정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명락사는 현재 주변 대지 700여 평을 확보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락사 5대비전은 △최고 다문화 사찰 △삼업과 삼독 쉬고 삼보 아래 화합하는 사찰 △고통을 덜어주는 사찰 △남녀노소 ·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5분향 게송을 통해 이루는 사찰 △6바라밀의 덕목을 깨닫게 하는 사찰 등이다. 김진성 기자

대상에 덴마크 이미림씨

천태종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열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4월 11일 구인사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제2회 천태종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가운데 오른쪽)과 수상자 가족들이 밝게 웃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박효리씨 가족 등 신행수기 수상자와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행수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부처님께 의지해 행복과 희망을 찾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경험은 부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무부장 유정 스님은 심사평에서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때 보다 문장력이나 주제선정 등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사실적 수기를 높게 평가했지만, 이후에는 신앙적 체험 부분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상을 수상한 박효리(서귀포)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부처님 품속에서 더욱 기도정진해 천태종풍 포교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대상-이미림(덴마크) △금상-김용건(부산) △은상-박효리(서귀포) △동상-안병도(진해) △장려상-손견식(시흥) 이해인(부산) 정수미(통영) 이수윤(부산) 권숙자(안산) 불자. 김진성 기자

한·일 불교문화교류 기념비 세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5월 12~14일

한 · 일 불교문화교류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진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는 5월 12~14일 조계종 여주 신륵사와 미란다호텔에서 '인류화합의 실성(實性)을 지향하다'를 주제로 제3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이하 교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양국의 문화교류 30주년을 맞이해 5월 13일 신륵사에 '30주년 기념비'를 제막한다. 기념비 전면에는 '인류화합공생기원비'가 각인되며 후면에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의 참회문이 삽입될 예정이다. 교류대회는 한 · 일 양국의 불교문화교류와 사회복지사업,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한국에서 시작돼 양국에서 번갈아 진행됐다.

5월 12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류대회에는 한국 대표 180여 명과 일본 대표 120여 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13일 △세계평화기원법요식 △30주년기념비 제막식(이상 신륵사) △학술세미나 △공동선언문 발표(이상 미란다호텔) 14일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여주 세종대왕릉 및 명성황후 기념관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대웅보전 낙성

조동정종 영평사서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총무원장 정림, 이하 조동정종)은 4월 12일 총본산 안성 영평사에서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소속 스님들과 조계종 前 교육원장 암도 스님,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장 송산 스님, 이동희 안성시장, 김학문 안성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가산 스님을 증명법주로 삼존불 점안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前 교육원장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대웅보전 낙성법회로 영평사는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대가람을 이루게 됐다"며 "서로 베풀며 마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따뜻한 도량,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육바라밀을 행하자"고 말했다.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도 "오늘의 회향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영평사가 부처님 정법도량 · 교육중심 종찰 도량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 건강까지...
현대 과학이 창조한 신비의 연금술

알키미온(Alchemion)이란?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선인들의 지혜와 첨단 소재를 개발해 온 현대과학이 조화를 이루어 창조해 낸 새로운 차원의 신물질입니다. 뛰어난 영능력자에 의해 여러 광물질을 수 년간의 숙성과 특수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천기와 지기를 연결시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여 주도록 제조된 영적인 물질입니다.


알키미온 거북이
거북이는 예로부터 건강, 장수, 행운을 가져오는 영물로 여겼는데, 하늘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가정과 사업체에 영적건강과 행운을 가져옵니다.

알키미온이 필요하신 분
• 정서 불안으로 안정이 필요하신 분
• 손발이 차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정력강화와 자신감을 원하시는 분
• 각종 질환 예방과 자연치유력을 원하시는 분
•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원하시는 분
• 직장과 사업체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


알키미온 파워카드
각종 질병으로 인해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 주는 등 자동 조절효과가 나타납니다.


알키미온 여의주
여의주란 예로부터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뜻하며, 심신의 완전한 건강 뿐만아니라 가정과 사업을 만사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주)무단 참다운 건강을 전하는 기업 단체 상담 환영합니다. 상담전화 02)924-3500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2009(2553)년 부처님 오신날 극락사 법요식 및 경로잔치
일시 : 5월 2일(음,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2

크신 가르침 앞 외도는 가라

[원문]
사자굴중무이수(獅子窟中無異獸)
상왕거처절호종(象王去處絶狐種)
수지왕사일륜월(誰知王舍一輪月)
만고광명장불멸(萬古光明長不滅)
–석남사 침계루

[번역]
사자가 사는 굴에 다른 짐승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사라짐이며
누가 알리 왕사성에 뜬 한 둥근달
만고에 그 빛 밝아 길이 멸하지 않으리.

[선해(禪解)]
오늘 주련 여행은 가지산 석남사다. 신라 헌덕왕 16년(824)에 도의국사가 창건한 절로서 조선 현종 15년(1674) 탁령, 선철선사, 순조3년(1803) 침허가 각각 중수하였고 1957년 당시 주지인 이인홍 스님이 재 중수한 곳이다. 경내에는 창건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369호 석조부도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호인 삼층석탑이 있다.

석조부도는 헌덕왕 때 건립한 도의국사 부도로서 높이 3.53m 팔각원당형인데 주위에 사자의 구름무늬가 조각되어 있으며 간석에는 안상 속에 화문대를 돌렸고 팔판 연화대위에 놓인 탑신석 앞, 뒤에는 명문이 모각되어 있다. 침계루란 계곡에 걸친 누각이라는 뜻인데 그 속에 담긴 주련의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사자굴중무이수 상왕거처절호종: 사자가 사는 굴에 다른 짐승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사라짐이다.'

인간 아닌 짐승의 세계에서는 사자와 코끼리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그것은 곧 정의이며 진리이다. 고로 이 앞에서는 교활한 여우는 얼씬 조차 하지 못한다. 이처럼 부처님 같이 절대적인 위신력을 가진 분은 그 자체가 힘이다.

'수지왕사일륜월 만고광명장불멸: 누가 알리 왕사성에 뜬 둥근달, 만고에 그 빛 밝아 길이 멸하지 않으리.'

왕사성은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설법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설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구(警句)이다. 즉 부처님의 법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도(外道)들도 감히 얼씬 거리지 못하며, 그 만고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둥근 달처럼 하늘에서 빛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요즘,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이 사건에 연류 되어 있는 정치인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금품수수 이야기는 게이트 사건의 압권이다. 참으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써 격세지감을 느낀다.

주련을 이야기하는 지면에서 갑자기 웬 박연차 게이트인가 하겠지만 나에게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경,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 하림각에서 나라를 위한 불교 기도법회에 참석하고 간단한 모임을 가졌다. 그날 그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 내외와 불교계 원로 몇 분이 계셨는데 그날 산승(山僧)은 노 대통령 부부에게 주책없이 몇 마디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탄생시킨 세 번째 대통령이다. 그러나 앞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가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家和萬事成 治國平天下)'라고 하듯 대통령께서는 결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이날 노 대통령은 "저는 도덕성 하나 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아들과 친인척을 잘 다스려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을 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후,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이란 이 나라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그토록 도덕성을 자처하며,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의 장담은 한갓 휴지가 되고 만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 13위의 우리나라에서 정권마다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비리에 얽혀 검찰조사를 받더니 이젠 대통령 부인과 아들이 사법처리대상에 오르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침계루의 주련내용 같이 사자와 코끼리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 같이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결코 박연차 게이트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더 불리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일곱 발짝을 걸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게(偈)를 외쳤다. 즉 이 우주만물 중에서는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석가의 탄생이 속세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의 초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은 지금에 와서는 "천하에 자기만큼 잘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거나 또는 그런 아집(我執)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아집에 갇혀 결국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물질과 명예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 같은 수행자는 이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한 달 후면 '부처님오신날'을 우리는 맞는다. 그래서 사찰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마다 연등축제 준비를 위해 분주하다. 서울시 역시 이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다. 어서, 한 나라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내고 부처님을 맞이해야 한다. 또한 우리수행자와 불자들은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밝혀야 하는 내면의 반조를 역설적으로 표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힌다. 이 속에는 희생과 봉사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곧 어둠을 밝게 바뀌어 주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물며, 등불은 고사하고 물질에 얽매여 있다면 장차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모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계종 원로의원

진리 사라지지 않고 만고에 밝은 보름달에 비유
부처님 가르침 바로 받들면 탐욕에 물들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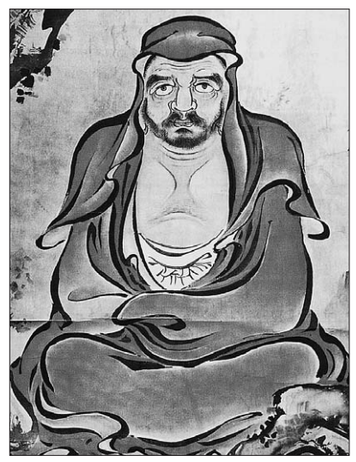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2

생사의 대사를 해결하라

[원문]
若不見性 終日茫茫 向外馳求 覓佛元來不得 雖無一物可得 若未會亦須參善知識 切須苦求 令心會解 生死事大 不得空過.

자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밖으로 구하며 부처를 찾아도 원래 찾을 수 없는 것이니라.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생사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상광사(常光寺)소장 달마도.

[해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알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실상자리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든 경계가 끊어진 자리에 생각을 두고 있으니 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밖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주의 실상자리인 진여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진 겁니다. 업이 다 소멸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벽도 투시(透視)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지까지 들어가면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통(六神通)을 갖춘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먼 것이 아니예요. 견성을 해서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면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란 자유자재한 사람이며, 본래 갖추고 있는지라 쓸데없이 밖으로 구하려하지 않는 사람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주의 실상자리와 하나가 되어 무념무상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밖으로 구하며 부처를 찾아도 원래 찾을 수 없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쁘게 밖으로 구하며 부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처의 실상자리는 지금 체(體)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로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성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비와 우주가 하나란 것을 아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바로 자성을 본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념으로 염원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찾는다면 외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는다면 영원히 성품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성 가운데 부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밖에 있다는 생각으로 찾았던 분들입니다. 이런 수행을 하는 분들은 성품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用)에서 보면 '관세음' 하는 그 놈이 우주와 하나고, '지장보살'을 염하면 그놈도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성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님이 따로 있어서 그분을 보려고 하거나 그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외도이며, 영원히 부처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구하여 마음을 알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실상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 즉,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얻을 것도 없다고 하지만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가르침을 받아서 성품자리를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지식(善知識)'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대부분 '착할 선(善)'자를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면 안됩니다. 우주의 실상자리를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또는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이 곧 부처님 마음이고 마음이 곧 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로 보고 법을 설하는 분을 우리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이라는 말을 했을 때 선(禪)은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미 문자언어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을 가지고 지식의 논리를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을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정확히 알아야지 바른 공부를 할 수 있기에, 달마 대사는 '나고 죽으며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매우 큰일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겁(劫)을 통해서 보면 한 생이 참 짧은 생입니다. 한 생을 마감할 때 되돌아 생을 생각해 보면 꿈에서 깬 것과 똑같은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들 진짜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거든요. 우리의 본래마음은 생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그 자리인 것입니다. 육신은 껍데기이고 진짜 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90세를 살았어도 되돌아보면 꿈속에서 깬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생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국통정사
● 법 명 : 혜공 (유영진)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옥천리 541-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한방(韓方)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125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4월 25일(토) 저녁 9시
2009년 4월 26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손목,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번지, 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지 : 운산 (이길락)
● 주소 : 울산시 남구 두루왕 648-5
● 사찰명 : 우리불원 ● 주지 : 성현 (유창식)
● 주소 :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6-6
● 사찰명 : 혜오정사 ● 주지 : 혜오 (김봉규)
● 주소 :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18-22
● 사찰명 : 자성사 ● 주지 : 연화심 (안병옥)
●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 1동 183-13
● 사찰명 : 만해사 ● 주지 : 해명심 (이성희)
● 주소 :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1129-4 대동다숫아파트 102동 302호
● 사찰명 : 천지암
● 주지 : 연화심 (윤혜명) / 해공법사 (최용대)
● 주소 : 부산 남구 우암 1동 121-2
상기 사찰과 상기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4월 22일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법하

수행법이란... 마음을 비우는 법

선지식을 찾아서 무여



무여 스님은 1940년 김천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조계사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듣고 발심, 26세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이후부터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관음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20여 년 동안 정진했으며, 칠불사 망월사에서 선원장을 지냈다. 1988년부터 문수산 축서사에 주석하며 중창불사에 매진해 참선전문 교육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운영위원으로서 후학 양성과 선의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번뇌 · 망상 피우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서

'어째서 무라 했을꼬?' '마삼근이라 했을꼬?'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공부 저절로 돼

해발 1206m의 문수산 정상 바로 아래 언덕을 연화대로 삼아 웅장하게 자리 잡은 축서사. 중앙고속도로에서 풍기IC로 나와서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골길로 다시 8km를 더 들어간 오지에 위치해 있다. 가파르진 않지만, 꼬불꼬불한 산길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 급기야 10년 넘은 승용차 본네트에서 연기가 난다. 다행이 절에 막 도착해서 차량을 점검하니, 엔진오일이 새어나와 가열된 배기통에 떨어져서 연기가 난 것이었다. 불타는 세간에서 허겁지겁 살다가 청정도량에 준비 없이 들어 온 티를 내고 말았다.

2년만에 다시 방문한 축서사는 이제 도량정비 불사가 마무리 되어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매달 셋째 주말엔 재가 선객 200여 명이 철야참선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이젠 전국에서도 이름난 참선전문도량이 되었다. 축서사가 이처럼 재가 선객의 총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원장 무여 스님의 10여 년 간의 중창불사가 오로지 출 · 재가를 위한 수행 및 교육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틈틈이 진행한 재가자 참선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수행자를 모이게 한 원인이 됐다. 선지식의 선법문과 실참, 문답 및 지도점검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보기 드문 참선도량이란 인식이 소리 소문 없이 자리 잡은 결과다.

오물 하나 없이 말끔하게 비질이 된 도량은 그야말로 무여 스님의 맑고 고요한 성품을 드러낸다. 훌륭한 선지식과 편안하고 청정한 도량, 좋은 도반이 있는 이런 수행처라면 구도자들은 타는 목마름를 적시기 위해 수 백, 수 천리 길을 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축서사를 내려다 보는 곳, 작지만 맵시 있는 소나무가 반기는 뜰을 지나 선원장실에서 스님을 뵈었다.

–스님, 도량 정비가 마무리되어 더 많은 수행자들이 방문해 편안히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원채 한 동을 빼곤 완성된 셈이지요."

–매달 축서사 참선법회에 수행자들이 많이 오는 걸 보면 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2000년도부터 조계종에서 간화선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재가자들의 관심과 요구도 높아진 듯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웰빙 바람이 분 것도 한 요인인데, 웰빙이 되려면 결국 선(禪)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재가자들이 참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반대로,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선(禪)에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선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담담하게 해서 번뇌망상을 피우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서 '어째서 무(無)라 했을꼬?' '어째서 마삼근(麻三斤)이라 했을꼬?' 하면 의심이 납니다. 비록 강하고 진정한 의심은 아니지만 계속 의심을 꾸준히 지어가다 보면 참다운 의정이 생겨 화두 드는 재미가 쏙쏙 나게 됩니다. 그것이 간절하게 한결 같이 익어지면 좌선을 안 해도, 일부러 화두를 안 챙겨도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늘 화두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됩니다. 화두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고 설레이듯이 기분 좋게, 이것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 의외로 쉬운 것이 화두공부입니다."

–화두선은 특히 스승과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정도에 따라 공부 정도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중요하지요. 스승으로 인해 눈을 뜨고 화두도 들게 되고 진정한 공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은사 (희섭) 스님은 말씀이 없는 분이라 행동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셨어요. '잘 살아야 된다. 진정한 출가인이 되어 불법의 핵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고 수시로 간곡히 당부하셨지요."

–할아버지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보문 스님은 늦게 출가하셨지만 선승으로 유명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스님과 결사에 동참하셨고 제방선원에서 정진을 잘 하셔서 숨은 도인이란 칭송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행자 때부터 곧바로 참선정진을 시작하셨는데,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큰스님이나 가르침이 계시다면.

"향곡 스님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선방에 들어간 지 5년만에 원래 관음사(현재 묘관음사) 조실 향곡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어요. 몇 철을 나고 해제 철에 다른 분들은 만행 떠나고 혼자 큰방에 남아 정진했는데, 큰스님께서 수시로 들어와 함께 좌선하곤 했어요. 때로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졸면 야단을 치곤 하셨지요. 어느 땐 당신 방에 오라 하셔서 여러 큰스님들의 일화와 공부담을 들려주셨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요샌 어록도 많고 법문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엔 〈선관책진〉이 유일하게 번역된 선어록일 정도였으니까요. 조사스님들이나 노장님들의 수행담을 들을 때면 신심이 났는데,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곤 해요."

–다른 큰스님들과의 인연담을 들려주신다면.

"성철, 경봉, 춘성, 구산, 서암, 서옹, 탄허, 석주 큰스님을 곁에서 모시고 살아봤습니다. 해제철만 되면 유명한 선지식들을 찾아가 가까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극도 받고 경책도 받으러 애를 썼어요. 해제 때는 의례히 경책 받으러 다닐 작정을 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큰스님은 어떤 분 이셨나요?

"춘성 스님은 가장 남성적인 선승이셨어요. 옛날 조사스님들처럼 전설적인, 걸출한 분이셨지요. 해제철에 수좌 한 분이랑 세 분이 함께 망월사에서 산 적이 있어요. 선방에는 이불 자체가 없는데, 9시만 되면 춘성 스님은 탁자 밑의 목침을 꺼내 주무시곤 했어요. 그런데 12시만 되면 깨어나셔서 새벽 내내 앉아 계시곤 하셨어요. 칠순 어르신이 주지방도 따로 없이 함께 생활하셨는데, 그 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선어(禪語) 였어요. '욕쟁이 스님' 이란 별명을 들으셨지만, 욕이 바로 직설적으로 하는 선어였지요. 스님은 평소에는 대승적으로 너그럽고 활달하시지만 사리판단 하실 때는 대단히 분명하셨어요.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수재화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특허청 실용신안 제 28054호
옥 외 촛 불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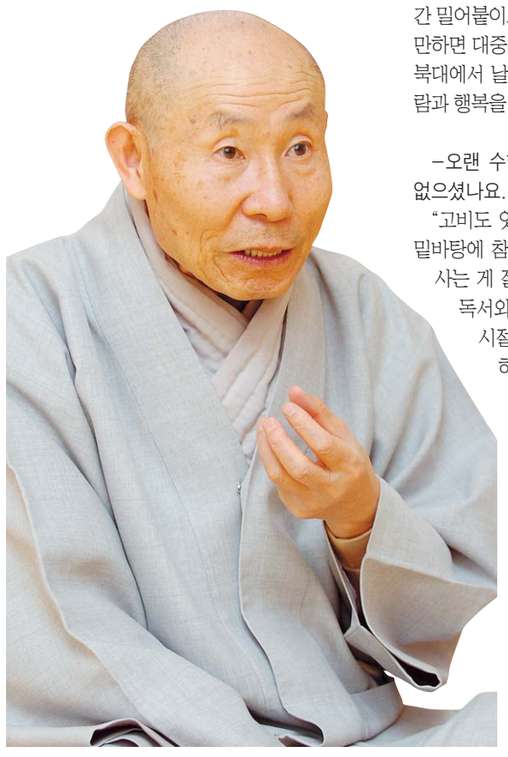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76-0160 / H · P 011-269-3356
E-mail : byoon47@yahoo.co.kr

주인이란 마음가짐이 진리



간 밀어붙이고 싶을 때 한 두 철 할만 하지만, 웬만하면 대중생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대산 북대에서 날 때가 공부 맛을 느끼고 수행의 보람과 행복을 비로소 느낀 때 였지요."

-오랜 수행과정에서 힘들거나 좌절한 적은 없으셨나요.

"고비도 있었지만 출가동기가 확실했으니까 밑바탕에 참고 견디는 힘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냐?' 이런 고민을 안고 독서와 사색으로 하얀 밤을 지새운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발심 못하면 이 공부 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직 할 일은 이것 뿐이다. 오직 정진위주로 나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건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이지요."

-스님께서는 성철 스님이 강조한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를 통한 구경각의 증득이란 수행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해 '오매일여(寤寐一如)'에 대해 어느 분이 '오와 매를 나누는 것이 이미 분별심이라 하면서,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논쟁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되어 공부가 잘 되면 몽중일여와 오매일여의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깨치기도 합니다. 오매일여 단계를 지나갔는데,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을 지나 서울 가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로 가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 분에게는 '오매일여'란 말도 군더더기일 수 있겠지만, 육조 혜능 대사와 같은 훤출한 종교적 천재가 아니고서는 바로 서울 가는 분이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도 극한의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골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어려운 '오매일여'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확철대오 하기 위해서는 오매일여의 선정에는 들어야 하고, 오매일여가 되어도 은산철벽을 투과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 해야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도달해야 생사자재(生死自在), 생사해탈(生死解脫)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난이라든지 일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나 번뇌망상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기계발서에서는 '비움'이나 '쉼'을 강조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선(禪)의 핵심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 같습니다.

"수행법이란 한 마디로 '(마음) 비우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장맛만 알아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마음을 비운다, 쉰다, 놓는다, 고요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잡스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인데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고인(故人)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 보다 쉽다'고 하기도 하셨지만, 분주한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비우는 것이 시작이고, 비워져야 고요해지고, 담담한 고요와 안정 속에서 화두나 염불 정진이 잘 되게 마련입니다."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안심(安心)을 얻는 방법을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글로벌 장기 불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난이 예전 보리고개 시절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체감 고통은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동요하고 쩔쩔 매고 괴로워하는 거죠. 10여 년 전 경기가 좋을 때 국민소득 2만불에 진입하기 전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스컴이 국민을 너무 선동해서 좌지우지 해요. 사람들이 주변의 변화와 어려움에도 초연하게 동요됨 없이 당당하게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해요. 평소 마음가짐이 안정된 상태이면 불안이나 괴로움이 적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마음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정신과 육체가 평화로워지면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마음이 안락하면 집중도 잘 되고 어떤 일이든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 '곳에 따라 주인노릇 하면 선 곳이 바로 진리 자체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어디 가도 나 그네가 아닌 주인이란 마음가짐으로 내 것, 내 일처럼 여기며 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마주한 일에 빠지듯이 주인정신을 갖고 일한다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은 번지르 하면서도 인격과 삶이 대중의 사표가 되지 못하는 사이비(似而非) 스승들이 적지 않다. 무여 스님을 뵐 때마다 한없이 자비롭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스승의 덕을 느끼게 된다. 스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 종통(宗通)과 설통(說通)을 두루 갖추고 언행이 일치되는 존경받는 우리 시대의 문수보살이 끝없이 출현하길 기원하면서 문수산을 내려왔다.

글=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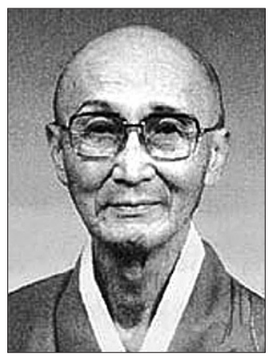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0. 선암사 강사 조종현 대화상

17세에 출가 당대 강백들에게 수학…명강사·시조시인으로 '명성'

철운 조종현(1906~1989) 대화상은 전남 고흥 출신이다. 1906년 부처님 출가재일에 태어나서 17세에 승주 선암사 금봉 스님께 출가하였다. 쌍계사 재봉 스님께 법맥을 계승하고 선암사 경운 노사에게 강맥을 계승하였다.

스님께 강의를 받다 보면 18세에 경운 스님에게 사미·사집과를 배운 이야기며, 19세 송광사 금명 스님께 기신론을 배우던 이야기며, 21세 범어사에서 진진응 스님께 사교과를 완수하고, 22세 때 통도사 해련 스님께 화엄경을 보고, 23세 때 서울 개운사 박한영 스님께 대교과를 이수한 이야기가 한 없이 쏟아진다. 특히 순창 구암사 박한영 스님과 지리산 화엄사 진진응 스님, 하동 쌍계사 제봉 스님께 법맥을 계승한 이야기는 25~26도의 냉방 속에서도 화기가 충천한다.



우리는 여덟 명이 상봉동 묘법사에서 2년 8개월 동안 선문염송을 들으면서 까마득이 세월을 잊고 있었다. 그 뒤 청량리에서 토요강좌를 하다가 종로에 포교사 전문대학을 만들어 안덕암 스님을 학장으로 모시고 공부를 가르친 내력을 생각하면 아슬아슬하다.

"한 법사, 자는 거여. 내일 일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보면 새벽 한 시다.

"내일은 무슨 내일 입니까. 자정이 넘었는데요."

"나는 한국불교가 찌들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한 가닥 빛을 본 뒤로는 잠이 오지 않네. 난 자네를 믿고 있어. 돈은 없지만 큰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약 8년을 지속하다가 84세 때 대한불교관음종 종정에 취임하면서 조용해졌다. 종단에 일거리가 많아진 까닭이요.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너무너무 세밀하여 모든 일을 조밀하게 잘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정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경희대학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사람이 늙으면 기운이 없어져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있는데, 나를 병들었다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켜. 오늘이 꼭 보름이 되었네, 내가 갈 길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을 오라고 한 것은 마지막 묻고 싶은 말이 있어 오라고 하였어. 내가 죽고 나면 아무래도 장사를 치뤄야 할 것인데, 일 끝난 뒤 서로 장사를 치루겠다 하면 곤란하게 될 것 아닌가!"

홍파 스님이 말씀하였다.

"저희 종단의 종정스님이시니 저희 절로 가서 열반을 하셔야 합니다."

한 아들이 있다 말씀하셨다.

"우리 8남매는 아버지가 스님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족이 다 모여 가족 행사를 치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장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임종은 집에 가서 하시고, 49재는 관음종에서 하시고, 저는 상락향에다가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 추모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당장 집으로 가자."

그리하여 1990년 8월 30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 사람들은 시조시인협회 원로가 돌아가셨다 하고, 각 학교와 종단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 강사, 원장님이 돌아가셨다 하였다. 왜냐하면 24세에 개운사 불교대학을 나온 이후로는 동화사 강사, 마곡사·선암사 강사를 지내셨고, 44세 때부터 발표된 동요와 시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의 펜을 가진 시조시인이 되고, 세계팬클럽 한국위원이 되어 자유문학지와 공보부에서 주는 신인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스님은 한국문인협회 이사, 외솔회원, 시조작가협회, 동국문학회 고문을 지내면서 시조문학지를 창간하여 이상범·조오현·김진동 등 16명의 일선 작가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스님은 교육자로서 사찰교육만 담당한 것이 아니다. 32세에 일본 동경 고마자와 대학을 나와 벌교 중·고등학교, 광주 서중·일고·보성중학·우석 중고등학교 교장, 동방불교대학 강사, 불교통신대학 대학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66세부터 불입종 교정원장을 두 차례나 지내시고, 68세에는 원주 불심원 원장, 77세에 포교협회 회장, 총화종 종정을 지내셨다. 나는 지금도 96세된 사모님과 함께 <자정의 지구> <의상대사 해돋이> <거 누가 날 찾아> <나그네의 길>을 읽으며 선문염송 강의를 되새겨 본다.

"불법의 큰 바다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미천한 사람도 대해일포구(大海一泡漚)다. 아무리 훌륭한 천재와 과학자도 지해종사(知解宗師)가 되고 마니,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신 말씀 잊혀지지 않는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⑧

중도의 정관은 불안이며 일체종지이다

深尋此偈意 非惟具足分別中觀之相 亦是兼明前二種方便觀門旨趣 當知中道正觀 則是佛眼一切種智 若住此觀 則定慧力等 了了見佛性 安住大乘 行步平正 其疾如風 自然流入薩婆若海.

이 중관론 사구게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면 중관의 모습을 빠짐없이 만족하게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두 종류의 방편관문의 귀결점까지도 함께 밝힐 수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중도의 정관은 바로 불안이며 일체종지라는 점이다. 가령 이 관법에 안주하면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여 분명하게 불성의 이치를 볼 수 있다. 대승에 안주하면 수행마다 평탄하고 정직하여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세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천태종 제2대조사인 혜문(慧文)대사가 중관론을 읽다가 사제품(四諦品)에 나오는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역명위가명 역명중도의(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名爲假名 亦名中道義)'라는 사구게에 이르러서 제법은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즉공 즉가 즉중 아님이 없음을 단박에 깨우치고 나서 일심삼관의 이치가 원만하게 되었다.

그 뒤에 혜문대사는 일심삼관의 이치를 남악혜사(南岳慧思)대사에게 전수하였고 남악혜사대사는 천태지자(天台智者)대사에게 전수하여 지자대사가 이를 더욱 광대하게 펼쳤다.

지자대사는 마침내 삼대부오소부(三大部五小部)를 설하여 천태종을 창립하고 부처님 일대설법시기를 다섯 시기로 교판하여 모든 종파를 꺾고 뭇 학설을 뛰어넘었다. 따라서 이 사구게야말로 천태종이 건립한 삼관의 발원한 근본처소이기 때문에 그 의리가 심오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사구게 의미를 연구하면 중관의 모습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공관 가관의 의미까지도 함께 밝힐 수 있다.

중도의 오묘한 관찰은 공관 가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공관 가관은 중도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삼관이 일심에 상즉하고 일심이 삼관에 상즉하여 시간적으로는 전후가 없고 공간적으로는 함께하지도, 차별이 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불안(佛眼)은 범부의 육안(肉眼)이 아니며 하늘나라의 천안(天眼)도 아니고 이승의 혜안(慧眼)과 보살의 법안(法眼)과도 동일하지 않다. 오직 불안만이 나머지 네 가지 안(眼)의 작용을 빠짐없이 갖추어 오안(五眼)을 하나의 '안'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없고 분명하지 않은 일도 없으며 보지 못하는 것도 없다.

불안으로는 항하사와 같은 한량없는 세계 밖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숫자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안'이라고 부른다.

삼제실상은 시종이 없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단절
삼관은 일심서 일어나고 오안차별은 하나의 지혜

게송에서는 "천안은 걸림 없이 소통하고 육안은 장애를 통과하지 못하며 법안은 속제만 관찰할 뿐이고 혜안은 공의 이치만을 알 뿐이다. 하지만 불안은 천개의 태양이 모든 사물의 차별을 관조하나 그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불안은 십법계의 차별적인 모습을 보편하게 관조하지만 차별이 바로 차별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다시 하나의 동일한 이치가 되고 동일한 이치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속제에서는 차별이 나기 때문에 그 차별을 관조하면 그것이 바로 속제의 가이고, 속제의 차별에서 바로 차별이 없어 그 자체가 동일한 하나의 이치인 진제의 공이며, 이처럼 진제의 공과 속제의 가가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중관인 것이다.

이로서 삼관(三觀)은 일심에서 일어난 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관의 차별이 바로 일관(一觀)인 것을 오묘한 관법이라고 말하며, 오안의 차별이 하나의 안인 것을 불안이라고 하며, 삼지(三智)가 하나의 지혜인 것을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말한다.

수행인이 이 관법이 안주하면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여 명료하게 불성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진제 공은 바로 선정이며 속제 가는 바로 지혜이다. 공과 가가 둘이 아닌 것을 가리켜 선정과 지혜의 힘이 평등하다고 한다.

이승은 진제 공쪽에만 치우쳐 있고 보살은 속제 가쪽에 치우쳐 있는데, 부처님이 안주한 곳에 이르러야만 공과 가가 두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중도의 오묘한 관법이 현전하여 분명하게 불성을 보고 대승에 안주할 수 있게 된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삼승에게 평등하게 큰 수레를 하사했다'는 비유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수행인이 원돈지관(圓頓止觀)을 닦는 것을 말한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그 수레는 높고 광대하여 뭇 보배로 아름답게 꾸며졌다"라고 하였다. 또 "흰 소에게 멍에를 채워서 수레를 끌게 하였는데, 흰 소의 피부색은 깨끗했으며 형체는 특이했고 힘이 세었으며 걸음걸이는 올바르고 바람처럼 빨랐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수레를 따르면서 호위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간략히 인용했을 뿐이다.

대승은 하얀 소가 이끄는 큰 수레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삼관실상의 오묘한 이치는 시간적으로는 처음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그 한계가 단절하여 즉공 즉가 즉중으로서 백계천여(百界千如)를 일념에 빠짐없이 갖추었다는 것을 비유했다. 그러므로 '대승'이라고 말한다.

흰 소(白牛)는 본성에 걸맞는 오묘한 관법을 비유한 것인데, 이는 삼제의 이치를 따라서 오묘한 삼관의 이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흰 소에게 멍에를 채웠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흰 소가 이끄는 큰 수레인 것이다.

대승에 안주한다 함은 안주한다는 집착이 없이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끊어진 상태에서 임의로 운행하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흰 소의 걸음걸이가 올바르다'는 것은 삼관이 원만하여 지에 상즉한 관이고 관에 상즉한 지여서 선정과 지혜가 두 모습이 아니고 칠각지(七覺支)가 고르고 평등한 것을 말한다.

'바람처럼 빠르다'는 것은 원만한 관법이 본성에 걸맞게 일어나 임의로 운행하면서 인위적인 노력없이 수행하는 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또 팔정도(八正道)를 중도로 실천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신속하게 도달함을 비유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증과장(證果章)에서 수행했던 지관은 정수행장(正修行章)에서 밝혔던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혔던 것은 십지(十地)이전의 분별적인 수행인 삼현(三賢)보살의 유루연수(有漏緣修)이며, 지금 밝히는 것은 십지 초지인 견도위(見道位)이후에 본성에 걸맞게 분별없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무루진수(無漏眞修)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승에 안주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세계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을 듣는 자는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수행으로 얻어진 경계만을 순수하게 밝혔으며 아울러 그 공덕까지도 찬탄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다음문장에서 밝히는 의미와 증과장 이전의 아홉 장의 의미가 모두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중복되는 번거로움은 없을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4) 수습위(修習位)

견도위의 입심(入心) 다음인 주심(住心)으로부터 십지(十地)최후까지 차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극희지(極喜地)

보살이 처음 견도위로 진입하여 바른 수행을 함으로써 견혹을 타파하고 아 · 법 이공(二空)의 이치, 즉 진여평등의 도를 증득하여 자타에게 이익을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극도의 희열이 최초로 일어납니다. 이를 극희지라고 합니다.

② 이구지(離垢地)

일체의 계행을 파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칠고 미세한 모든 번뇌를 끝까지 다 떠난 경지입니다. 이 경지는 십바라밀을 모두 닦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계력(戒力)이 수승하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합니다.

③ 발광지(發光地)

선정에서 얻은 삼마지와 듣고 지니는 다라니는 능히 무량한 지혜의 빛을 의지하여 발현하기 때문에 발광지라고 합니다. 이 수행위에서는 선정력이 가장 수승한 승정(勝定)을 성취하여 가없는 오묘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④염혜지(?慧地)

최승각(最勝覺)을 증득하면 지혜의 불꽃이 번뇌의 섶을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염혜지라고 합니다. 즉 번뇌의 섶을 불사르는 불꽃과 같은 지혜를 증장하여 최고의 수승한 보리분법에 안주하는 수행위입니다.

⑤극난승지(極難勝地)

지금까지는 근본지와 후득지, 즉 진속양지(眞俗兩地)가 서로가 서로를 위반하면서 불완전하다가 지금에야 하나의 이치로 합하여 상응하기 때문에 극난승지라고 합니다. 세친(世親)보살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제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무분별지이며 세간의 모든 사물을 분석하는 지혜가 분별지(分別智)이다. 이 두 지혜는 출정(出定)과 입정(入定)에 따라 서로 위배한다. 즉 선정에 들면 현실 분별지를 잃고, 다시 선정에서 깨어나 분별지를 일으키면 선정 속에서 일어났던 근본무분별지를 잃는다. 때문에 이 둘의 지혜를 하나의 이치, 즉 무분별 속에서 분별이 분명하고 분별에서 다시 무분별로 합하여 서로가 하나의 이치로 호응해야만 한다. 수행이 이 경지에 도달하기란 극히 어려운데도 이를 이겨냈으므로 '극난승지'라고 한다."

⑥현전지(現前地)

이 수행지에서는 일체의 제법은 인연으로 생기하는 이치를 관찰하는 특수한 지혜로 최승반야를 일으켜 그 지혜가 항상 목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합니다. 또는 연기지(緣起智)라고도 합니다.

■정리=張如舟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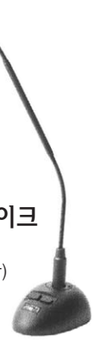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금생에 마음 밝히지 못하면 물도 소화하기 어려워”



혜암은 보문이 시킨 대로 조실채로 가 한암에게 절만 하고 나왔다. 과연 한암은 혜암이 절을 하자, 몸을 반쯤 구부려 인사를 받을 뿐 은사가 누구인지 어느 절에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혜암이 “방부 들이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러시게” 하고 대답만 짧게 하면서 입을 다물어버렸다.

혜암은 소임을 짜는 날 아침저녁으로 범종을 타종하는 종두(鐘頭)를 맡았다. 다른 대중들과 달리 혜암은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한암의 눈에 금세 띄었다. 그렇다고 한암은 드러내놓고 혜암을 칭찬하지는 않았다.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만 지었다.

‘조실스님의 가풍은 참 독특하구나.’

혜암은 한암의 고지식한 가풍이 마음에 와 닿았다. 해인사의 어떤 스님보다 더 고풍스러웠다. 한암은 아침에 일어나 행건을 치면 잘 때만 풀었다. 다른 절에서 온 수좌들이 행건을 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노장님, 행건을 치면 각기병이 생길 수 있으니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스님들이 행건을 친 데는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것도 선왕지법(先王之法)이네.”

한암은 고풍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었다. 예불도 아침저녁으로 각단 예불을 다 했다. 수좌들 모두가 선방에서 죽비로 3배하며 예불을 대신하지만 한암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예불에 참여했다. 그러니 대중들은 예불할 때가 되면 한암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했다. 어느 날인가는 한암이 정랑을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대중이 먼저 예불을 올렸다가 스님의 지시로 다시 한 적도 있었다. 그때 한암은 대중들에게 중국 대혜 선사의 예를 들었다. 대혜는 조실스님으로서 17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살았는데, 예불과 울력 두 가지만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었다.

한암도 울력에 빠지지 않았다. 채소 기르기, 감자 심고 캐기, 꿀밤 손질 등등 무슨 울력이든 손을 보탰다. 공양간에서 콩나물 다듬을 때도 반드시 나와 살폈다. 대가리 한 개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고, 채공이 썩은 콩나물이라 해 소홀하게 다루면 질색을 했다.

공양은 아주 적게 아침에는 죽, 낮에는 밥으로 두 끼만 했다. 공양할 때는 감사하게 받을 뿐 일체 말이 없었다. 질다 되다,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등등 조실스님이라 해 나서서 말하지 않고 묵묵히 공양할 뿐이었다.

한암은 잠을 잘 때만 조실채로 가고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선방을 지켰다. 참선하는 수좌들과 함께 꼿꼿하게 앉아서 보냈다. 그러니 아무도 발을 뻗거나 허리를 벽에 기대지 못했다. 지대방도 아예 없기 때문에 고참이건 신참이건 수좌들은 선방에서 오로지 참선만 해야 했다. 힘들면 밖으로 나가 포행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암의 신조는 ‘군자는 꿋꿋하여 쉬지 않는다(君子健健不息)’였다. 한 철을 상원사 선방에서 어떻게 날까 하고 지레 겁을 먹는 대중에게 한암은 곧잘 중국의 노조(魯祖) 선사를 예로 들었다. 노조 선사는 납자들이 찾아오면 ‘한 길을 말하는 것은 한 자를 가는 것만 못하다(說得一丈不如行得一尺)’며 벽을 보고 돌아앉았는데, 말해서 무엇을 얻기보다는 묵묵히 좌선하라는 노조 선사의 가풍이 그랬던 것이다.

점심공양 후에는 대중들이 선방에 빙 둘러앉아 마가목차를 마셨다. 오대산에 자생하는 마가목으로 만든 마가목차의 맛은 텁텁했다. 한암은 차 마시는 시간을 이용해 법문을 했고, 대중들은 막사발에 담긴 마가목차를 들면서 귀를 기울였다. 한암이 굳이 차 마시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집(四集)〉이나 〈법화경〉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등을 인용해 법문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수좌들이 한문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경전이나 선문어록을 능숙하게 볼 수 있는 수좌들이 드물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암이 수좌들에게 경을 보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할 뿐이었다.

“한 가지는 수좌라도 불공을 익혀서 마지 올리고 내리는 법은 알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참선이란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지만 불조의 어록을 혼자 뜯어볼 정도의 글 힘은 있어야 한다.”

그래도 선을 우선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암은 교를 버리고 선에 드는 사교입선(捨敎入禪)보다는 입선입교(入禪入敎)를 강조했다. “선을 해서 이치를 통하고 나면 경 보기는 어렵지 않다. 서두르지 말고 선에만 힘을 써라. 뜻을 얻으면 글은 저절로 알게 된다”고 당부했던 것이다.

혜암은 상원사 선방에 입실한 뒤 처음 얼마간은 한암과 단 한 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한암은 누구라도 먼저 묻지 않으면 침묵으로 일관했다. 참선 중에 보기에 딱할 정도로 꾸벅꾸벅 조는 수좌가 있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차 마시는 시간이 돼서야 참선 중 졸면 안 된다고 조용히 타이를 뿐이었다.

“참선의 병은 혼침과 도거(掉擧)다. 혼침은 혼혼한 졸음에 빠지는 것이고 도거는 망상이다.”

처음으로 찾아오는 신도에게도 무심하게 대했다. 신도가 절을 하면 스님도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받을 뿐, 담소를 나누는 일이 없었다. 종단 일이나 저잣거리의 일이나 묻지 않았다. 서울에서 온 신도가 귀한 선물을 내놓아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의 도(道)만 바라보았다.

간혹 신도들이 적멸보궁에 기도하러 와서 한암에게 돈이 든 봉투를 놓고 가는데, 스님은 아무 데나 두었다가 수좌들이 떠날 때 노자로 나눠줘버렸다. 시자가 몰래 월정거리로 나가 그 돈으로 떡을 사먹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혜암은 비록 한암과 차 마시는 시간 이외에는 단 한 마디도 나누지 못했지만 스님의 모습이 더 없이 좋았다. 중노릇을 하면서 두고두고 닮고 싶은 분이 한암이었다. 본분종사의 품격이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마음에 새겼다.

‘이번 철에 공부를 마쳐버리자!’

혜암은 신심을 내어 화두를 들었다. 장좌불와도 혼자서 계속 밀고 나갔다. 그러자 어느 날 한암이 나직이 불러 말했다.

“잠 좀 자고 공부하지 그런가.”

“조실스님,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럴 테지. 금생에 마음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했어.”

“조실스님 회상에서 반드시 마치고 말겠습니다.”

“한밤중에는 공기가 차니 마가목차를 자주 마시게.”



그림 · 최문정

“수좌라도 불공 익히고 불조 어록 혼자 봐야”
화두 일념으로 종 치며 한암 스님 인정 받아

마가목차는 찬 공기에 약해지는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특효가 있었다. 마가목의 열매와 잎을 달인 물을 장복하면 가래나 천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오대산 화전민들 사이에 전해오던 민간요법을 이제는 상원사 선방 수좌들이 잇고 있는 셈이었다.

한암이 던진 한 마디는 혜암에게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졌다. 신심을 솟구치게 했다. 무자화두가 더없이 잘 들렸다. 졸음이 만 리 밖으로 달아났다. 새벽마다 범종을 칠 때도 화두가 성성했다.

하루는 혜암이 새벽범종을 치는데 타종 소리가 일정치 않았다. 그러자 대중들이 마당으로 나와 모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타종해야 하는데 불규칙했다. 대중들이 어둑한 마당에서 수군거렸다.

“혜암 수좌가 졸고 있군.”

“서 있는 자세가 바른 것을 보니 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소.”

“고르게 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는 게 틀림없어요.”

“간격은 일정치 않지만 범종소리가 힘차지 않소. 졸고 있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큰 소리를 낸단 말이오.”

이윽고 한암도 마당으로 나와 묵묵히 타종소리를 들었다. 한암은 무어라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러더니 대중들을 선방으로 불러들였다. 대중들은 공사를 벌이는가 싶어 좌선하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범종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하고 아주 느린 속도로 들리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친다면 이미 28번의 타종소리가 끝나고 웅– 하는 여운만 남아 있어야 했다. 한암이 옆에 앉은 한 수좌에게 물었다.

“종두가 종을 잘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소리가 일정치 않으니 여법하지 못합니다.”

한암이 앉은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며 다른 수좌에게도 물었다.

“종두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대중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범종 하나 치지 못하는 수좌이니 공부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한암은 수좌들의 의표를 찌르듯 말했다.

“종두는 종을 제일 잘 치는 수좌이다. 소리가 일정치 않은 것이야말로 참으로 공부하는 납자의 솜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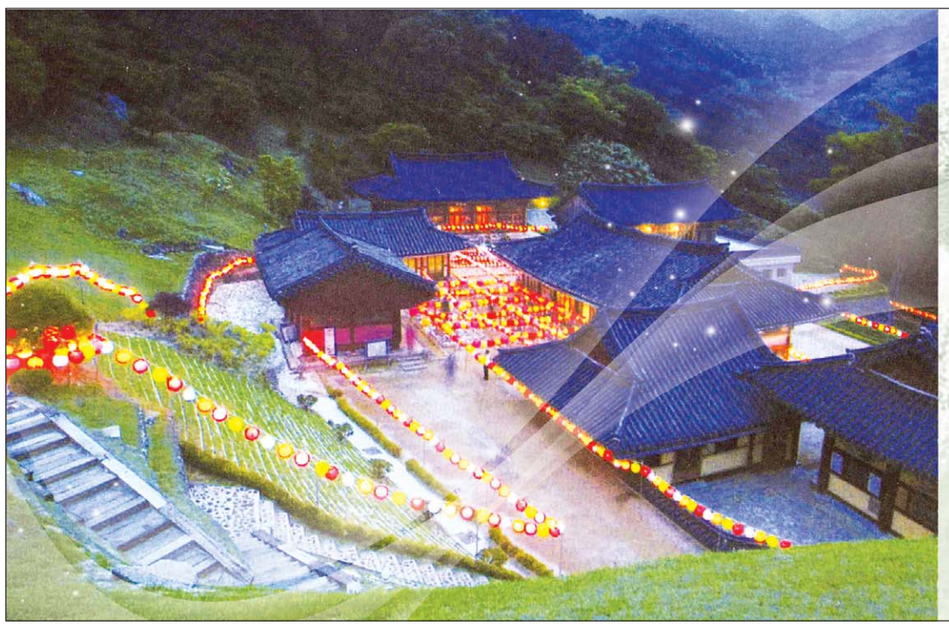
한 수좌가 볼멘소리로 물었다.

“조실스님, 대중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놀라게 했는데 어찌 공부 잘하는 납자라 하십니까.”

“혜암 수좌는 지금 화두일념에 들었느니라. 공부하는 수좌의 모습이 저러해야 하거늘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한암이 크게 소리 내어 웃고 난 뒤에야 대중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타종 사건이 있은 후, 혜암은 신참인데도 단박에 선방의 화제인물이 됐다. 그러나 수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종두 소임은 여전히 안거가 해제될 때까지 맡았고, 장좌불와는 몸살이 나 오한이 든 날도 거르지 않고 지속했던 것이다.

다만 점심 공양 후 차 마시는 시간이 따분할 때면 중대 암자를 거쳐 적멸보궁을 참배하곤 했다. 좌선으로 약해진 다리에 근력도 기를 겸 적멸보궁까지 오르내리는 일은 마가목차를 한 잔 하는 것보다 더 상쾌했다. 적멸보궁까지 화두를 들고 혼자 행선하면서 중국의 노조 선사가 말한 ‘한 길 말하는 것이 한 자를 가느니만 못하다’는 뜻을 절감하곤 했다. 한 마디 법문을 듣기보다는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속〉



비구니 교육의 어제와 오늘…내일



비구니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2000원

한국처럼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체계가 반듯하게 전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비구니 수행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의 전통을 이어 시대에 맞는 형태로 정착해 왔다. 그 중심에 비구니 승가대학(강원)이 있다. 현행법상 비구니계를 받기 이전 단계인 사미니 시절에 승가대학 과정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비구니 승가대학이라기 보다는 사미니 승가대학 혹은 사미니 강원 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현재 조계종 인가 사미니 승가대학은 동학사 운문사 봉녕사 청암사 등 전통 사찰에 개설한 4개와 불교의 현대화 과정에 발맞춰 설립된 삼선승가대학과 유마사 승가대학이 있다. 이 가운데 삼선승가대학은 대중생활을 하지 않고 통학을 하는 승가대학이란 점이 특이하다.

일제강점기와 불교정화 등 격동기를 거친 이후 처음 비구니 강원의 격을 세운 곳은 동학사 강원이다. 만화 스님에서 경허스님을 거쳐 운허스님에 이르기까지 강원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있던 동학사에 비구님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을 위한 강원이 설립된 것은 1956년. 제11대 강주 경봉용국 스님에 의해서다.

이후 속속 문을 연 다른 강원들도 사찰의 역사와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면학 풍토 조성과 수행가풍 확립에 간단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구니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설립한 불교사 연구위원회가 2008년 개최한 '한국 현대불교의 교육기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비구니 승가대학의 설립배경은 물론 현대 한국불교에 대한 기여와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이 현장 강사들의 안목으로 짚어졌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지금 여기'서 깨어 있는 삶은 행복하다

현진 스님 5년만의 에세이 '오늘이 전부다'… 행복의 길 안내





"스님, 출가해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장가 안 가서 행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거듭 거듭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다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스님. 베스트셀러 <삭발하는 날>의 저자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 주지)이 5년 만에 신작 에세이 <오늘이 전부다>를 펴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위한 잔잔한 이야기'를 테마로 한 이 책은 스님의 다섯 번 째 저서.

현진 스님은 지금까지 절 집안의 일상이나 수행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수채화를 보는듯한 감성과 아름다움으로 묘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삶의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주제, 특히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 스님은 행복의 길(道)을 달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전부' '현재' '지금'이란 단어를 무수히 반복하며 나름의 '행복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임제 선사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지, 달리 다른 시절이 없다(卽是現今 更無時節)"는 가르침이 수행자에게나 생활인들에게 절실함을 강조한다. '숨 쉬어라, 사랑하라, 수행하라, 수고(受苦)하라, 떠나라' 라는 주제 아래 담겨진 작은 이야기 내지 법문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명쾌하게 꿰뚫어봄으로써 '오늘이 전부다'라는 말로 귀결시키고 있다.

4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연 현진 스님은 "6년여 간 주지소임을 맡아 신도님들이 호소하는 고민을 함께 풀려 애쓰다보니,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어려운 문제의 절반은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아픔과 이별은 피해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속에서 수용해야 할 인연 같은 것"이라며 "지금 당장 마주한 자리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에서 정진하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한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해인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아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2001년 스님들의 일상을 소개한 <삭발하는 날>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으며, 이후 <잼있는 스님이야기> <산문, 치인리 십번지> <두번째 출가> 등을 펴냈다. 스님은 인연이 주어지면 성지순례기를 따로 쓸 계획이다.

클리어마인드|1만3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 최후의 모습



유행경 혜남 역해|부다가야 펴냄|1만5000원

<장아함경> 속에 전하는 <유행경(遊行經)>은 있다. 부처님이 입멸하기 전 서너 달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된 경전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을 "피곤하다. 눕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매우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과 함께 담고 있다.

열반을 향한 부처님의 마지막 여행길.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병을 얻은 뒤에도 그치지 않았던 그 가르침의 여행. 쿠시나가라에서의 마지막 설법 그리고 장엄한 열반과 사리의 분배까지 실로 황하의 흐름 같이 전개된 부처님의 최후 모습이 가장 장 묘사된 것이 <유행경>이다.

대개의 불자들이 알고 있듯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담은 경전은 <열반경>이다. 그러니까 <유행경>은 <열반경>이 설해지기까지의 과정,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이 어떤 상황에서 설해졌는지를 엿볼 수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인 혜남 스님은 일본 유학 시절 <유행경>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 노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에서 느껴지는 인간미에 대한 강한 인상이 이 경전을 쉽게 번역해 책으로 엮는 발심의 계기였던 것이다. 임연태 기자

하늘아래 첫 동네 히말라야도 '현대'



라닥 하늘길을 걷다
전제우 글 사진|지오마케팅 펴냄|1만2000원

절 풍경 속에서 불교의 진수를 읽어내는 사진작가 전제우씨가 승보종찰 송광사의 청전 스님과 하늘아래 첫 동네 라닥을 순례했다. 티베트 불교의 숨결 아니, 그 이전 자연과 사람의 호흡을 조심스레 밟으며 그는 두두물물의 현상을 화두로 셔터를 눌러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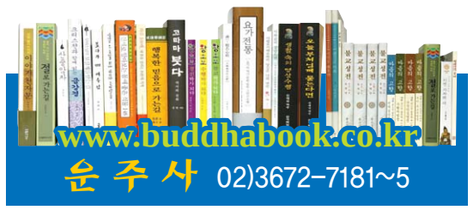
그의 렌즈에 잡힌 모든 풍경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기도 하고 티베트 사람들의 질박하고 지순한 삶이기도 하고 히말라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기도 하다. 그러한 내용이 풍경을 통해 드러나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파동이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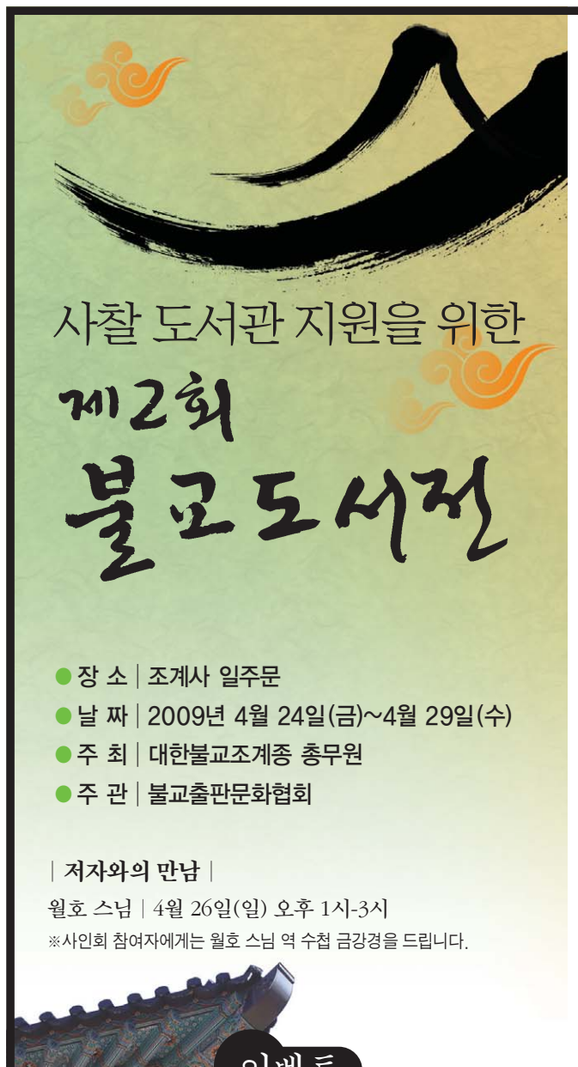
<라닥 하늘 길을 걷다>는 라닥 지역의 풍경을 통해 인간을 삶과 미래를 보여준다. 마냥 신비하고 원시적일 것이란 선입관은 버려야 한다. 히말라야도 현대다. 현대의 히말라야 티베트 라닥 그리고 사람들이 책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사진은 평면이지만 작가의 이야기는 매우 입체적이어서 중중무진의 인드라망 속 인간의 고뇌와 열락이 다 하나의 도리임을 웅변한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과경	현담	선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4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7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8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9	춘성	김광식	새싹
10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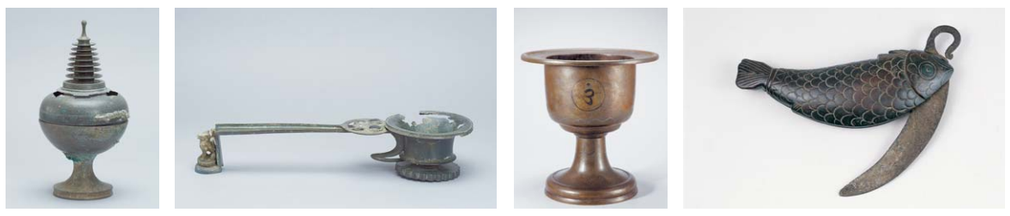
【출품도서】 20% 할인판매

주역선해(周易選解) · 75,000 · 지은이:지욱스님, 옮긴이:박태섭 · 도서출판 한강수
도정선지료입문 · 38,000 · 이동식 지음 · 도서출판 한강수
김홍도의 비밀 · 12,000 · 백금남 지음 · 도서출판 한강수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 12,000 · 정성본 · 동국대학교출판부
공입문 · 10,000 · 가지야마 유이치/김성철 · 동국대학교출판부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 · 12,000 · 김호귀 · 동국대학교출판부
금강삼매경론(상) · 17,000 · 조용길, 정통규 · 동국대학교출판부
금강삼매경론(하) · 20,000 · 조용길, 정통규 · 동국대학교출판부
선의 향테칠학 · 22,000 · 서재영 · 동국대학교출판부
선의 세계 · 48,000 · 고형곤 · 동국대학교출판부
정법안장주해 · 10,000 · 코온 에츠이재장 · 동국대학교출판부
중관과 유식 · 26,000 · 나가오 가진/김수아 · 동국대학교출판부
한국사경연구 · 25,000 · 정충식 · 동국대학교출판부
동아시아불교 근대화의 안남 · 17,000 ·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 동국대학교출판부
근대동아시아의 불교학 · 16,000 ·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 동국대학교출판부
법정스님의 숲기로운 동화나라(1)황금빛 사슴 · 8,500 · 법정 · 동녘나라
법정스님의 숲기로운 동화나라(2)수다쟁이 임금님 · 8,500 · 법정 · 동녘나라
법정스님의 숲기로운 동화나라(3)황금백조 이야기 · 8,500 · 법정 · 동녘나라
산에는 꽃이 피네 · 9,000 · 법정 · 동녘나라
삶의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고통을 씻어 준 붓다 · 8,500 · 데이 · 동녘나라
소설 탄허 · 12,000 · 백금남 · 동녘나라
십우도(상),문고판 · 5,000 · 백금남 · 동녘나라
십우도(하),문고판 · 5,000 · 백금남 · 동녘나라
아름다운 부처님나라(2),우리나라편 · 8,500 · 윤승운 · 동녘나라
오세암 · 7,000 · 정채봉 · 동녘나라
이게진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 9,000 · 이계진 · 동녘나라
참 맑은 이야기 · 7,500 · 법정 · 동녘나라
참 좋은 이야기 · 7,500 · 법정 · 동녘나라
패랭이꽃 [장발한 조선여인의 넋] · 9,500 · 우봉규 · 동녘나라
향기로운 부처님나라(1),인도/중국편 · 8,500 · 윤승운 · 동녘나라
불교경전1:화엄경 · 12,000 · 김지견 · 민족사
불교경전2:유마경 · 7,500 · 박용길 · 민족사
불교경전3:묘법연화경 · 13,000 · 현해 · 민족사
불교경전5:금강경 · 7,000 · 정호영 · 민족사
불교경전6:능엄경 · 12,000 · 김두재 · 민족사
불교경전8:원각경·관보현행원 · 10,000 · 전해주 · 민족사
불교경전9:정토삼부경 · 9,500 · 한보광 · 민족사
불교경전10:법망경·보살영락본업경 · 11,000 · 이기영 · 민족사
불교경전11:부모은중경·우란분경 · 7,000 · 일지 · 민족사
불교경전12:대반열반경 · 8,500 · 김기희 · 민족사
불교경전13:아함경 1 · 9,000 · 운허 · 민족사
불교경전14:아함경 2 · 9,000 · 운허 · 민족사
불교경전15:법구경 · 9,000 · 석지현 · 민족사
불교경전16:숫타니파타 · 8,500 · 석지현 · 민족사
불교경전17:일진다원문경 1 · 12,000 · 동봉 · 민족사
불교경전18:일진다원문경 2 · 12,000 · 이미령 · 민족사
불교경전19:본생경 1 · 8,500 · 이미령 · 민족사
불교경전20:본생경 2 · 9,500 · 이미령 · 민족사
불교경전21:미륵경전 · 7,000 · 이동식 · 민족사
불교경전22:여래십법경 · 7,000 · 주경스님 · 불광출판사
행복해지는 습관 · 12,000 · 서기산 역음 · 불광출판사
365일 부처님 말씀 · 7,500 · 윤창화 · 민족사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 7,500 · 석지현 · 민족사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 12,000 · 최일 · 민족사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 9,500 · 성법 · 민족사
부처님과 보살 제미있는 이름이야기 · 9,000 · 김윤수 · 민족사
불자생활백서 · 9,800 · 고명석 윤창화 · 민족사
빠알리경전 · 28,000 · 일아 · 민족사
생기한도와 48계 · 7,500 · 박연진 · 민족사
왕초보 108염주 시도하기 · 9,500 · 계정 · 민족사
왕초보 불교바시 되다 · 9,500 · 석지현/윤창화 · 민족사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 9,500 · 고명석 · 민족사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 9,500 · 성법 · 민족사
작은책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 4,000 · 석지현 · 민족사
작은책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말씀 · 4,000 · 정휴 · 민족사
작은책논어 · 3,500 · 김경중 · 민족사
작은책대반열반경 · 3,500 · 강기희 · 민족사
작은책명상 · 3,500 · 김진양 · 민족사
작은책명심보감 · 4,500 · 윤창화 · 민족사
작은책묘법연화경(상) · 4,500 · 현해 · 민족사
작은책묘법연화경(중) · 4,500 · 현해 · 민족사
작은책묘법연화경(하) · 4,500 · 현해 · 민족사
작은책미륵경전 · 4,000 · 이동식 · 민족사
작은책밀린다왕문경 · 3,500 · 서경수 · 민족사
작은책백유경 · 4,000 · 현각 · 민족사
작은책법구경 · 4,000 · 석지현 · 민족사
작은책본생경 · 4,500 · 이미령 · 민족사
작은책숫타니파타 · 4,200 · 석지현 · 민족사
작은책아함경 · 4,300 · 돈연 · 민족사
작은책유마경 · 4,500 · 박용길 · 민족사
작은책지장경 부모은중경 · 4,500 · 일지 · 민족사
작은책계경·단경 · 3,200 · 김수경 · 민족사
작은책화엄경 · 4,800 · 김지견 · 민족사
중관사상 · 12,000 · 김성철 · 민족사
지혜로운 삶을 위한 올바른 신행생활 · 8,500 · 남전 · 민족사
천수경의 비밀 · 7,500 · 김호성 · 민족사
인도사 108장면 · 15,500 · 박금표 · 민족사
경허와 만공의 선사상 · 15,000 · 태진 · 민족사
문수기도공덕 · 6,500 · 정념 · 민족사
지장기도공덕 · 6,500 · 태진행 · 민족사
관음기도공덕 · 6,500 · 윤창화 · 민족사
근본불교 · 12,000 · 이중표 · 민족사
아비담마불교 · 9,000 · 권오민 · 민족사
중관사상 · 12,000 · 김성철 · 민족사
인도철학과불교 · 15,000 · 권오민 · 민족사
중국화엄사상상 · 12,000 · 정병삼 · 민족사
꽃도 너를 사랑하느니 · 8,000 · 월정 혜총 스님 · 부다가야
천천히 가는 것을 감내지 마라 · 8,000 · 철우 스님 · 부다가야
세복처럼 깨어 있으라 · 12,000 · 월정 혜총 스님 · 부다가야
법화경의 세계 · 원음으로 레어니기 · 10,000 · 히라가와 아끼라 지음/석혜능 옮김 · 부다가야
남 잘되게 하기 · 9,000 · 오심 스님 · 부다가야
죽음이 없는 약 · 20,000 · 불국 정관 스님 · 부다가야
보현행원품 강설 · 12,000 · 중산 혜남 스님 · 부다가야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 12,000 · 서봉 반산 스님 · 부다가야
인도성지참배(영문판) · 6,000 · 불국 정관 스님정질원 번역 · 부다가야
산타대지가 내 품에다니 · 10,000 · 도업 스님 · 부다가야
약사여래본원경·사경 · 8,000 · 용담 현기 스님 · 부다가야
고려본 금강경·사경본 · 8,000 · 혜엄 우진 스님 · 부다가야
고려본 금강경·독송본 · 4,800 · 혜엄 우진 스님 · 부다가야
청규와 선원문화 · 18,000 · 은암 신공 스님 · 부다가야
The Path of Korea Zen Practice · 간화선의 길 · 18,000 · 불국 정관 스님정질원 번역 · 부다가야
님한테 할 말 있소 · 11,000 · 산히 덕진 스님 · 부다가야
오늘도 물길무니를 올연서 · 12,000 · 중현 스님 · 부다가야
유행경 · 15,000 · 중산 혜남 스님 · 부다가야
입본설명론 · 12,000 · 세친테버 보살 지음/석혜능 편역 · 부다가야
한영불교사전 · 35,000 · 서광 편찬 · 불광출판사
유식 30송 · 8,000 · 서광 지음 · 불광출판사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10,000 · 과경역음,각산정원규음집 · 불광출판사
운영을 바꾸는 법 · 12,000 · 이기화 옮김 · 불광출판사
현대불교학특으로돌오본 반야심경 · 9,000 · 김성구,조용길 지음 · 불광출판사
한영불교사전 · 35,000 · 서광 편찬 · 불광출판사
유식 30송 · 8,000 · 서광 지음 · 불광출판사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10,000 · 과경역음,각산정원규음집 · 불광출판사
운영을 바꾸는 법 · 12,000 · 이기화 옮김 · 불광출판사
현대불교학특으로돌오본 반야심경 · 9,000 · 김성구,조용길 지음 · 불광출판사
세간속에서 해탈이루리 · 5,000 · 이중린 지음 · 불광출판사
일본중세 불교설화 · 5,000 · 임정명 지음/루리숙 옮김 · 불광출판사
사람이 부처님이다 · 5,000 · 무비 지음 · 불광출판사
실천 보현행원 · 5,000 · 이중린 지음 · 불광출판사
불교신행공덕 · 5,000 · 마성 지음 · 불광출판사
마음공부 이야기 · 6,000 · 법상 지음 · 불광출판사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말씀 · 11,800 · 홍사성 · 불교시대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 10,000 · 홍사성 · 불교시대사
금강경(상성사성) · 10,000 · 무승택 · 불교시대사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법을 어떠알라 · 10,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한용운사전집 · 10,000 · 만해사상 · 불교시대사
깨침의말씀 깨침의 마음 · 15,000 · 지명스님 · 불교시대사
큰 죽음의 법신 · 15,000 · 지명스님 · 불교시대사
허공의 몸을 찾아서 · 15,000 · 지명스님 · 불교시대사
중돈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 10,000 · 김성철 · 불교시대사
집착을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10,000 · 일연학연구 · 불교시대사
백암록 · 10,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전수강과기도법 · 7,500 · 윤영해 · 불교시대사
한국불교기도성지 · 7,000 · 정성본외 · 불교시대사
자비명상 · 10,000 · 제프리솜킨스 · 불교시대사
무문관 · 12,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부처님생애 · 9,600 · 김정빈 · 솔바람
인물불교사 · 9,600 · 김정빈 · 솔바람
마음을밝혀주는60가지이야기 · 10,000 · 방경일 · 솔바람
선사들의살과깨달음 · 10,000 · 방경일 · 솔바람
만화백유경 · 10,000 · 김정열 · 솔바람
자비키의노래 · 10,000 · 김정열 · 솔바람
어린법석이야기 · 10,000 · 강병조 · 솔바람
하수와고수 · 10,000 · 강병조 · 솔바람
환희 · 11,000 · 정운 · 솔바람
떠남 · 11,000 · 정운 · 솔바람
구법 · 18,500 · 정운 · 솔바람
도를 찾아떠난고양이 · 12,000 · 양비브위넘 · 솔바람
마음밖을알기는사람 · 6,000 · 김정열 · 솔바람
행복해지는연습 · 9,800 · 초감드롭파 · 솔바람
복된삶을육한불교이기쁘침 · 25,000 · 하세가와마사토시 외 · 솔바람
스트레스에 나의 스승이다 · 11,000 · 김정호 글 총승우 그림 · 아름다운인연
산사의 아름다운 법상 · 9,800 · 이경애 글 해경 그림 · 아름다운인연
희엄경 목승 · 12,000 · 현서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초발심 자경문(강설) · 8,000 · 지묵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육조단경(강설) · 8,000 · 지묵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불영사경 · 20,000 · 고성호 역음 · 우리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 8,000 · 오은서원음/이중상그림 · 우리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눔 · 8,000 · 오은서원음/이중상그림 · 우리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눔 · 8,000 · 오은서원음/이중상그림 · 우리출판사
전통사찰음식 · 15,000 · 적운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눈으로 먹는 절음식 · 15,000 · 김연식 지음 · 우리출판사
녹차와 채식 · 15,000 · 홍승스님 · 우리출판사
절에서 배우는 불교 · 12,000 · 혜자스님 편저 · 우리출판사
불교를 알고 싶어요 · 10,000 · 돈관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항은 몸 태워 온 세상 향기롭네 · 10,000 · 야도화상 · 우리출판사
버리고 사는 마음이 부처입네 · 10,000 · 경허스님 · 우리출판사
인생은 한 토막 꿈이로다 · 10,000 · 원광법사 · 우리출판사
백년도 못사는데 무얼 그리 탐내는가 · 10,000 · 자장율사 · 우리출판사
걸림없이 살게나 물처럼 바람처럼 · 10,000 · 원효대사 · 우리출판사
마음을 바우시게 온갖 근심 사라지네 · 10,000 · 의상대사 · 우리출판사
지혜의 눈뜨면 행복이 열리거늘 · 10,000 · 보덕스님 · 우리출판사
부처되기 쉽다네 자비롭게 살게나 · 10,000 · 진각국사 · 우리출판사
그대 몸 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잡으시게 · 10,000 · 일연큰스님 · 우리출판사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네 · 10,000 · 원감국사 · 우리출판사
처한 삶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 · 10,000 · 경허큰스님 · 우리출판사
작은 솔씨가 푸른 소나무 되네 · 10,000 · 풍성큰스님 · 우리출판사
빈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네 · 10,000 · 영호큰스님 · 우리출판사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 · 10,000 · 만공큰스님 · 우리출판사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 가누나 · 10,000 · 한암큰스님 · 우리출판사
마지막 입는 옷엔 주머니가 없네 · 10,000 · 만암큰스님 · 우리출판사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 10,000 · 효봉큰스님 · 우리출판사
버솝도 재물도 몸일에 이솝일세 · 10,000 · 동산큰스님 · 우리출판사
영원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네 · 10,000 · 운허큰스님 · 우리출판사
물결속이 허허롭게 쫓누나 · 10,000 · 경봉큰스님 · 우리출판사
한 생각 돌리면 천하가 다 내 것일세 · 10,000 · 금오큰스님 · 우리출판사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 10,000 · 전강큰스님 · 우리출판사
도(道) 물을 것 없네 밥이나 가꾸게 · 10,000 · 고암큰스님 · 우리출판사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 10,000 · 청담큰스님 · 우리출판사
천지도 되지않고 원숭이도 지알라 · 10,000 · 석우대종사 · 우리출판사
삶을 원하기전 죽음을 기억하라 · 9,000 · 명닌저 지음 · 우리출판사
죽음을 준비합시다 · 8,000 · 한정스님 역음 · 우리출판사
화두 참선 · 13,000 · 이계묵 지음 · 우리출판사
장사는 법 99 · 8,000 · 최정희 지음 · 우리출판사
빔의 시대 · 9,000 · 일광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날마다 좋은 부처님말씀 · 12,000 · 홍사성 · 우리출판사
금강경과 함께 케어나기 · 12,000 · 석진오스님 · 우리출판사
불자독송집 · 5,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불자법요집 · 15,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법요집 · 7,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수행문답 · 17,000 · 법보신문사 · 운주사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 9,000 · 월호 · 운주사
바람 속 이야기 · 9,000 · 동학사 편집실 · 운주사
나, 비밀 간인가 첫을 간인가 · 23,000 · 권석만 외 · 운주사
왕생론주 강설 · 25,000 · 태원 · 운주사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18,000 · 정준영 외 · 운주사
백련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 15,000 · 선오 · 운주사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 15,000 · 김형중 · 운주사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9,000 · 월호 · 운주사
지장본서력경 · 10,000 · 김근중 · 운주사
복증산 · 15,000 · 혜원 · 운주사
산사에서 바우는 종장스님의 · 9,000 · 정관 · 운주사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 9,800 · 김광하 · 운주사
중국의 불교문화 · 17,000 · 지저삭 · 운주사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 10,000 · 최만희 · 운주사
아난존자의 깊기 1 · 28,000 · 범라 역 · 운주사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 9,800 · 인병직 · 운주사
서장 · 18,000 · 전재강 역 · 운주사
달마선 · 10,000 · 박건주 · 운주사
탱화 · 20,000 · 김의식 · 운주사
고려불화 · 20,000 · 김정희 · 운주사
대승선경 · 12,000 · 법성 역 · 운주사
인도철학사 · 12,000 · 이병욱 · 운주사
한국의 불교의례1 · 23,000 · 정각 · 운주사
불교무용 · 17,000 · 법현 · 운주사
우리말 법화경 사경 · 40,000 · 혜조 · 운주사
만화 부처님 전생 이야기 · 9,000 · 정우열 글, 그림 · 운주사
만화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7가지 · 9,000 · 정우열 글, 그림 · 운주사
솜추는 스님, 원효대사 · 9,800 · 정우열 글, 그림 · 운주사
불교철학의 역사 · 25,000 · 저자 D.J.칼루파하나/역자 김중욱 · 운주사
한글세대를 위한 지장경 · 7,000 · 조천순 · 운주사
한글세대를 위한 예불문 · 5,500 · 조천순 · 운주사
선학과 현학 · 12,000 · 김진무 역 · 운주사
천수경 사경 · 5,000 · 윤석우 · 운주사
능엄주 해의 · 15,000 · 전수태 · 운주사
염지일기 · 8,500 · 이현덕 · 운주사
노보살 일진행의 행복한 고행 · 9,800 · 일진행 · 운주사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 14,500 · 함덕 · 운주사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 9,500 · 지현 · 운주사
삼천불명호경 · 13,000 · 편집부 · 운주사
만불명호경 · 45,000 · 월운강수 · 운주사
암자를 찾아서 · 11,000 · 안직수 · 운주사
붓다의 나라 미얀마 · 10,000 · 김형규 · 운주사
단기출가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 · 8,000 · 인병직 · 운주사
우리말 법요집 · 10,000 · 동봉 · 운주사
한글세대를 위한 금강경 · 6,500 · 조천순 · 운주사
한글세대를 위한 백팔대참회문 · 5,500 · 조천순 · 운주사
금강경 사경 · 5,000 · 윤석우 · 운주사
관음경 사경 · 5,000 · 윤석우 · 운주사
화두 사경 · 12,000 · 이상미 · 운주사
아난존자의 깊기 2 · 28,000 · 범라 역 · 운주사
계율학개론 · 9,800 · 목정배 · 장경각
돈오입도오른준강설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돈황본 육조단경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신시선수시수 · 10,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마조록,백장록 · 8,0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1 · 18,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2 · 20,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무이스님의참선경어 · 8,9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백일법문(상)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백일법문(하)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본지풍광 · 10,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선심명종도가감설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영원한 자유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 10,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자기를 바로 봅시다 · 9,500 · 성철스님 · 장경각
탁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 8,500 · 탁낫한 · 장경각
영원한자유의길 · 5,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선은선이오 물은 물이로다 · 4,900 · 성철스님 · 장경각
해탈의 길 · 8,500 · 성철스님 · 장경각
탁낫한 스님의 금강경 · 8,500 · 탁낫한 · 장경각
산방야화 · 8,0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동아서화 · 8,0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나옹록 · 12,0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선림보훈 · 9,0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임제록,법안록 · 8,000 · 백련선서간행회 · 장경각
역사로 읽는 한국불교 · 10,000 · 김경집 · 정우서적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 9,000 · 계환 · 정우서적
화엄대예문 · 12,000 · 해월 · 정우서적
역주 치문경훈 · 30,000 · 일흡-무현 · 정우서적
붓다의 발자국 · 12,000 · 김미숙 · 정우서적
삶과 초월의 미학 · 12,000 · 최성규 · 정우서적
인도철학사상 · 8,000 · 이태승 · 정우서적
삶속에서 유식으로 · 7,000 · 정승석 · 정우서적
들뢰즈신학 · 7,000 · 이해승 · 정우서적
학술초청심자경문 · 7,000 · 임종 · 정우서적
계초심학인문 사로 읽기 · 5,000 · 김호성 · 정우서적
불교사상사 · 15,000 · 양해이난, 원필성 옮김 · 정우서적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 · 10,000 · 김호성 · 정우서적
육바라밀 · 5,000 · 권영택 · 정우서적
핵심 아함경 · 4,000 · 곽철환 · 정우서적
천수경 정근법 · 4,000 · 우천 법안 · 정우서적
자네 법은 억었는가:카톤 벽암록 · 8,000 · 배종훈 · 정우서적
한국불교원통사 · 15,000 · 정태혁 · 정우서적
우리 불학의 길 · 12,000 · 고영섭 · 정우서적
불교입문(개정판) · 7,000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의 이해와 신행 · 9,000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사의 이해 · 9,000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불교문화 · 9,000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포교이해론 · 15,000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예불문 · 6,000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 7,000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천수경 · 8,000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선심명 강의 · 9,000 ·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상묵스님의 금강경강의 · 15,000 · 상묵스님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 독송본 · 5,000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 주석본 · 9,000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 한글사경본 · 4,000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 한문사경본 · 4,000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 포켓용 · 3,000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조계종출판사
간화선 입문 · 8,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절수행 입문 · 6,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염불수행 입문 · 8,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진언 다라니 수행입문 · 8,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간경수행 입문 · 9,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간화선(개정판) · 17,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 14,800 · 광우스님 · 조계종출판사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12,000 · 목경찬 · 조계종출판사
그것만 내려 놓으라 · 9,800 · 지명스님 · 조계종출판사
그 마음을 가져 오너라 · 9,800 · 김서종 외 · 조계종출판사
지리산의 무속소 · 28,000 · 고선스님 · 조계종출판사
경허 · 만공의 선풍과 법맥 · 12,000 · 대한불교조계종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청소년불교입문 · 12,000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연구실 · 조계종출판사
금강경이야기 · 12,000 · 지안스님 · 클리어마인드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 12,000 · 김성우역음 · 클리어마인드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걸친다 · 13,000 · 영홍스님 · 클리어마인드
또 다른 이가 나를 날으리 · 10,000 · 박진여,최광식 · 클리어마인드
함허우드 붓다 · 10,000 · 성촌스님 · 클리어마인드
염불선 · 10,000 · 덕산스님 · 클리어마인드
돈오선 · 20,000 · 월암스님 · 클리어마인드
신심 · 10,000 · 혜인스님 · 클리어마인드
원력 · 10,000

유물로 본 스님의 수행·예술·철학

불교중앙博, 4월 29~7월 12일 '승보'展 개최


사인 스님 주성 동종(보물11~2호,직지성보박물관).


왼쪽부터 인각사출토유물, 금동사자진병향로, 청동은입사향완, 청동붕어형 삭도.

스님들의 다양한 일상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서울 견지동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 이하 박물관)은 4월 29일~7월 12일 특별전 '승보(僧寶)' 展을 개최한다. 박물관 개관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불·법·승 삼보(三寶) 특별전의 세 번째 특별전시다.

16나한도(보물 제1367호)를 비롯한 보물 11점을 포함해 총 158건 247점이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크게 △스님의 일생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스님 △구법과 호국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스님의 일생'은 출가부터 입적까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자로서 스님의 일생을 출가, 수행, 전법, 의례, 입적의 세부주제로 나눠 살펴본다. 출가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유물, <범망경>에 나오는 비구 18지물을 비롯해 수행의 모습을 담은 나한도, 불교의식구, 사리장엄구 등이 전시된다.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스님'은 불상과 보살상을 조각하는 조각장, 불교회화와 사경 등을 하는 화사, 범종과 금고 등을 만드는 주조장 등 예술가로서의 스님들을 집중 조명한다. 17세기에 조각장으로 활동한 현진·응원·혜희 스님의 불보살상과 사인·정우 스님의 범종, 18~20세기 불교회화의 대표자 의겸 스님을 비롯한 상겸·신겸·천여·철유 스님 등의 불화 등이 전시된다.

'구법과 호국'에서는 한국불교의 발전과 국가·민족의 안전을 위한 대승적인 노력을 펼친 스님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구법승들의 진영과 관련 유물, 서산대사와 사명 대사의 진영과 유물이 전시된다.

박물관 이용진 팀장(학예연구실)은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고승들이 배출됐고, 그들의 행적은 비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스님들의 출가에서 입적까지 스님들의 모습을 유물로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02)2011-1960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4월 24일 전시되는 관세음보살님 전통등.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강남 코엑스 광장에 관세음보살님 등을 밝힌다.

봉은사는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전통등 전시회와 함께 제3회 승과평장엄등 점등식을 4월 24일 오후 7시 코엑스앞 광장에서 갖는다. 점등식은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며, 점등식 이후에는 코엑스 일대에서 제등행렬을 갖는다.

봉은사 양재원 종무관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룬 옛 승과평자리인 코엑스 광장에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리란 서원을 세운 관세음보살님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해 등을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02)3218-4828

김성우 기자

80년 찬불가 역사 되짚어보는…

좋은풍경소리 '제3회 붓다콘서트'

촉촉한 봄비가 대지를 적신 날 찬불가가 불자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렸다.

좋은벗풍경소리(이사장 지현)는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3회 붓다콘서트'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좋은벗풍경소리 총재 지현 스님과 회장 성행 스님, 포교원 신도국장 정무 스님,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 등이 참석한 콘서트 1부에서는 1920년대부터 용성·퇴경·대은·운문 스님이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 청소년 포교의 일환으로 시작한 찬불가의 역사를 되짚어보았다. 2부에서는 14년 동안 사랑받은 찬불가를 한정일(테너), 박소림(소프라노) 등의 성악가와 정유탁(좋은벗풍경소리 작사 작곡가), 꼬마풍경어린이 등이 연주했다. 3부에서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공연과 특별 가수 임지훈 씨의 깜짝 공연으로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공연 문의: (02)723-9836

이상언 기자


김성로 작가의 2008년 작품 '인드라망'.

인간·자연·세상…

관계 그린 인드라망

안성 묵언마을, 4월 25일부터 김성로展

"'나'라는 독자적인 존재는 없다. 서로가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성적인 존재일 뿐이다. 하나의 그물코가 풀리면 전체의 그물코가 연쇄적으로 풀린다. 따라서 모두 평등한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모두 빛나는 존재이고,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김성로의 '인드라의 그물' 중에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소재한 묵언마을(주지 지개야)은 4월 25일~5월 24일 솔뫼 김성로展 '인드라의 그물에 대하여'를 연다.

전시회에는 김성로 작가의 '산다는게 무얼까?' '우리는 하나' '자유' '무념' '구도의 길' '나는 무엇인가?' '내속의 나' 등 연기법으로 세상사를 풀어낸 그림과 글 30여 점이 선보인다. 작가는 '만다라'와 '인드라망' 등의 작품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얽혀있는 상관관계에 양극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화합과 상생이 존재한다는 점을 독특한 분할구도를 통해 보여준다.

사람·산·강·나무·꽃·탑·목어 등을 상형문자 같이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의 그림은 자연과 전통, 현실과 미래, 이상과 의지, 개체의 공존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때문에 그의 그림에서는 절망과 죽음, 갈등과 단절, 불안 등 삶의 어두운 면이 광명과 희망으로 풀어져 나온다. (031)672-3108.

김성우 기자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동쪽나라 미르아이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봉축
부처님오신날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
초파일 법회 안내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문
일시 : 2009년 5월 2일(음 4월 초파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제 정맥선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2 번지
전화 : 031-531-8805 / 011-9885-8805
교통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참조
국제 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4 밥은 상부상조

어느 주당의 '황태탕 강좌'

종로3가 후미진 골목 한 귀퉁이에는 제일까페라는 '정체불명의' 가게가 있다. 정체불명이라는 수식이 붙는 데에는 그곳이 장사 터라기보단 인생 황혼들의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추억을 곱씹으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바둑이나 장기삼매경에 빠져 장군이요 멍군이요 목청 높여 외쳐대는 손님들 대다수의 평균연령대는 60~70대. 그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왕년에 한가락 했다는 작곡가나 시인, 기자 등의 문인과 화가들이다.

오늘은 한때 불교매체를 주름잡았더라는 양국장님의 질펀한 수다로 텅 빈 가게 안이 요란하다. 애지간이 술발을 받은 모양이다.

"자 들어봐. 여기에 황태탕 전문집을 내는 거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테니 잘 배워두라고. 일단 을지로에 가면 황태머리하고 껍데기만 파는 집이 있는데 그걸 사다 밤새 고와. 껍데기가 제일 약이 되면서 싸니까 국물은 그렇게 내라고. 황태는 펴서 나온 놈은 비싸기만 하지 못써. 그러니까 통으로 된 놈을 사다 잘 펴서 끓는 물에 20분만 넣었다 꺼내놓는 거야."

양국장님의 목청은 천장을 뚫고나갈 듯 쩌렁쩌렁해지고, 가게 쥔장인 박언니의 귀는 쫑긋해 그만한 모범생이 없다. 양국장님의 황태탕 강좌는 계속 이어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런 다음 두부를 널찍널찍하게 썰어 슬쩍 데워놔. 그래가지고 넓은 그릇에 황태 썰어놓은 놈을 두 토막이든 세 토막을 넣고 우린 국물을 부어. 거기에 뭐를 곁들이냐 하면, 새우젓하고 김치, 고춧가루, 또 고추장아찌를 고춧가루에 무쳐 내놔. 그러면 최고지 최고."

술꾼들이 인정하는 황태국의 진국은 그 빛깔이 그냥 뽀얀 것도 아니고 노리끼리하게 뽀얗다는 게 양국장님의 추가해설이다. 양국장님의 황태탕 사랑은 실로 극진해, 일상에서 거의 보약으로 '복용'하는 수준이란다. 숙취뿐 아니라 약의 독성을 해독하는데도 효험이 뛰어나 평소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옛날에 연탄 떼던 시절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사람도 황태 다섯 마리를 고아갖고 한 대접만 먹이면 뇌가 살아났어. 우리 마누라가 감기가 왔다고 하면 나는 황태를 사다 푹 고잖아. 그 국물에 소금 타서 한 대접만 마시면 바로 낳는다니까."

양국장님의 황태탕 복용법은 이러하다. 일단 들통에 통으로 된 황태 두세 마리를 토막 내 들기름에 볶다가 탈만하면 물을 부어 끓인다. 은근한 불에 6시간을 끓여 국물이 노리끼리하면서 뽀얗게 우러나면 소금으로 간해 마시면 된다. 황태탕의 복용비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차 비법이야말로 실로 기찬 전략이 아닐 수 없으니, 그 과정으로 탄생된 것이 일명 '황태된장국'이라는 것이다.



숙취와 약 독성 해독에 좋은 황태탕.

"국물을 다 마시고나면 황태찌꺼기가 남을 거 아냐. 6시간을 고왔으니 건더기가 흐물흐물하겠지. 생선머리에 박혀있는 뼈나 눈알까지 녹아버릴 정도야. 그걸 으깨어 거기에 무랑 양파 좀 자잘하게 썰어 넣고 된장 좀 넣고 자박자박하게 지지면 그 맛이 더 죽여."

양국장님이 그토록 황태탕 타령을 하는 데에는 사연이 있으니, 한창 펜발을 날리던 젊은 시절 회사가 자리 잡고 있던 종로는 양국장님에게 제2의 고향이 됐다. 도시 한복판의 변화는 더욱이 무쌍해 이젠 황태탕을 제대로 끓여내는 집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주당인 그에게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황태탕 가게는 불황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박언니의 근심에도 해갈이 돼줄 묘안이기도 하니, 실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장님, 황태가 북어를 말하는 건가요?"

"이런, 황태와 북어는 엄연히 다르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자, 잘 들어보라고…"

강의에 앞서 학생의 수준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인 것을, 박언니의 초급질문에 이야기는 황태탕의 재료인 황태 강좌로 넘어간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0 첫인상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인생의 성패 좌우하는 후광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광효과(Halo Effect)란?

흔히 첫인상이 안좋았던 사람은 끝도 안좋다고 얘기한다. 첫인상을 좋게 어필하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 즉 첫인상의 제약과 영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요새는 면접을 앞두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에서는 많은 후광효과가 작용하게 된다. 후광효과(Halo Effect)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뛰어난 한두 가지의 특징적 장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나머지 점들도 모두 좋아 보이고, 반대로 나쁜 특징이 있으면 나머지 모두 안좋아 보이는 것을 말 한다.

#후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표정과 목소리톤에 신경 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나 표정과 목소리톤에 신경 쓴다. 경쾌해 보이고 밝아보이는 표정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모습까지 즐겁고 행복하리란 이미지를 준다. 사람의 심리상 힘들고 불행한 사람 옆에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음 목소리톤인데,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해박하지도 않지만 목소리톤이 침착하고 요목조목 조리 있는 말투를 쓰는 사람을 접하다보면 왠지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말이 다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단연코 깔끔하고 청결해야만 한다.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옷에 비듬이 떨어져 있거나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 있다든지, 청결치 못한 인상은 최악의 이미지 중 하나다. 특히 타인과 처음으로 만나는 첫 대면시에는 그 전에 잠깐이라도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와 얼굴, 코털, 귓밥, 잇속, 구취 등을 체크한다.

3. 너무 새것의 이미지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친근하고 익숙한 이미지로 어필한다.

막 사 입은듯한 새 옷이나 새 구두는 상대로 하여금 불편하고 어색한 마음이 들게끔 한다. 첫대면은 안그래도 어색하고 긴장되고 불편한 자리이기 마련이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상대를 배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새것들로 단장하게 되면 왠지 모를 거북함과 반발심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오히려 익숙해질 정도로 입고 신은 아이템들의 착용이 상대로 하여금 편안하고 친근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요령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의 향기를 쌓는 것이 중요!

첫인상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게하면 나의 후광효과는 가장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관계가 즐거워진다면 성격이나 능력 등을 제대로 인정받게 되고,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바로 후광효과를 최대로 높인 첫인상에서 결정 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향기인 것은 물론이다. 불초이자래(不招而自來)라고 했다. 즉 향기를 풍기면 초대하지 않아도 벌과 나비는 스스로 찾아온다.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높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갖춘 자연스런 내성을 겸비한다면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멋진 인간관계를 운영하며 인생의 탄탄대로를 가게 되지 않을까.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26 끝



침향은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품목

베트남 시중에 진품염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약성등급 침향의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염주를 가공하면서 나오는 유실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필자도 이러한 1~6등급의 염주를 주문받아서 제작해보면 통상 염주알의 2~4배의 침향을 희생해야만 염주로 가공이 되는데 그 구하기 어려운 침향의 유실량을 포기하면서 염주로 가공해 시중에 내다팔 상인은 없다. 세 번째 이유는 가공을 했다 해도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약성이 강한 최고 등급 염주의 가격은 그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몇 천 불에서 몇 만 불을 들여야만 제작할 수 있다. 그러한 염주를 등급 자체를 고시조차 하지 않아 불신감이 상당한 그들의 시장특성을 감안할 때 그만한 자금을 묶어놓으면서 가공해 진열해 놓을 상인이 과연 있겠느냐는 점이다.

적절한 경비내의 범위에서 침향 제품을 조금 구해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단시간내에 구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약성등급의 염주를 고집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 침향시장이다. 이런 저런 이유가 아니래도 어쨌든 필자가 베트남을 드나든 20여 년 동안 그런 진품 염주를 제작해놓고 파는 경우는 단 한 점도 못 보았기에 이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그리고 침향구입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침향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의 근간은 일명 워싱턴조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인 CITES 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점차 남획으로 멸종돼가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1973년도에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이 조약에 가입하고 1993년 10월부터 이 조약을 발효하게 된다. 이 조약은 3개의 부속서로 구분되는데 부속서1에는 국가간 전면 이동을 금지한 동식물이 게재돼 있다. 여기에는 한약재로 널리 알려진 서각이라고 하는 코뿔소 뿔 등이 포함 된다.

침향은 이 조약의 부속서 1.2에 게재돼 있으며 수출입시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돼있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침향을 수입 전면금지 품목이니 그래서 구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연산 침향에 한해서는 제약이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향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런 오해로 인해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침향을 구해오실 때 세관을 통과하면서 괜스레 가슴을 조린 분들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소한 일이 있다. 그러나 관광가에서 구한 침향이라면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침향등급을 고시하지 않는 베트남 시장에서 구한 침향 물품은 거의 세관과는 상관없는 기념품이기 때문이다.

(02)3663-6777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4

우리의 섭생은 어떠한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삼쾌(三快)한 삶을 살아야한다고 한다. 삼쾌는 잘 먹고(快食), 잘 싸고(快便), 잘 자는(快眠)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삼쾌의 먹는 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섭생은 어떠한가?

칼로리의 균형 즉, 과하거나 덜하지 않게 먹는 섭생은 외국에서 들어와 최근까지 매우 정설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은 단순히 연료를 주입해서 그것을 태워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닌데 단지 하루 필요 칼로리(열량)만을 계산해서 먹어도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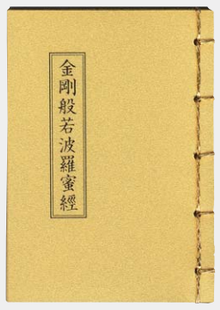
통계에 따르면 직업별 평균 수명 중 제일 짧은 직업군이 의사라고 한다. 반면 제일 장수를 누리는 직업은 바로 스님들이라고 한다. 이 통계를 접한 민간건강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열량(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건강은 열량만을 위주로 섭생했을 때 균형이 깨어진다는 우려였다.

공부를 많이 하고 칼로리(열량)의 밸런스를 맞춰서 식단을 짜는 병원 식사를 접하는 의사들의 수명은 왜 이렇게 짧은 걸까? 반면 산속에서 하루 필요 칼로리(열량)의 절반도 섭취하지 않는 채식만을 추구하는 스님들은 왜 장수 하게 될까?

현대의 식생활은 특정 성분 · 영양소를 논한다. 하지만 전체의 식품 중 특정부분만을 꺼내서 섭취하는 것은 약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민간연구자들은 대자연이 특정성분이 담겨져 있는 곳에서 그 성분을 보조하고 상승시키고 또는 중화시키는 물질을 모두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대적 치료법들은 대자연이 준 것 중 특정부분만을 추출해 섭취하는 것을 지향해 발전했다. 민간요법자들은 특정 부분을 취하지 말고 전체를 모두 취하는 섭생(一物全體食)을 하도록 권한다. 태삼(太蔘) 천년초는 전체를 취할 수 있고 그에 더해 인체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다. 뿌리, 줄기,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으며 그 속내에서는 아직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성분들이 풍부히 들어 있다. 항암에 뛰어난 페놀성 물질과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대량의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슘과 각종 무기질, 아미노산과 복합 다당류까지 인체에 필수적 성분이 넘쳐난다. 위의 성분만으로도 항산화, 노화방지의 삼(蔘)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천년초를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알고 활용할 수 있었을까 매우 신비롭기만 하다.

(02)780-0098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발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 감정 위주로 속성 개인지도
빙의 퇴마법 속성 개인지도
010-7443-3060
(도통 합장)

전통 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각정 제의식)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 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전통 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예수재,천도재)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 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귀신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빙의,영적장애,정신질환,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알콜중독,우울증,두통,불치병,수술 전후관리

※특별한 우주氣 치유로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신비의 게르마늄 팩
(노벨상 2회 수상)
탁월한 피부 미백, 매끈하고 보드라운 피부 잔주름, 기미, 칙칙한 피부 노화방지 100mg 2만
오사카대학공학박사(다까마스세이지)인정
(주)리코포오래이숀
농협 187-02-274348 이양희
주문 010-2414-4984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수맥, 지전류 차단
지박령, 빙의, 조상천도
태, 태아, 태아령 천도
상담무료
010-7588-4504
표심스님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50대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8537-0108

조계종 고찰에 산자수려하고 조용한 정진도량에 내집처럼할 신심있고 후원살림을 맡아볼 40~50대의 공양주구함
그리고 출가할 보살님도 환영함
▷경북 내원암 지장보궁
054)653-1180
010-6353-1180

기도정진할
법당 원주보살님과
신도포교할 수 있는
보살을 모십니다
▷수원
010-9336-25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내집처럼 아무 부담없이
오직 기도,정진하며
욕심을 버리고 평생을 보낼
비구대덕스님을 찾습니다
(법납 20년.연령 60세이상)
016-466-2470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696-8500

미국 LA에서
수행하실 스님
모십니다
(비자 있으신 분)
042)282-9270

되는 이는 물에빠졌다 나와도 이 주머니에는 잉어가, 저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될때는 뭘해도 되고, 안될때는 뭘해도 안돼... 사주를 보아 원인과 때를 알고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여...
영축산 토방에서 무불 합장
011-854-8107
(예약상담)

도량 운영을 믿고 맡겨주실분과 도량을 성실하게 운영하실 청정 비구비구니 인연 기다립니다
노스님과 노보살님들을 돕고 건강도 챙겨드립니다
물론 당신도 돕겠습니다
아픔다운인연 나누는 기쁨 **수 월 관 음 회** 010-2446-2626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귀의 삼보하옵고 비구비구니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보면 벌 것 아니다
● 교재 : A4용지 인쇄분 - 각1시간강의(체험1시간). 본 강의 들으시고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전생요법, 빙의치유법 체면학,참으로쉽다
2.신병에 침 놓는 곳 삼혼칠백의 작용법 건강과학,과학적 기공학
3.통술학,불력전생격국법. 심식법,약손마드법 7일 도인비결법(직관법)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하 법향사 內
※(침) 특수혈 활용비법 (철학박사, 한의학박사, 설산당특별강의)
사총혈,사회혈,팔회혈,요혈,경험혈,육부하합혈,팔맥조화혈,오수혈을 쉽게 외울 수 있다.
*** 인연있는 승려들이여 이강의를 꼭 들으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총본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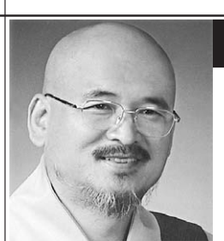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5/21(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4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現. 大學院碩士課程在學中. 국가공인한자1급. 試驗監督委員.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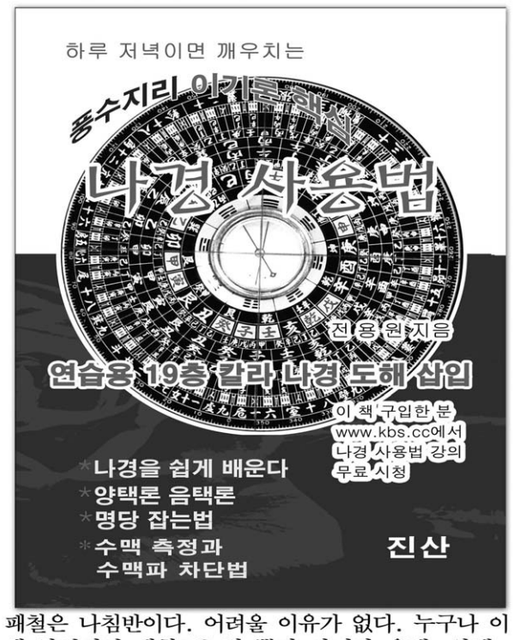
불교 영상의 모든것
www.불영.kr
프로그램 구입 · 홍보영상 제작
문의전화 02)2236-7208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패철 보는 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빙의 (귀신들린병)
퇴마. 사주. 작명.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 전생요법. 우울증. 심리불안. 공황장애. 결벽증. 불면증. 다이어트. 금연.

공포증 (대인공포, 폐쇠공포, 고소공포, 남자공포, 여자공포, 물공포, 불공포)
학생상담 (집중력, 시험불안, 발표불안, 인터넷중독, 습관변화, 자신감고취)

빙의상담! 헛소리를 하십니까? 무슨소리가 들립니까? 잡것이 보입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역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위치 : 강릉지역	●위치 : 경기	●위치 : 부산
●법당 : 25평(목조)	●법당 : 25평외50	●법당 : 50평
●요사 : 60평	●요사 : 200평	●요사 : 100평
●부지 : 270평	●부지 : 800평	●부지 : 135평
●가액 : 4억	●가액 : 35억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전통사찰
- 부지 총평수 : 6천평
- 건물 : 7동, 전통 목조기와 법당(5포 7포)
- 지장전 15평(목조), 공양간 50평, 요사채
- 위치 : 부산에서 30분 거리
- 산세 최고(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따뜻한 남향
- 텃밭(공터) : 2,000평, 주차장(버스) 100대 주차가능
- 양도가액 : 15억(40억 불사)

부산 해운대 동백섬
- 대지 : 11,000평
- 건물 : 2동 , 법당 40평(현대식)
- 해운대 해수욕장, 누리마루, 벡스코
- 도량 뒤로 산, 남쪽바다 조양권 양호
- 주변 토지가격 평당 300만원
- 양도가액 : 22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96평, 건물 200평
- 도심 현대식 4층 건물
- 가액 : 10억
  (은행 3억 융자 7억 인수 가능)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부근(구미 근교)
- 건물(임법당)
- 전세 3,500만원
- 절도량 3,000평

010-2419-838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부원동
- 평수 60평,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618-76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중심가 지하철 3분거리
- 평수 : 약 65평
- 보증금 2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51)255-7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70평
- 법당1, 공양간, 방 3칸
- 전체도시가스, 전기승압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최고시설. 꼭필요한분만연락바람

010-7112-1823
032)612-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 중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 천수관음 4자 외 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옆산, 옆계곡, 법당, 요사채, 마당잔디, 텃밭, 각종유실수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350만원
  일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2억5천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 가액 : 2천 5백만원

010-2047-8376
010-9247-24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1-9765-53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 방2, 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 2분거리)
- 한옥주택(총50평)
- 방2, 주방, 욕실,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2717-8088

토굴및불자수련원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토지 : 3000평, 건물주택 70평 통나무집 10평, 차고 20평 창고 10평
- 외형 : ①반월지(명당터로써 참선수행의 최적입니다) ②교통편리하며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 ③토지분할가능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66-2296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 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 30평)창고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 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 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 :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 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사찰암자안내

- 전북 장수 장안산 덕산계곡 상류 해발 800m 위치
- 사찰이나 암자 최적지 (최고 명당터)
- 전체면적 523평
  목조 건물 24평 1동
  목조부속건물 20평 1동
- 가액 : 3억

011-644-256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단청필 총 17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시설깨끗하고 좋음

010-6298-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태평로 (지하철1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스님 공부관계로 급 양도

010-5075-114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김해시 삼방동
- 평수. 53평(2층) 위치 양호함
- 법당.삼존불 소불200불 등삼백
- 보증금 500만 월 40만 합 이천만원

010-9395-9397
055)337-939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도심부근 개인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강원도청 부근)
- 대지 : 85평, 법당 10평
  요사 20평(방2, 샤워실)
  법당 뒤 야산
- 아미타 삼존불,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8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없음
- 관리 잘해 주실분, 몸만오실분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11-9116-511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1(법당) 외 큰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부원동
- 평수 60평,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618-767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 중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 천수관음 4자 외 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 2분거리)
- 한옥주택(총50평)
- 방2, 주방, 욕실,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2717-808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태평로 (지하철1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스님 공부관계로 급 양도

010-5075-114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김해시 삼방동
- 평수. 53평(2층) 위치 양호함
- 법당.삼존불 소불200불 등삼백
- 보증금 500만 월 40만 합 이천만원

010-9395-9397
055)337-9397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1(법당) 외 큰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군주전제통치 실현 위해 유교 신봉 · 불교 통제

<32> 양송(兩宋) 군주들의 불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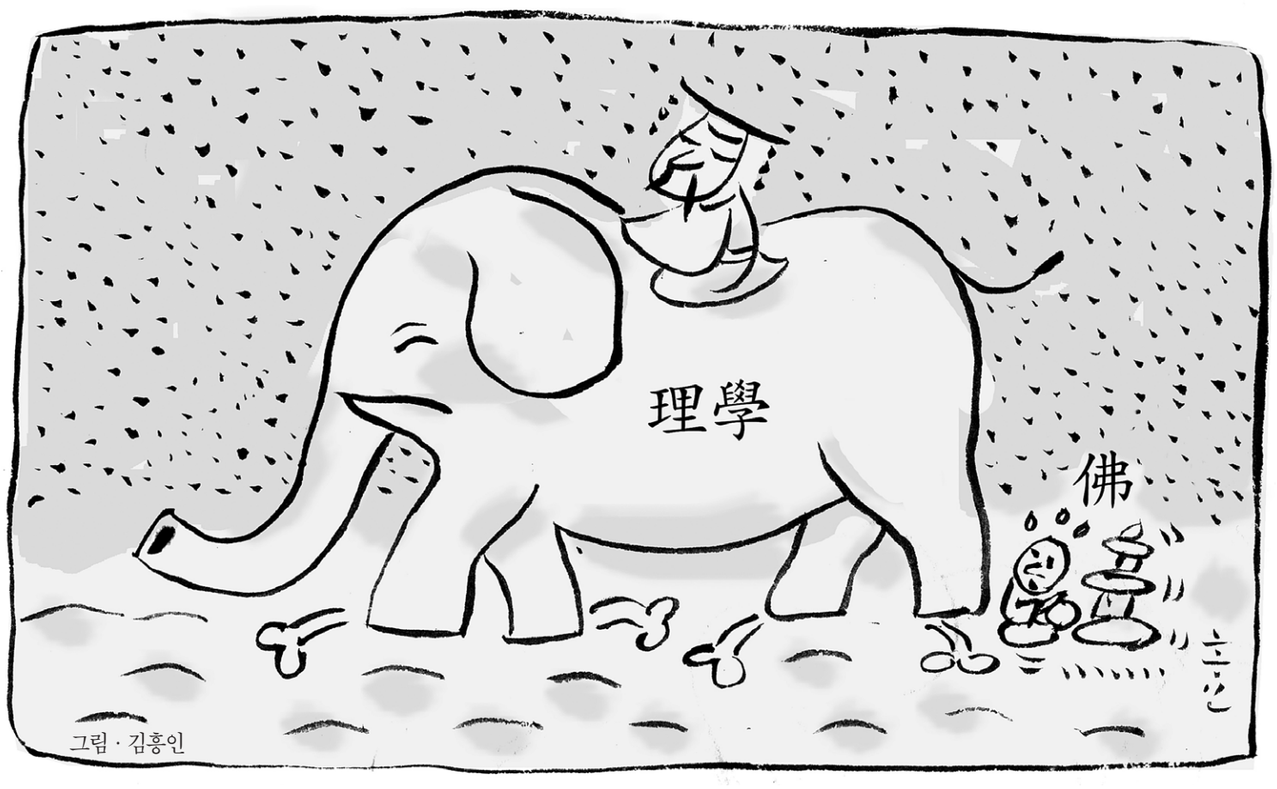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송대 320년 큰 전란 없이 존속기간 가장 긴 왕조

태조 폐불령 해제 · 사찰 중수… 진종 '숭석론' 찬술

오대(五代) 말년 후주(後周) 세종(世宗)은 폐불(廢佛)을 단행하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방의 계단(契丹)을 정벌하러 출전했다가 세종은 중병에 걸렸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959). 그 다음해 병마절도사였던 조광윤(趙匡胤)이 정변을 일으켜 송(宋)왕조를 세웠다.

송의 태조(太祖)가 된 조광윤은 뛰어난 외교술과 스스로 유가(儒家)의 원칙대로 모범을 보여 남방의 십국을 모두 통합해 중국을 통일시켰다. 그 후 1127년 여진족이 세운 금(金)나라가 북방을 점령하게 되자 고종(高宗)은 수도를 임안(臨安; 지금의 杭州)으로 옮겨 남방만을 지배하게 됐다. 따라서 사가(史家)들은 이를 구분해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으로 구분하고, 그를 통칭해 양송(兩宋)으로 칭한다.

양송은 비록 북방을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정복당했지만, 1279년에 원(元)나라에 멸망하기까지 320년에 달하는 중국에서 가장 존속기간이 길었던 왕조이다. 더욱이 전체적인 양송의 역사는 역대 중국 왕조의 통치에 비해 큰 전란도 없이 정치 ·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다. 이는 중국의 종교와 철학, 예술 등의 방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송을 건국한 태조는 역사의 교훈, 특히 당의 멸망과 오대의 왕조교체를 통해 군사력과 행정력을 모두 장악한 지방의 번진(藩鎭; 절도사)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 · 경제 · 정치적 권한을 군주에게 집중시키는 군주전제통치를 실현시켰다. 이러한 태조의 통치는 불교에 대한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송 태조는 즉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후주 세종이 현덕(顯德)년간(954~959)에 내린 폐불령(廢佛令)을 해제시켰고 동시에 어린 행자 8000명을 출가시켰다. 사실상 이러한 조치는 바로 불교신앙이 강한 남방의 오월(吳越) 등의 십국을 귀순케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건덕(乾德) 3년(965) 창주(滄州)의 도원(道圓) 스님이 18여 년 동안 오천축(五天竺)을 거쳐 우전국(于闐國; 현재 호탄(Khotan) 지역)의 사신과 함께 수도인 변경(汴京; 지금의 開封)에 도착해 태조를 알현해 서역의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그 다음해 태조는 행근(行勤) 스님 등 157인을 서역에 파견하며 "각각 3만 전(錢)을 하사했다"고 전한다(<송사(宋史)> 권2 <태조본기(太祖本紀)>). 이를 통해 대량의 서역 경전이 북송에 유입됐다. 개보(開寶) 4년(971) 태조는 칙령을 내려 <대장경>을 판각하라고 했다. 이는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됐다.(<불조통기> 권43) 이를 <개보장(開寶藏)> <북송칙판대장경(北宋敕版大藏經)> <칙판(敕版)> 등의 명칭으로 칭하는데,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최초의 목판(木板)으로 만든 <대장경>이다. 이외에 태조는 세종의 폐불로 손상된 몇몇 사찰들에 대해 중수(重修)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태조를 이은 태종(太宗)은 태평흥국 5년(980), 중천축(中天竺)의 승려 법천(法天), 천식재(天息災), 시호(施護) 등이 범본(梵本)의 경전들을 가져오자 조정에 역경원(譯經院)을 설립하고, 관에서 관리해 역경하게 했다. 8년(983) 태종은 새롭게 번역된 경전을 대신들에게 전시하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양씨(양무제)가 사신(捨身)해 사노(寺奴)가 되고, 사문의 법도를 실천하라고 조칙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크게 미혹된 것으로, 짐은 이를 취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했다.(<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이러한 입장에서 태종은 한 편으로는 10여 만의 승니(僧尼)의 출가를 허용하고, 엄청난 재물을 들여 사찰을 보수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니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조칙을 내렸다.(<불조역대통재> 권18)

이와 같은 북송 태조와 태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사실상 북조(北朝)로부터 오대로 이어지는 북방의 정책이다. 이른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 모두 북방에서 발생했음을 상기한다면 더욱 분명하다.

그러나 양송의 군주들은 '폐불'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태조의 "도교와 불교의 두 가르침은 모두 세상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미혹해 한 쪽에 치우쳐 종종 서로를 헐뜯어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있다. 만약 승려와 도사가 때에 따라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어찌 그 가르침을 폐하겠는가?(<속자치통감장편> 권36)"라는 말로부터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태조는 '삼무일종' 법난의 역사를 통해서 '폐불'이 실제적으로 통치자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세종의 폐불을 친히 목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했던 불교인들의 다양한 반향들을 몸소 겪으면서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조치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만을 낳는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철저히 유가를 신봉하면서도 불교에 대해 적당한 회복과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태조와 태종의 불교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인 양송의 불교정책이었다. 역대의 군주들이 혹은 친불교적이고, 혹은 친도교적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유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진종(眞宗)은 불교를 숭상한다는 의미인 <숭석론(崇釋論)>을 찬술하는데, 그 가운데 기본적인 인식은 바로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이 "자취는 다르지만 그 도는 같다[迹異而道同]"는 것이었으며, 그 종지(宗旨)는 모두 "사람들에게 선(善)을 권하고, 사람이 악함을 금지함"이라고 보았다. 또한 "불살생은 바로 인(仁)이요, 도둑질하지 않음[不盜]은 바로 청렴함[廉]이고, 미혹하지 않음[不惑]은 바로 신(信)이며, 망령되지 않음[不妄]은 바로 정(正)이고, 취하지 않음[不醉]은 바로 엄숙함[莊]이다"라고 논한다(<불조통기> 권44). 이로부터 보자면, 불교는 유가와 함께 사회의 교화에 뛰어난 공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진종은 사찰의 불상이나 금보(金寶)의 훼손을 금지하는 조칙을 내리고, 역경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당 무종의 회창법난 시기에 훼손된 용문석굴(龍門石窟)을 복원하자는 상소에 명확하게 거절을 하며 "나라를 운용함에는 법도가 있어야 하는데, 외교(外敎)를 받들고자 한다면 백성의 노고와 재물의 낭비가 지나칠까 두렵구나(<자치통감장편> 권65)"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양송 군주의 불교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仁宗)은 특히 선학(禪學)에 이해가 깊었다. 부마도위(駙馬都尉) 이준욱(李遵勗)이 편찬한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의 서문(序文)을 쓰면서 곳곳에 불교에 대한 '외호(外護)'를 표현했다. 그러나 당시 승려수가 급증하자 장동(張洞)이 "지금 사부(祠部)의 장부에 기록된 승려수가 30여 만에 이르니, 승려수를 줄여 그 폐단을 막게 하라"는 상소를 올리자 조정은 "전체 승려의 수에서 삼분의 일을 감하라"는 조칙을 내렸다.(<송사(宋史)> 권299) 이로부터 비록 깊이 불법을 이해하는 군주라도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송에 이르러서도 군주들은 기본적으로 북송의 불교정책을 따랐다. 특히 남송의 수도 임안은 바로 십국 가운데 가장 불교를 신앙했던 오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군주들은 불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과의 화해가 이루어져 다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자 남송의 군주 가운데 불교에 귀의하는 황제들이 출현했다. 그 가운데 효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효종은 특히 간화선(看話禪)의 제창으로 유명한 종고(宗杲) 선사에게 내도감(內都監) 황언(黃彦)을 파견해 종고 선사에게 "반야를 선양하라"고 명령했으며, 또한 오백나한(五百羅漢)을 공양해 '묘희암(妙喜庵)'의 세 자와 진찬(眞贊)을 내렸다. 후에 다시 '대혜(大慧)'의 호를 내렸으며, 선사가 입적하자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보각(寶覺)'의 시호와 '보광(寶光)'의 탑호를 하사했다.

송대의 황제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군주전제통치를 실현하려 했고, 그를 이론적으로 지지해주는 유교를 신봉했다. 또한 북조와 오대로 이어지는 정책을 채택해 불교를 철저한 통제에 두고자 했다. 이 상황은 비록 양송시기에 이른바 '선학의 황금시대'라고 칭할 만큼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조사선(祖師禪)이 번창했지만, 결국 불교는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학(理學)'에 그 주도권을 내주고 점차 쇠퇴하게 됐다. 이는 황권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봉건전제체제에서 불가피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도 중국 거사불교의 한 면모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 정보

728호 |

TEL 02) 2004-8214(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자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 안양지역
● 평수 : 76평. 방4개 공양간, 샤워실, 회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잠정3동
● 평수 50평, 방2칸, 공양간 별도 삼존불, 인등, 영가단
● 가격 : 전세 3,000만원, 월 1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가능
010-9809-5006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전남 벌교읍
● 대지 120평
● 기와집,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비
● 가액 : 2천5백만원
010-3541-2314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 16평
● 방1, 삼존불, 탱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10-8795-2832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 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옛 한옥 50평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및 삭월세 800만원 시설비 500만원 (건강상 급안내)
010-5886-308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법당 30평) 방2, 주지실, 삼존동불
● 시설안내, 즉시 법회가능 (유학준비 관계상 급 안내)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 시설비 3천만원
010-8897-67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가능
● 약쑥, 뜸방, 벌침교실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 관리지도함)
053)326-0806
010-6592-0808

포교원 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A급) 시설비 2300만원
010-2208-4899
053)552-6487

부자가 되는 명당
● 땅 :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 팬션,기도원,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010-8992-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전에서 도보로 10분 시장 5분거리. 상가 3층 중 3층
● 약 30평,방3개, 화장실겸욕실, 옥상사용 즉시법회가능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630-3579

임법당 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 1층 단독주택 약40평
● 법당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 산신 용왕탱, 지장보살 후불108불,큰방2개, 화장실2개,거실,주방,10여개 주차공간, 불사관계로 양도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33)661-2915
011-402-16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총평수 :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산신포함 약 100평
※현재 공시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칠곡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실평수 : 60평, 3층 내 법당30평 기타 30평
● 침구치료, 왕쑥뜸방, 벌침교실, 기치료실 주불, 약사불, 지장불,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소불 108불 조성(최고의 시설)
●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5,000만원
● 천도재 및 법회 외 월 고정수입 500만원
● 양명줄이 있는 스님이나 불보살 불자분에 한하여 인수한 분에게 치료하는 법을 전수해 줍니다
010-6592-0808

눈 앞의 꽃 소식 알면 비로자나는 문 밖의 손님



⑪ 전등사, 어느 500년에 살고 있나?



전등사 부도밭 전경. 작은 사진은 용의 발이 강조된 서운 스님의 부도 탑신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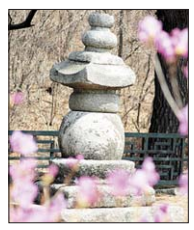
서운 스님 부도 높은 기단 위 섬세한 조각 일품

발톱 날카롭게 치켜세운 용 조각 독특… 말세중생 향한 엄중한 '경고'인 듯

아도 화상 머물던 '최초의 절' 자세한 기록은 없어



김포 문수사 풍담 대사 부도.



정수사 함허득통 스님 부도.

강화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가장 뜨겁게 뭉쳐진 곳이면서 긴 세월 침탈의 고난을 견뎌 온 섬입니다. 지금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건너다니므로 섬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지만, 강화도는 분명한 섬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도 가깝고 조선의 한양과도 가까워 전란을 맞은 왕들의 '피난 제일번지'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침탈사가 바로 강화도의 침탈사이고 강화도의 생명력이 한반도의 생명력입니다.

고려 때는 몽고군의 말발굽이,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의 칼날이, 그리고 조선말에는 서양열국들의 전함과 함포가 노리고 또 노렸던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한반도의 혼곤한 역사를 켜켜이 간직한 섬, 강화도 가는 길에서는 오늘도 해병부대와 초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국방의 자주적 역량이 무너진 고초를 너무나 빈번하게 짊어졌던 나라, 그 한 귀퉁이에서 가장 서러웠고 고통스러웠던 섬이기에 강화도 가는 길에서 만나는 부대와 초소들은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침 강 건너 북쪽 땅에서는 로켓 발사를 두고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혼란스러운 봄날입니다.

절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강화도 하면 전등사(傳燈寺)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전등사 말고도 많은 절이 있지만, 강화도를 대표하는 절은 전등사입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역사와 궤를 함께 합니다.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공식적으로 따지면 소수림왕 2년(372년) 아도화상이 경상도의 일선(一善, 지금의 선산)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이전에 전등사를 개산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절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였다는데 전등사에는 고려 중기 이전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 확실한 내막을 알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란을 피해 달려 온 왕들의 행차와 나라의 문서를 보관하는 사고(史庫)의 건립 등으로 왕궁과도 같은 격을 유지하면서 국왕에서 민초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는 의지처의 역할을 해 온 절이 전등사입니다.

봄 햇살은 묘합니다. 만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면서도 뭇 생명들을 가물가물한 갈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남김없이 꽃은 피어 아름다운데 종일 희뿌연 안개가 먼 산을 감싸고 있어 눈앞의 풍경들만 보게 합니다. 너무 먼 곳의 꽃에까지 눈길이 닿으면 병이라도 날까봐 몽롱한 햇살로 천지를 바싹바싹 마르게 만드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마른 몸과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붙으면, 화르르 화르르 서럽게 타오르고 말 것 같은 그런 사월의 어느 하루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에 이릅니다.

정족산성 남문으로 들어서니 환하게 불을 밝힌 매화나무 대여섯 그루가 짙은 향기로 길을 막아섭니다. '아이쿠,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진한 매화 향기에는 딱 한번만 코를 갖다 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향기를 탐내다가는 취재고 뭐고 집어치우고 인삼막걸리 통에나 빠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불처럼 타오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쩝.

정족산성 성벽들이 능선을 향해 고즈넉한 길을 열고 손짓을 합니다. 아름드리 굽은 소나무들이 길을 안내하느라 보기 좋게 서 있고 그 옆으로는 무더기무더기 진달래가 산비둘기 울음소리를 받아먹느라 붉은 입술을 달싹입니다. 그렇게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 선 듯 착각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왼쪽을 바라보니 부도밭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네 귀에 앙증맞은 용두가 새겨진 돌다리를 건너 부도밭 가는 길 옆 군데군데에 붉은 치마저고리를 해 입은 누님처럼 진달래 무더기들이 서 있습니다.

전등사 부도밭은 단정합니다. 한반도에 처음 부처님 법이 들어오던 즈음에 이미 불연(佛緣)의 씨앗이 싹을 틔웠건만, 숱한 고난의 역사를 견뎌내느라 거쳐 간 고승대덕들의 영골을 모시고 돌비를 세울 여지가 없었던가 봅니다. 전등사 부도밭에는 현대의 고승 이목당(貳木堂) 서운대종사(瑞雲大宗師 1903~1995)의 부도가 높직하게 위엄을 갖추고 모셔져 있습니다. 부도 앞에는 검은 몸돌의 탑비가 서 있고 그 왼쪽으로는 인공당대강백, 노근선사의 부도가 나란히 서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옛 석종 하나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출한 부도밭이지만 서운 스님의 부도는 웅장한 팔각원당형을 계승 했는데, 운룡문양에서 용의 두 발이 힘차게 강조된 것이 특이합니다. 몸통이나 얼굴을 작게 묘사한 반면 앞뒤로 두 발과 발톱을 상당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높다랗게 화강암을 쌓아올린 기단이 주는 위엄만으로도 마음의 절복이 되는데 발톱을 세차게 내세운 용을 바라보면서 연방 기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운 스님의 부도 정면에 망연히 서서, 용의 발과 발톱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부분의 아름답고 정교한 조각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두드러진 저 발과 발톱! 금시조를 낚아채려는 동작 같기도 하고 염치없고 부도덕한 놈들의 따귀를 휘갈겨 버리려는 자세 같기도 합니다.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금강경>에 '여래멸후 후오백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학자들은 부처님이 입멸한 후 불법(佛法)의 미래를 500년 단위로 다섯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즉, 첫째 500년은 해탈견고(解脫堅固)라 해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로, 두 번째 500년은 선정에 몰두하는 다문견고, 세 번째는 교학에 몰두하는 다문견고, 네 번째는 절 짓기에 몰두하는 탑사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쟁이 난무하는 투쟁견고의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이 가운데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한 이 다섯 시대의 특징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해탈 선정 교학 가람불사 투쟁이 모두 한 시대에 한 덩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즉비(卽非)논리'대로 이 다섯은 곧 다섯이 아니고 그 이름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졌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사는 중생이라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허상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공적(空寂)하고 명료한 진리의 원음을 체득하고 법계에 충만한 깨달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운 스님의 부도에 저렇게 강하게 발톱을 치켜세운 용이 조각된 것은, 투쟁의 시대 혹은 가람불사에만 넋을 놓는 시대로 치닫는 어두운 중생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 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강화도 전등사 부도밭은 현대의 고승 서운 스님이 생전의 그 활달자재한 가풍을 용의 발톱처럼 곧추 세우고 있는 쩌렁쩌렁한 법석이겠습니다.

검은 빛이 오히려 투명한 서운 스님 비석은 스님이 원적에 든 2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황악산 직지사의 회주인 녹원(綠園) 스님이 찬하고 초정(草丁) 권창윤 선생의 글씨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비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을 만납니다.

탐탐십년미견화(探貪十年未見花)
안전홍화화작작(眼前紅花花灼灼)
산문숙정천지개(山門肅靜天地開)
비로자나문외객(毘盧遮那門外客)
꽃을 찾아 10년을 방황 했으나
이제야 눈앞에 붉은 꽃 타고 있는 것을 보겠네.
산속의 고요 속에 천지를 여니
비로자나법신불이 문 밖의 손님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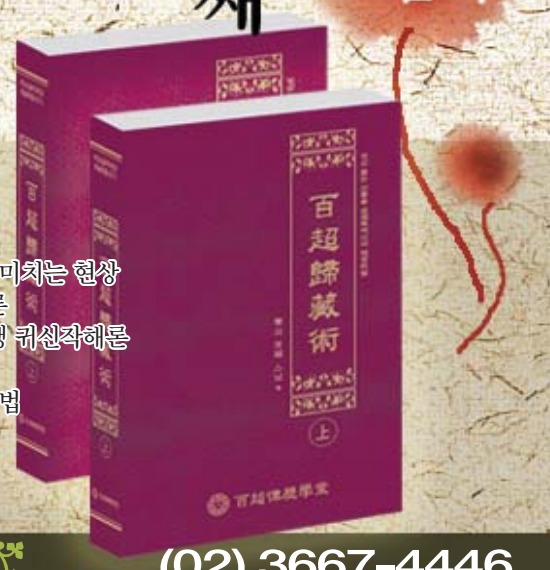
서운 스님이 견성을 체험하고 읊은 오도송입니다. 앞의 두 구절은 동음반복을 통한 활달한 기상이 솟구치고 뒤의 두 구절은 깨달은 사람의 기쁠하고 장대한 풍모가 엿보입니다. 서운 스님이 깨침의 눈으로 만난 봄 산의 진달래 무더기들도 저렇게 불타올랐을 겁니다. 타오르는 진달래 무더기를 보는 안목만으로도 서운 스님은 해탈견고의 시대를 주름잡던 걸승이 분명합니다. 비문의 마지막 대목 '임종게'를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형상 없지만 두드리면 곧 신령스러움 있고/ 삼독으로 화탕지옥을 평생 지냈다./ 이제 몸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니/ 차가운 달 빈 산이 진리의 몸이로다.'

서운 스님이 바라보았을 꽃무더기들은 정족산성 안에도 밖에도 넘치도록 피어 있고 정수사 우측 능선의 함허(1376~1433)스님 부도 주변에서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강화대교 건너 김포 땅 문수산 계곡 군부대를 돌아 올라간 능선에 위치한 풍담(1592~1665) 스님의 부도 곁에서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꽃불은 '후500세'의 중생들이 다 해탈할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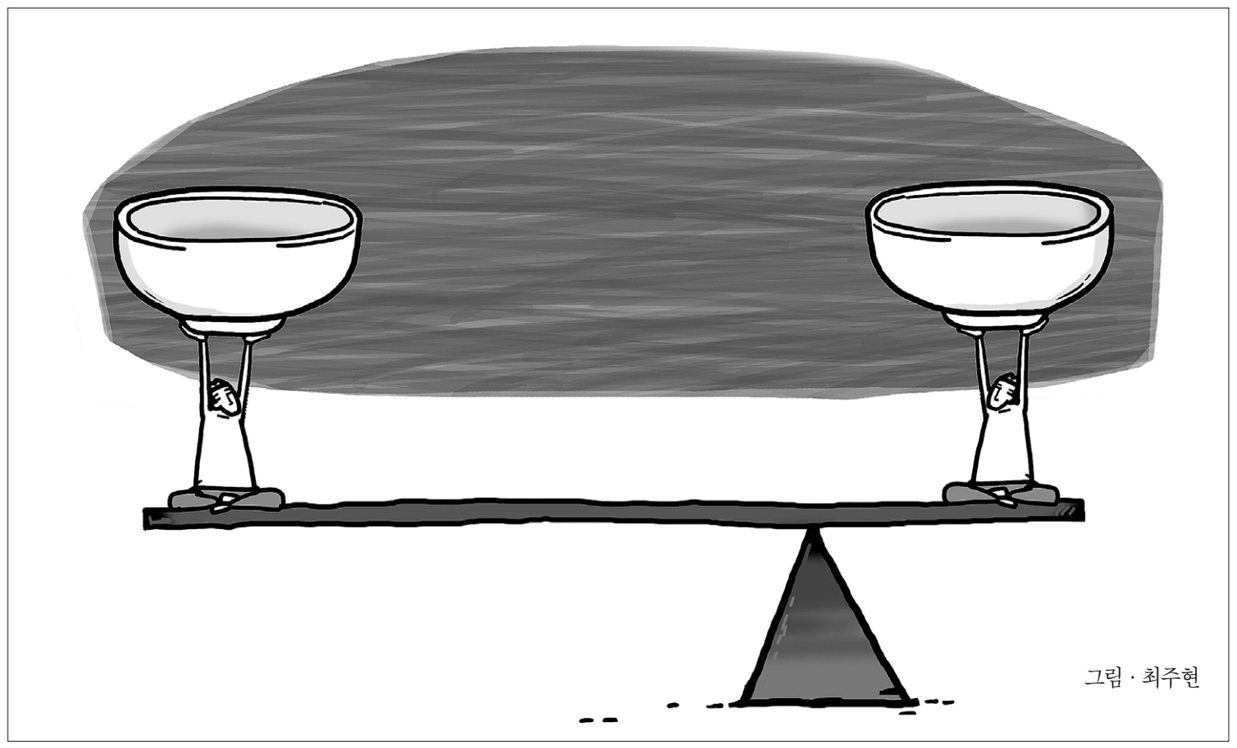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또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찾아온 사간만 가지고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두번째 백초스님의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버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바로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밝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의 불을 밝힐 수 있으려면…

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며칠 전 선원에서는 장엄물 점등식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늘 새기며 살려고 하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등식을 계기로 저희들도 마음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가 보는 등(燈)은 우리의 모습 즉, 이 몸을 등으로 표현했고, 등 속의 촛대는 우리네들 중심을 표현했고, 그 불은 영원한 우리의 불성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켜는 그 등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내 마음을 계발시키고 내 마음을 진화시켜서 승화할 수 있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마음은 체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의식, 욕심, 아집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살아나가는 모든 것에 걸리고 자기를 꽁꽁 매 놓고 삽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업식이 돼서 요다음에 그 몸을 벗지 못하고 또 다시 출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중생이요, 벗어나면 영원히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또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나, 그것을 한생각에 놓으면 그 고통은 다 사라지느니라. 네 아집을 갖지 않고, 욕심이 없고, 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됐으니 부처도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을 이렇게 배우고 나가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밝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한 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한데 뭉쳐서 그 한 놈만 태어나게 되는데, 업식은 거기에 다 한데 뭉쳐져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된 거기에서 가지각색의 그 마음을 다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고 삽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경험대로 사세요. 누가 이렇게 하란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란다고 저렇게 하고, 이거 버리란다고 버리고 이렇게 남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살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한 철의 인생, 한 찰나의 살림살이, 이 도리를 우리 인간으로서 잘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똥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하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 삼천대천세계의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떠한 날인지도 모르면서 등을 켜고, '우리 이 식구가 잘되게 돼야지.' 하고 등을 켜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버리세요. 등을 켤 때 우리 마음이 항상 온 누리에 같이 하고 있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공용하고 공체로서 사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온 누리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데도 생각이 있고 보이는 데도 생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도 생명이 있고 보이는 데도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돌아가는 이 찰나찰나의 생활, 시공이 없는 생활, 이것이 그대로 밝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밝다, 밝지 않다, 컴컴하다 하고 온갖 고(苦)의 생각을 다 하면서 거기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마음,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 이 양면을 다 누가 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스러우니라. 여러분은 마음 한생각이면 자유스럽고, 한생각에 빠지면 바로 고가 붙어서 중생이니라.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라. 너희 맘대로 하는 생각인데 어찌 그렇게 어둡다고 하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이 밝게 계시고 여러분 마음도 밝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지 마시고 한 철 즐겁게 사세요. 그렇게 밝게 살아도 한 철인데 어찌 그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바쁘고 고통스럽게 사십니까. 부처님이 일러 주신 대로 밝고 고통스럽지 않게 나를 버린다면, 아집을 버린다면, 내 것을 버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게 그냥 버리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이 돼야지요.

용광로에 헌 쇠를 넣으면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오지만, 버리란다 놓으란다 이랬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고 사량으로 그렇게 하시면 생산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여러분의 주인공에서 나오고 주인공으로 들고, 즉 핵이 질량이고 질량이 핵이듯 여러분은 그대로, 우리가 먹고 싶으면 요런 음식도 해 먹고 조런 음식도 해 먹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닥치는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중세계에서 상세계로 승화시키고 하세계로 퇴보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아셔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밝게, 언제나 영원한 밝음을 가지시고 부처님 오신 날만 등을 켜는 게 아니라 인등을 항상 켜시고 계신다면 오늘은 항상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항상 내 마음을 밝혀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앉으면 졸리기만 해요

문 스님 법문 듣고 발심해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앉아서 관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했는데 앉으면 졸리기만 해서 집중이 잘 안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싶은데 스님, 이 졸음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답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나'를 만나면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 애인을 생각하고 여자들이 남자 애인을 그리워하듯 그런 식으로 방편을 쓰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의 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방법을 대기도 하거든요.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생각에 '애인이다' 이러면 아예 그냥 가까운 마음이 들어가죠. 그건 방편이지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정이지. 그래서 딴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되죠. 자기 내공의 그 주인, 내 불성이 있는 주인과 내 몸이 있는 주인과 한데 합쳐지기만 하면 그 물그릇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도 졸리다니까 결국은 이런 방법을 댄 거죠. 예를 들면 대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통을 이렇게 이 끄트머리만 삐죽하게 해서 턱 밑에다 딱 대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졸아도 여기 퍽 찔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깐 그걸 놓고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선지식은 그랬죠. 대통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은 듯 해야죠. 그 구멍 뚫린 속에서 소 눈깔이 나올 테니 이거를 꼭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꼭 그걸 노려보고, 하여튼 한 시도 눈을 다른 데 두어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지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열 시간을 앉아 있다 해도 바깥에다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에다, 내공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러곤 자꾸 이렇게 탁탁 쳐 주는 겁니다, 주인공에다. 탁탁 쳐 주면 그게 결국은 뚫리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애절복절하는 거죠. 애절복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절하게….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양이가 쥐 노리듯, 아주 배고픈 어린애가 엄마 젖 찾듯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이건 꼭 되게끔 돼 있다고요.

그리고 수행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자기가 이런 게 불편하다 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거를 내공에다 그냥 놔 버리세요. 일임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놔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닿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정

☞26면으로 계속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칩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전예수재특강안내문

귀의삼보 하옵고
춘삼월 봄을 맞이하여 모두에게 부처님 광명이 두루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윤달을 맞이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 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전통불교의식 중에 하나인 생전예수재를 특강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여법하게 생전예수재 의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강날짜 및 시간 : 5월달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7시

2009년 5월 4일 (월요일, 음 4월 10일) 6일 (수요일, 음 4월 12일)
11일 (월요일, 음 4월 17일) 13일 (수요일, 음 4월 19일)
18일 (월요일, 음 4월 24일) 20일 (수요일, 음 4월 26일)
25일 (월요일, 음 5월 2일) 27일 (수요일, 음 5월 4일)

◇ 시 간 : 오후 3시 ~ 7시
◇ 제출서류 : 특강신청서 (행정실비치)
◇ 특강수강료 : 300,000원 (삼십만원정)
◇ 문 의 : 02)392-3234

※ 생전예수재 의식을 필요로 하시는 스님은 누구나가 수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합장

buddhanews.com

자기 내공에 모든 거를 일임시켜 놔 버려야

☞25면에서 계속

진하세요.

집안이 거덜나게 돼

문 저의 아버지께서 믿었던 친구 분께 보증을 잘못 서 줬다가 그 분과는 척을 지게 되고 저의 집안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처음으로 가까운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정성껏 빌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을 보게 됐고 답답한 마음에 스님께 도움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답 어려운 일이 부딪쳤다 하면 그걸 누가 부딪치게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부딪치게 한 거지 딴 놈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부딪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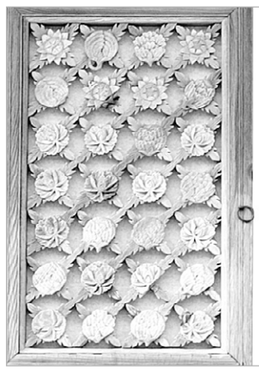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일임해 버리고 놔 버리세요. 그럼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다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서도 마음의 주인이 움죽거리게 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일체를 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어 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지, 절에 가고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부족하면 남한테 잘한다 하면서도 벌써 남한테 좋지 않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모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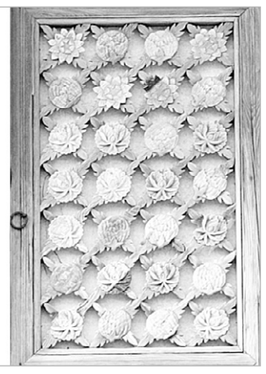
그래서 하나하나 일거일동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자기 믿는 마음을 변치 말고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있어도 타의에서 구하게 되면 마가 생겨서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안이 산란해지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누구한테다 항거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면 살림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한테 탁 일임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걸어가도 무겁게 걸어가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도 안 하고 그냥 무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삼 톤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친다 해도, 삼 톤이라면 얼만 줄 아세요? 삼만 톤이라도 해도 되죠. 삼만 톤이 무겁게 걸어가는데 어디 바람에 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그냥 사량으로서 '아이구! 이러면 좋단다. 저러면 좋단다.' 내가 이러면 이것은 중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질 않고 그냥 가볍게 되니까 결국은 땅에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게 디뎌져야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겁게, 가볍지 않게' 그래야 생활도 무겁게, 값비싸게 돌아가고 내 몸도 값비싸게, 무겁게 광채가 바깥으로 나며 향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한테 이익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 하게 하니 어찌 남한테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접하고 상대를 두고 살아나가는데 어찌 해가 남한테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요,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보살행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이 밝게 계시고
여러분 마음도 밝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지 마시고
한 철 즐겁게 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과 더불어 같이, 이 종교라는 자체가 이름일 뿐이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한 지붕 밑에서 마음을 닦는 그런 공부를 참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래 닦을 것은 없으나 자기 마음들이 자기 마음들 중심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니깐 마음을,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쁜 일은 행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생각을 잘못한다면 내 육신도 고달프게 되고 가정도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니깐 마음을, 그 중심을 탁 쥐고서, 한번 한생각을 낼 때 이 삼세 우주간 법계가 들썩들썩해야만 되지, 그렇게 가볍게 살면 가정도 가벼워지고 하는 일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바람에 쓰러지게 돼 있죠.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고요. 그걸 누구한테 항거를 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커서

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자식을 갖기 전에는 자기 자식을 너무 과잉보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 자꾸 충돌도 일어나게 되고요. 어느 새 내 뜻대로 자식이 따라 주길 바라게 됐나 봅니다. 자식에 대한 이런 애착을 두면 안 되겠죠?

답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는, 부모한테도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말고 효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자식이나 부모나 또는 남이나 똑같이 항상 남을 이익 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겸손할 줄 알고, 마음으로 고개 숙일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누구한테든 인과응보라는 그런 소리조차 없을 것이고 또는 자식과 부모지간에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금끼리 만나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받아야 하고, 이렇게 아파야 하나 이러지만 그것이 애당초부터 자식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연에 따라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치 못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이 도리를 알고 배워야, 지금 살아 있을 때의 그 애착과 모든 걸 다 몰락 버리고서, 애착을 두지 않고 욕심도 두지 않고 내가 한생각 전부 놨을 때 죽어서도 그것은 시공이 없는 그 대공의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끄달리지 않고. 우리가 윤회에 말리는 것도 억겁을 거쳐서 말리지만 우리가 한생각 돌려서 이 도리를 몰락 놔 버리고 안다면 영원토록 또 말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산으로 돌아다닐 때 빨치산으로 붙들렸거든요. 그러니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조회를 했나 봅니다. 조회를 해서 산으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보니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은 어디다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으시면서 그만 몸을 못 쓰게 돼 버렸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또 몸을 못 쓰고 뭐고 그런 건 아랑곳없이 거기에서 그냥 "어머니! 어머니의 진짜 자식이라면 요다음에 다시 내가 사람이 돼서 올 것이고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면, 진짜 사람이 못된다면,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애착을 떼 버리시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떠났거든요.

떠날 때에 어머니가 좋은 옷을 두 벌을 가져왔는데, 바지가 이게 다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다가 그 옷을 걸치면 뭘 하겠습니까. 아니, 말도 못하게 찢어지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앉고 사람 같지도 않은 데다가 그 옷을 입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 좋은 옷은 또 딴 사람 주고 이러고는 한 산모퉁이로 돌아섰을 때 가랑잎이 자욱자욱 밟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나를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덧없는 인간의 이 모습의 그림자를 보시고 저렇게 쓰러지셨으니 눈물이 너무나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보이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 예가 있듯이, 진짜 자식이라면 금과 금이 마주 있을 때에 금은 둘이 아닌 겁니다. 금은 금이기 때문이죠. 근데 뭘 애착을 갖고 그럽니까. 다시 금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모습을 한 번 만났으면 헤어지는 일이 틀림없을 텐데,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내 자식이라 하고 무엇을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겠으니 착이 없이 그대로 이익 하게 시봉을 하는 거지요. 나는 예전에 아주 못생긴 소나무를 봐도 "아이, 너도 나와 같이 못생겼구나. 이 위의 순을 자르면 넌 모가지까지 달아나가니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 우리 같이 살아 보자." 하고 맨 밑바닥에 달린 그것을 소나무 가지로 꺾어서 그 잎을 씹어 가면서, 또는 그 대를 씹어 가면서 물을 마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진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간다 하더라도 실과나무는 오늘 저녁까지는 심어야 한다.' 이런 게 투철하죠. 착이 없으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과응보로서, 유전성으로서 그건 그대로, 과보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지 말라 이거예요. 애를 쓰고 괴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괴로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괴로울 게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해 놓고서, 자기 자신들이 해 놓고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알고 착을 탁, 끊어서 놔 버려라 이겁니다. 내 마음의 주처가 있듯이, 그 인연된 사람들의 마음의 주처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못되게 하진 않아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놔 버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어미 아비 생각 하고 자식 생각 할 사이가 없이 그냥 뛰죠. 자기 살 구멍은 다 찾습니다. 그런데 왜 애를 써야 합니까? 애를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남이 이 짚단을 이렇게 한데 붙여놨다가 헤어질 때 되면 홀홀 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애를 씁니까. 언제 적의 부모 자식이며 언제 적의 부부였고, 언제 적의 한 식구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넌 이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랬다 한다면 자식은 "난 이리로 가는 게 좋겠소." 그럴 때에 이 부모가 생각할 때 '아이,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자식은 부득이 이리로 가겠대요. 예를 들어 얘기예요. 그러면 "아! 네가 그리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니까 항상 가는 대로 길을 네가 찾아가면 되니까." 하고 하나도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래도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가 찾아 자기가 가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뒷받침을 그렇게 해 주고 원하는 자에게 마다 안 하시고 중생들에게 해 주셨죠. 지금까지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시 살아 계시니까요. 아주 꽉 차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한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학교 학생들이 공기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또 자치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꼽아서들 하고 놀잖아요. 잠시 잠깐 그렇게 와서 놀다가 종 땡땡 치면 그냥 쓱쓱 지워 버리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소꿉장난하다가도 그냥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아무개야!" 부르면 "예!" 그러고선 다 지워 버리고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착을 둘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던져라 이겁니다. 그렇게 바로 움쭉을 안 하는 그 마음이 돼야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다 이 소립니다. 잠시잠깐 캠핑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뿐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집착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도 자기 마음 중심에 항상 놓아 가면서 살아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영산대 석좌교수 · 前 총장

대통령의 말로 '생각없음' 의 결과

노무현 前 대통령이 퇴임 일주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전형적인 '대통령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퇴임 후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하직원, 부인, 아들, 친구, 조카사위 등을 동원해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뉴스를 덮고 있다. 노무현 씨는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깨끗한 정부를 외치며 이권이나 청탁 그리고 뇌물을 받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패가망신을 당하게 하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자기의 말로를 예언한 것임을 알겠다.

노무현 씨라고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을 했겠는가? 국민들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겠는가?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라는 비스마르크의 명언과 같이 정치는 좋은 의도보다도 좋은 결과에 의해 평가받는다. 그런데 노무현 씨 자신도 그렇고 그를 뽑아준 국민들도 겉모습만 보고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업을 짓는 것은 몸과 말과 생각(身口意 三業)에 의해서인데 그 중에서 중심이 생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一切唯心造)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란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 즉 타자(他者)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대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시대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업을 짓게 된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주범 중의 하나인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인간성과 인간의 다원성을 파괴한 범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한 위대한 정치철학자 '하나 아렌트'는 그의 문제점을 '생각 없음(thoughtless)'에서 찾았다. 그는 자기 손으로 어떤 인명도 살상하지 않았으며 법집행의 최상위에 있던 지도자(Hitler)의 명령에 따라 유태인을 모으고 열차나 배에 태워 살인 가스실이 있는 아우스피츠 수용소에 보냈을 뿐이다. 문제는 그가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노무현 씨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국가와 민족의 진로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직무에 걸맞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은 결과를 생각하는 신중함과 책임의식이다. 그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는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다른 대규모 금전 사고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은 그의 '생각 없음'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와 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독선과 '생각 없는 행동'을 교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삼권 분립의 의회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의회와 법원이 충분히 그의 일탈된 행동을 견제할 수 있었으나 그런 모든 기제들이 작동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데모 군중과 법원은 오히려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민주정치가 얼마나 손쉽게 전체주의 독재로 변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국민이 좀 더 생각했었더라면 그런 대통령을 뽑지 않았을 것이고 노무현 前 대통령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통령의 말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불서읽기 저변 확대의 계기

도서관이 있는 사찰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별로 없다. 절에 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대출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을 꾸민 사찰은 그리 많지 않다. 사찰 도서관만 적은 것이 아니다. 책 읽는 불자도 많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불서의 생산에 비해 수요는 미미하다는 게 불서출판계의 중론이다.

오래전부터 불자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혀 온 것이 사찰도서관이다. 사찰에 도서관이 있고 스님들이 독서를 권장하면 불자들이 책을 읽을 것이란 계산이다. 틀린 계산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사찰에 도서관을 꾸미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불교회관에 사찰 도서관이 마련됐다.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가 뜻을 모아 사찰도서관 '불서사랑' 제1호를 연 것이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사찰도서관을 열어갈 계획이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문화부는 불서 읽기와 보시하기와 공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독서인구 확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한다. 종단이 앞장서서 불서 읽기 저변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이끌어 가다보면 어느 순간 자발적인 참여로 가속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자들이 불서를 읽는 것은 당연하다. 불서도 해가 갈수록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책을 통한 신심의 고취는 기복과 구복으로 치우치는 신행의 왜곡도 막을 수 있다. 불서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길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자

'사회적 기업'에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자연환경의 보존,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 된 분야가 아니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서서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기업'의 모토야말로 불교가 추구하는 자비의 사회 구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추구를 근본 목표로 하는 기업의 논리와 달리 이윤을 추구하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점에 불교계가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외계층이나 낭비의 요소를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바로 그 틈새를 메워주는 자비의 실천행이다. 그렇게 볼 때 불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토대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 불교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포교전략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다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종교로서의 위상 강화도 이뤄질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불교의 사회적 가치실현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전통사찰이 갖는 문화적 가치의 활용을 비롯해 많은 콘텐츠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복합공간 사찰 보존 고마울 뿐…

해마다 느끼지만 봄은 변덕스러운 계절이다. 며칠 전 내가 좋아하는 도시, 경주에서는 갑작스런 봄 추위에 활짝 핀 목련이 그대로 까맣게 얼었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은 지 얼마되지 않아, 거리에 이미 꽃잎들은 지고 있다. 아차! 올해도 또 봄 꽃구경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에 아쉽기만 하다.

이제 곧 오월이다. 거리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다리는 듯 거리마다 예쁜 등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오월은 스승의 날, 어버이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일이 많은 분주한 계절이다. 나이 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나를 이런 일들로 늘 분주하게만 하고 마음만 바쁘다. 이제는 세상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총무원 문화부에서 근무하면서 사찰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다. 미술사라는 분야를 학문으로만 접하다가 실제 사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사찰과 문화재를 이해하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나의 경험이 있기에 전통을 잘 계승하며, 사찰에 이르는 길, 산과 개울, 강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오는 사찰에 가보면 더욱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사찰에서 살아오신 스님들에 대한 노고와 애정에 더 없이 감사하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사찰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수행처이며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들면, 사람들은 10년 전에 다녀갔던 사찰은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증축 · 신축된 건조물로 인해 확장된 사찰 모습에 실망하곤 한다. 심지어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반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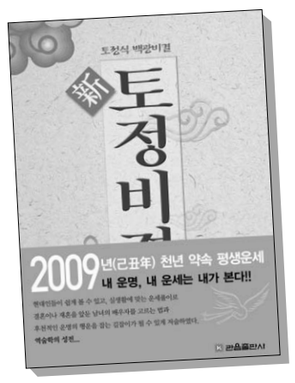
이런 시각은 마치 과거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유물만 남아있는 고궁과 서원처럼 사찰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찰문화재는 박물관 수납장에 갇혀 그 본래적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채 예술적 감상이나 볼거리로 전락한 박제형 문화재가 아니며, 현재는 그 빈 모습만 남아있는 문화재도 아니다. 사찰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대상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수행과 신행의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님들의 즐가적인 삶 그 자체마저도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사찰은 지속과 계승이 반복된 현재 진행형 불교문화예술 활동 공간이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찰은 국민 누구나가 아늑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로서 많은 대중 속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그안에서 생활하시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무분별한 불사로 인해 자연과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심만이 드러난 사찰의 모습은 물론 실망스럽다. 그러므로 편리함과 이익을 포기하고,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애쓰는 그런 스님과 신도들에게 더욱 감사할 뿐이다.

이분희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



화제의 신간
新 토정비결
2009 년(己丑年) 천년 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珖(백광) 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21세기 新 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徐昇煥 지음 / 4×6배판 / 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 / 각 권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대한불교 선각종

순국선열, 호국영령 선망 조상 합동 영산대재



영산대재를 시연하는 일운 봉원사 주지스님

대한불교 선각종 총본산 옴천사(唵泉寺)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스님)은 총본산 옴천사에서 2009년 4월 11일(음 3월 16일) 제10회 순국선열 호국영령 선망 조상 합동 영산 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영담 정업 대종사는 종단을 대표해서 국운융창, 경제회복을 위한 영산회상을 열어 영혼을 발심시키고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을 위하여 유주 · 무주 · 외로운 혼백과 모든 영혼들에게 법식을 베풀었다.

1부에서는 국태민안 기원 및 국운융창 대법회가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중요무형 문화재 제 50호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스님과 문화생들이 영산재를 직접 시연 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순국선열 호국 영령 선망 조상 합동 영산대재가 봉행됐다.

증명 법사로는 종정 영담 정업 대종사, 대한불교 조계종 봉갑사 조실 도륜 큰스님, 월남사 주지 주봉 큰스님, 정수사 수연 큰스님, 원로원장 법경스님, 총무원장 봉운 정암스님, 신촌 봉원산 주지 일운스님, 보성그룹 유대근 회장, 선각종 종도 120명, 사부대중 350여명이 동참하여 성대히 치뤄졌다.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옴천사
TEL:(061)433-2233 / FAX:(061)433-2425
종무소 (061)433-3233

입종안내

부처님 혜명을 이어 포교에 전념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를 모십니다.

■준비서류

종단 입종 신청서,사찰등록신청서(사찰 건물 내 · 외부 사진 각 1장),건물등기부 사본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사진 (반명함) 6매

옴천사 봉축 연등 접수합니다.



한국의 장례문화

우리 부모 형제의 마지막 옷인 수의가 오늘날 무분별한 상혼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성 대마 100%로 만든 삼베 수의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는 보성그룹에서는 불교장례문화 및 유교식 장례문화에 대해 총무원장 정암스님과 보성그룹 유대근 회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각 종단 및 학계 대표분들과 매년 정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올바른 장례문화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삼베수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성그룹 유대근 회장





